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 기념 제5차년도 학술심포지움

1894년 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 일시 : 1994년 5월 20일~21일 2일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 주최 : 한국역사연구회
- 후원 : 역사비평사

연구회 활동 안내

한국역사연구회는 출범 후 5년 동안에 걸쳐 '한국사 특강'을 개설하고 《역사와 현실》 제 1·2·3·4·5·6·7·8·9호와 《한국사강의》, 《한국역사》 등을 출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학술대토론회(연 1회)
2. 연구발표회(월 1회)
3. 대중강좌
4. 공동연구 및 공동학습
5. 회지 《역사와 현실》, 《회보》, 《소식지》발간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회원가입 · 회비납부 안내

1. 연구회원은 본회의 공동연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본회 소정의 내규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회비 : 월 1만원(대학원생 5천원)
2. 일반 회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자격 : 본연구회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 2) 의무 : 회비 납부(연 2만 8천원, 대학생은 1만원)
국민은행 : 820-01-0028-630 오종복
상업은행 : 183-05-029952 한국역사연구회 안병욱
우체국 : 012351-0090276 이경희
농협 : 100082-56-007088 이경희
 - *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구에 부탁해주시고
 - * 국외에서 가입하는 경우 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일본 ₩5,000, • 미국·유럽지역 \$45
- 3) 권리 : 연구발표회와 학술토론에 참가
회보(연 4회 발간) 및 회지(연 4회 발간) 수령

청산하지 못한 역사

한국현대사를 움직인 친일파 60

반민족문제연구소 지음 <전3권>



각권 6,000원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움직여 온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지도층 친일 인사 약 60인의 사상적 뿌리와 성장환경, 사회활동에 걸친 총체적인 연구 보고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도층 인사들의 이면과 한국사회를 움직여 온 본질을 체계적으로 밝힌 최초의 본격적 연구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참모총장도, 대학총장까지도... 이럴 수가 !!

■ 1권 수록 인물

● 정치1 - 박정희(대통령), 최규하(대통령), 윤치영(서울시장), 진아중(국무총리), 김동원(국회 부의장), 임영신(중앙대학교 총장), 정운갑(농림부장관) ● 군 - 장갑건(국회 부의장), 이응준(육군참모총장), 김창룡(육군특무대장), 백선엽(육군 참모총장), 원웅덕(헌병사령관), 채병덕(국방부 참모총장), 최경록(주일대사) ● 법 - 한태연(서울대 법대교수), 민복기(대법원 판사), 이호(법무부장관), 백한성(내무부장관) ● 미술 - 이상범, 윤효중, 김경승

■ 2권 수록 인물

● 정치2 - 장면(부통령), 김성수(동아일보 설립, 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이갑성(광복회 회장), 박순천(국회의원), 한동석(총무처 부장), 박미리아(대한부인회 최고위원), 최순주(국회부의장), 이재학(자유당 원내총무) ● 권료 - 백두진(국무총리), 김정렬(국무총리), 한희석(국회의원), 장경근(국방부차관) ● 언론 - 방응모(조선일보 사장), 유광렬(매일신보 논설부장), 이상협(동아일보 발행인 겸 편집국장) ● 문학 - 서정주, 조연현, 곽중원 ● 종교 - 노기남(천주교 대구교), 갈홍기(공보처장관)

■ 3권 수록 인물

● 교육/학술 - 이병도(문교부장관, 국사편찬위원), 유진오(고려대 총장), 백낙준(연세대 총장), 신석호(한국사학회 회장), 이선근(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조용만(고려대 교수) ● 경찰 - 최연, 최운하, 노덕술, 김호익, 최경진, 곽영주, 노주봉 ● 음악 - 김성태(대한민국 예술원 원장), 이용렬(숙명여대 음대 학장) ● 좌익계 - 이승업(서울시 인민위원장), 정백, 조일명

■ 전3권/각권 6,000원

역사란 무엇인가 (개정판)

역사기의 역할과 역사의 매력, 그 양자 모두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없는 현대의 고전——이 개정판은 카의 글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의 논지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글이 갖는 현실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요지와 검토 과제를 추가하였다.

E.H 카 지음/곽복희 옮김/287쪽/값4,000원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3·1운동 70주년 기념 논문집)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와 동력을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책은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났던 민중 역량의 힘찬 분출,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민족해방운동사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엮음/588쪽/값8,000원

조선정치사 1800-1863

(상) (하)

우리 역사에서 19세기는 어떠한 자리매김으로 서 있는가. 누구나 19세기를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기면서도 그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며, 혹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 또한 일제의 제국주의 침탈에 기여하는 식민사관의 연구 아니면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의 연구뿐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지음/상권 372쪽, 하권 436쪽/각권 값7,800원

도서출판 청년사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44-7
전화(02)578-5257~9/팩시밀리(02)578-8757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 기념 연구논문집
L O N L O L N M L L L N

한국 근대사 최대의 미증항쟁 그 올바른 인식을 위해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비평사는 5개년의 연구기간, 60여명의 전공 학자 그리고 1억여 연구비를 투입하였습니다.

1994년 전5권이 완간됩니다.

1894년 농민전쟁연구

역·사·의·진·보·는

1894-1994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내는 것이다.

역사상의 농민들은 비록 거의 한결같이 패배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귀착되기 일쑤이지만, 각 시기마다 부여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농민들의 항쟁은 곧 역사발전의 동력이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이들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것이 우리 후세인들의 몫이고, 이 연구논문집의 가장 큰 발간 목적이다.



1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366쪽/6,400원

곧 나옵니다.

4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5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2 18·19세기의 농민항쟁 370쪽/6,400원



3 농민전쟁의 정치·사상적 배경 376쪽/7,000원

역사비평사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20-1
전화 279-0157, 0976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 기념 제5차년도 학술심포지움

1894년 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5월 20일

- 오전발표 10:30~12:30
 1.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1 (김인걸, 서울대)
 2.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2 (고석규,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 오후발표 1:30~3:00
 3. 농민전쟁의 지역사태 (박찬승, 목포대)
 4. 농민전쟁의 지도부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 종합토론 3:00~5:30
사회: 이세영 (한신대)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박맹수 (영산 원불교대)
김양식 (단국대), 발표자 전원

5월 21일

- 오전발표 10:30~12:00
 1. 농민전쟁기 국내 지배세력의 동향 (양상현, 서울대 규장각)
 2. 청일양국의 농민군 대책과 청일전쟁 (최덕수, 고려대)
- 오후발표 1:00~1:40
 3. 한국 근대사에서 농민전쟁의 위치 (안병욱, 성심여대)
- 5개년 연구사업 정리보고 1:40~2:00
- 종합토론 2:00~6:00
사회: 이영호(한국과학기술대)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정창렬 (한양대), 김정기 (서원대),
박찬승 (목포대), 주진오 (상명여대), 김성찬 (인제대, 동양사),
윤승준 (안하대, 서양사), 발표자 전원
- 기념공연 6:30~7:30
임진택 창작 판소리 '1894년 농민전쟁사' (初演)

1.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1

- 고부민란부터 제1차 봉기까지 -

1. 머리말	3. 제1차봉기
2. 1890년대 초반 농민들의 동향과 고부민란	1) 1차봉기의 구상과 반봉건 농민전쟁의 수행
1) 1890년대 초반 농민들의 동향과 동학	2) 정부의 대응과 '전주화약'
2) 고부민란	4. 맺음말

공동연구 ■ 김인걸(서울대), 배항섭(고려대 강사)

1. 머리말

1894년 농민전쟁은 근대로의 전환기에 조선사회가 해결해야 할 반제 반봉건의 과제를 수행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었다. 조선의 농민들은 18세기 이래 조선 봉건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모순에 대해 각종의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구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개항 이후 외래 자본(상품)의 침투는 조선의 구체제가 갖고 있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던 사회세력들의 성장을 저지하고 일반 농민들을 더욱 몰락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반봉건의 과제가 반제국주의의 과제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들은 위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가 외국 군대의 개입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 인해 이 농민전쟁은 개항 이후 조성된 민족모순을 해결하고 근대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전기가 되고 있었다.

최근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구체적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농민전쟁을 설명하는 시각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농민전쟁의 전개과정과 관련해서는 1894년 농민전쟁을 '고부민란', 제1차 농민전쟁, 집강소개혁, 제2차 농민전쟁의 4단계로 정치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설명틀을 갖게 되었다.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1>이라는 주제의 본 발표는 위에서 두번째 단계까지를 다루게 된다.

본 발표와 관련된 연구성과 가운데 가장 큰 논쟁점이 되는 것은 고부민란과 1차봉기와의 단절 혹은 연계 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부민란이 교율단위로 고립되어 전개되었던 기존의 '민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데 비해 1차봉기가 전국적인 농민전쟁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 동학 교단의 조직이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최근 일반화된 설명이 문제가 된다. 이같은 설명은 단절성 극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없다. 교단조직이 농민전쟁에 기여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으로 전쟁의 발발원인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운동 주체인 농민층의 의식 성장과, 이에 짝하여 증대되어가는 민중의 불만을 조직화해낼 수 있는 지도부의 형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명하는데 관건이 되는 것이 '교조신원운동'과 '고부민란'이다. 이는 농민전쟁의 전사를 이루며, 농민전쟁의 주체세력과 지도부의 형성 및 전쟁구상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한편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다룰때 흔히 취해온 방식의 문제점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자체가 치밀하게 다루어진 경우도 없지만 다루는 경우라 하더라도 흔히 호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력군의 동향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각 사건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은 전쟁에 참여한 농민군들의 조직적 기반, 투쟁 대상 및 그 지향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농민군 지도부의 전쟁구상과 정세판단에 의해 이끌리지만 객관적 정세의 변화와 조직기반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수정을 요하게 되며, 지도부의 노선이 농민군 대중의 요구를 수렴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제 양상을 그 자체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검토 위에서 전개과정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일단 고부민란, 1차봉기 두 단계로 나누어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가능한 당시의 객관적 정세, 농민군 지도부의 전쟁구상과 조직적 기반, 농민군들의 구체적 요구와 투쟁활동, 정부 및 관군의 대응 등을 긴밀히 연결시켜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2. 1890년대 초반 농민들의 동향과 고부민란

1) 1890년대 초반 농민들의 동향과 동학

'민란'은 1880년대 후반부터 격증하여 1893년에는 전국에 걸쳐 60여회 이상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 대다수 민란은 그 형태나 내용면에서 이전 시기의 그것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지만, 몇가지 면에서 주목할만한 양상이 나타났다. 1889년의 정선, 1891년의 나주와 낭천(화천) 등지에서는 봉기가 수개월간 지속되기도 하였고, "1890년 함창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읍폐교구를 위한 도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들을 엮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체제변혁을 이루어낼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1890년대 들어 이루어지는 동학교세의 급격한 확산과 변혁지향적인 사람들의 집중적인 입도이다. 이 시기에 입도한 사람들은 부패한 지배층의 탐학과 수탈에 견디다 못해 道보다는 '세상이 크게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³⁾ 교세가 확장되면서 "도를 이는 자가 드물다"는

1) 백승철, 1992 <개항 이후 농민항쟁의 전개와 지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김양식, 1989 <고종조 민란연구> 『차문섭 화갑기념논총』

2) 『경상감영계록』(각사등록 영인본 11권)

3) 오지영, 『동학사』(초고본)

최시형의 말도 그와 관련된 것이다. 부산에 있던 일본영사도 민란 난민들이 동학의 이름을 빌어 지방관들을 위협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는 바,⁴⁾ 이는 동학교세의 급격한 확장과 함께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대두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 무렵 동학에서 ‘협동일치’와 ‘결당’의 중요성을 보고 입도한 전봉준도 같은 입장이었다.⁵⁾

이와 같이 변혁을 추구하던 농민들의 동향은 189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동학을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있었다. ‘난리’를 바라던 농민들과 동학을 이용하려던 자들이 동학의 조직을 매개로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동학교도가 급증하자 봉건정부와 관리들은 칙탈을 강화하였다. 이에 각지의 교도들과 교단지도부내 변혁지향적인 인물들은 교조신원과 복합상소를 강력하게 제기하기 시작한다. 1892년의 공주집회와 삼례집회는 동학교단의 이러한 변화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 충청, 전라감사에게 요구한 내용은 - 외세의 칙탈에 따른 폐해와 수령, 토호들의 탐학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 기본적으로는 포교의 자유라는 종교적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감영에서는 동학이 어디까지나 이단일 뿐이고, 금단 여부의 문제는 조정에서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학금단에 따른 폐해를 중지시킬 것을 동시에 약속하였다. 이것은 ‘邪術’로 지목받고 있던 동학교단, 특히 1890년대 들어 유교화의 경향을 보이며 ‘제도화된 종교’로 방향을 잡아가던 교단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금단에 따른 폐해를 중단시키겠다는 감영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교도들 가운데서는 이미 삼례취회시에 복합상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었다. 최시형은 거듭되는 교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여,⁶⁾ 또 감영이 보여준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반응에 고무되어, 그리고 금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뿐이었으므로 복합상소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가 1893년 1월이었다.

공주, 삼례집회에서는 교단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아직 변혁세력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 탐학에 대한 반대나 척왜양의 구호도 아직까지는 종교적 구호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례없던 전국적이고 집단적인 시위운동의 경험과 관측의 유화적인 반응은 교단이나 변혁지향세력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자신감을 주었다.⁷⁾ 동학교단의 도소 설치와 복합상소 단행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단총부가 노출되므로써, 이는 다른 한편으로 교단의 태도를 한층 타협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합상소의

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재부산일동영사 加藤增雄의 보고 「다른 야심을 품고 草莽에 숨어있는 자 역시 이(동학) 무리를 이용하려고 하며, 또 이들의 聲名이 점차로 요란하여지게 되자 다른 민란 난민들도 이 동학도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방관들을 위협하게 되고 여기서 진짜 동학도와 가짜 동학도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5) 『동경조일신문』 1895년3월6일자(<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전봉준회견기 및 취조기록』 『사회와 사상』 창간호, 262쪽)

6) 복합상소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동학교도들은 금구를 비롯하여 영동, 보은, 목천 등지에 둔취해 있었다(『속음첩사』(상), 261쪽).

7) 장영민, 1991 「동학의 대선생신원운동에 관한 일 고찰」, 『백산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 박찬승, 1993, 「1892, 1893년 동학 교도들의 ‘신원’ 운동과 ‘척왜양’ 운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내용이 주로 동학교리의 설명에 치우쳐 있고 인의예지, 성정신 등을 중심으로 동학이 유교와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한 반면, 공주, 삼례취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하였던 탐관오리와 외세의 침입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지나 현저히 약화된 점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변혁지향세력은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교도들의 호응, 특히 도소가 설치된 후 '구름처럼' 모여드는 교도들의 모습을 통해 동학교단이 이제 충분히 변혁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이미 일찍부터 복합상소를 주장하여 교단을 추동한 바 있지만, 두 차례의 '교조신원운동'을 겪고 도소가 설치된 후 복합상소 때부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복합상소 직전 서인주와 서병학은 곧장 병대와 협동하여 정부간당을 소탕하고 조정을 개혁하자고 주장하였다. 또 복합상소 시기를 전후하여 서울에는 척왜양을 주장하는 폐서가 수 차례 나 붙었다.⁸⁾ 이러한 모습은 교단측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 교단측이 "각자 안업하라"는 국왕이 전하는 말을 듣고 순순히 귀향하였던 데 반해, 변혁세력은 계속하여 정소와 척왜양방문게시 등 교단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변혁세력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좀더 확실해지는 것은 교단측의 보은취회시에 금구에서 별도의 집회를 연 사실에서 알 수 있다.⁹⁾ 이들 금구취당세력은 보은집회의 성격을 정치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합세하여 서울로 쳐들어가 탐관오리 척출운동을 벌이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

한편 보은, 금구집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조신원운동'과는 거리가 먼 척왜양 구호가 전면에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보은, 금구집회에서 내건 구호는 변혁세력이나 교단측을 막론하고 척왜양이었다.¹¹⁾ 그러나 그 배경이나 의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교단측의 척왜양구호와 그 이념으로서 충효를 강조한 점은 동학이 서학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유학과 같다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종교적 측면에 경사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변혁세력이 척왜양구호를 전면에서 부각시킨 것은 무엇보다 종교적 집회를 정치적 집회로 바꾸려는 의도, 그리고 대중적 정서를 수렴하여 척왜양의병 입을 강조하려 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민요가 지경을 넘으면 반란이 된다'¹²⁾는 의식에 머물던 농민들을 결집시키는 좋은 명분 가운데 하나가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는 의병의 기치를 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19세기 후반 '변란'에서도 많이 활용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보은, 금구집회에서 제기된 척왜양의 구호는 교단과 변혁세력 양측이 서로 다른

8) 복합상소시기의 폐서들이 모두 동학교도에 의해 행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룡산 개국수명'을 주장하며 보은, 금구취회에도 사람을 투입하여 기회를 엿본 집단도 있었고, 농민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감록류의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을 이용하여 변란을 도모한 세력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 동학을 이용하려던 세력들의 성향은 다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척왜양 방문게시에도 이러한 세력이 가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9)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구집회의 독자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10) 정창렬, 1985 「교부민란의 연구(상)」 『한국사연구』48, 130-131쪽.

11) 보은집회가 척왜양 구호를 내세운 것이 금구집회를 주도한 변혁지향적인 세력의 영향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단측에서 척왜양구호에 대한 어떠한 반대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어윤중 등 관군과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방문 등을 볼 때 교단측에서도 척왜양을 강조하고 있었다.

12) 장봉선, 『전봉준실기』

방향에서 접근하여 만난 접점이자, 양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척왜양구호는 종교운동을 정치운동화하는 단서는 되었지만 동시에 변혁 지향세력의 한계를 보여 준다. 지금까지는 '척왜양' 구호에 주목하여 '교조신원의 종교적 주장은 철회되고 민중의 현실적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슬로건이 전면에서 부각' 되었다고 주장되어 왔다.¹³⁾ 그러나 민중들의 현실적 요구는 무장포고문 등 각종 격문이나 통문, 그리고 구체적인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외세 보다는 탐관오리의 정치 등 반봉건 변혁에 있었다. '척왜양'은 다수의 민중들에게는 여전히 관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손에 잡히는' 타파의 대상이 못되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왜양을 전면에 내건 것은 변혁지향세력이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을 채 갖추지 못하였고, 동학교단의 움직임에 편승, 그것을 이용하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¹⁵⁾ '사발통문' 계획과 교부민란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다.

2) 교부민란

보은, 금구집회 해산 이후 동학교도들은 각지에 둔취해 있었고 재봉기와 서울 침공 등의 소문이 잇따랐다. 이 무렵 전라도 일대에는 교도들간의 지역적 조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차라리 힘으로써 대항하지는 의논이 성립되어 교부, 부안, 고창, 무장 등 각지에 있는 동학당들은 특별한 단결을 지어 어느 방면에서든지 일이 있는 시는 주야를 불문하고 일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법을 만들어 뒀든 것이다".¹⁶⁾ 변혁지향적인 교도들의 대거 입도와 더불어 교부일대에서는 교을단위를 뛰어넘는 조직적 결합의 단서가 마련되어 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일정하게 교류를 하고 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지역간의 조직적 결합은 이들 지도자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교단의 움직임을 추동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편승하여 활동하던 변혁세력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는 과정이었다. '사발통문계획'이 이루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농민전쟁관련 '사발통문'의 내용은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세번째 부분은 "이때에 도인들은 <선후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는 구절로 볼 때 어떤 계획이나 사건이 있는 다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부분, <각리리집강좌하>로 끝나는 사발통문과 관련지워 본다면 교부농민

13) 김의환, 「1892, 3년의 동학농민운동과 그 성격」에서 주장된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다.

14) 2차봉기에서 왜선의 빈번한 왕래, 일병의 경복궁침입, 청일전쟁 등을 통해 가시화한 왜의 존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점은 1차봉기와의 차이를 보여준다.

15) 금구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윤중에게 "이번 취당은 최시형의 분부에 따라 척왜양을 하게 된 것이며, 또 수령의 침략을 견딜 수 없어 한 것이다"고 하였다(『속음청사』(상) 269쪽). 금구집회의 계기가 된 것이 교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척왜양의 구호도 교단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곧 금구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아직까지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16) 오지영, 『동학사』(초고본)

들이 11월 고부관아에 등소하기 위한 통문을 돌린 직후 혹은 등소가 실패로 끝난 후로 여겨진다. 고부에서는 1893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나 정소를 하였지만 그것이 봉기로 이어진 적은 없고, 전봉준 스스로도 장두가 된 적이 없다. 전봉준은 “정월 이전 고부일읍에는 민장 뿐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정소는 하지 않았다”¹⁷⁾ 고 하였다. 그러나 고부민들의 등소운동이 오히려 탄압만 받고 실패로 돌아가자 전봉준 등은 드디어 세번째 부분의 ‘조병갑 처단과 전주영 함락 및 경사직향’을 결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의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라도 일대에서 동학교단과는 별도로 마련되어가고 있던 변혁지향적인 교도들의 독자적인 기반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두번째 부분(우와 여히 격문을 사방에 비전하나-난리 났네-기일이 오기 만을 기다리더라)은 내용상 민란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는 격문에 대한 반응이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¹⁸⁾ 이 부분은 회상하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내용으로 볼 때(특히 격문을 비전했다는 부분과 난리가 났다는 부분) 후술하는 바와 같이 2월20일 직전 전봉준이 전라도 각 읍으로 보낸 격문을 본 각지 민중들의 상황을 적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봉준이 전면에 나선 고부민란은 이미 단순한 민란일 수가 없었다. 민란에는 인근읍의 인물들도 함께 참가하고 있었다.¹⁹⁾ 그러나 인근 읍의 호응을 받지 못한 채 특별한 진척이 없이 둔취해 있다가 늦어도 2월 20일 이전에 전라도 각읍으로 격문을 날렸다.²⁰⁾ 이 격문의 내용은 단순한 민란과는 차원이 다른 사실상의 농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주목해야할 것이었다.

“수목지관은 치민의 도를 모르고 관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 게다가 전운영을 창설하여 폐단이 번극하니 민인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장차 위태롭게 될것이다. 원컨대 각읍의 여러 군자들은 목소리를 모아 의기를 분발하여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²¹⁾

반봉건의 성격을 강하게 띤 위 격문의 개략적 내용은 민중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고을단위의 폐정개혁에 대한 요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이전 교조신원운동에서 보였던 반외세에 일면적으로 경사된 구호가 아니었다. 전봉준은 이를 통해 민란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면서 농민전쟁을 수행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발통문의 세번째 부분에서 결의한 ‘경사로 직향할 사’의 결의를 실천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하겠다.²²⁾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건 사실상의 농민전쟁을 기도한 것이다.

전봉준은 전라도 각지의 호응을 호소하는 한편 고부민란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했다. 2월 25일 백산으로 진을 옮긴²³⁾ 전봉준은 ‘난민’들에게 함열 조창에 나아가 전운영을 격파하고 전운사 조필영을

17) 「전봉준공초」(제초문목)

18) 정창렬, 1985 <고부민란의 연구(하)> 『한국사연구』49, 102쪽

19) 『일성록』, 고종 31년 4월 22일자「甚至於悖謫之輩 主張興訛旁嚇隣邑浮浪之徒」

20) 종래에는 파계생의 「고부민요일기」, 최영년의 「동도문변」, 「오하기문」 등을 이용하여 전봉준의 고부 격문이 1894년 2월 22일 전후 띄워진 것으로 파악했으나 『남유수록』은 2월 20일 조에 고부민란이 크게 확대되는 근거로서 고부에서 각 읍으로 격문을 돌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21) 『남유수록』 갑오2월20일조

22) 유우일, 『어록』에도 이 무렵 “合京湖而京師直行”하려는 소문이 있었음을 기록해두고 있다.

23) 파계생, <고부민요일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56쪽

정치하자고 호소하였다. 인근 읍민들의 호응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의 기대는 좌절되었다. ‘난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민요가 越境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 이유였다.²⁴⁾ 또 인근 읍의 호응도 불확실하였다.²⁵⁾

그러나 전봉준의 격문이 날아간 열흘 뒤인 2월 말경부터 고부인근의 농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월 29일(양력 4월 4일)김제의 죽산으로부터 동쪽으로 40여리 떨어진 곳(금구 원평 일대)에 동학이 둔 집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다.²⁶⁾ 3월 11, 12일경 동학당 약 3천여명쯤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가는 것을 태인에서 볼 수 있었다.²⁷⁾

3월 16일에는 농민군이 무장 冬岫峙面 堂山에 집결하기 시작하였고, 3월 16일 부터 3월 18일까지는 사방에서 농민군 천여명이 몰려들어 영광, 법성 경계에 모였는데, 이들 가운데 수백명이 법성 진량면 황현리 대나무밭에서 죽창을 만들고 민가에서 총포 등을 마련해갔다.²⁸⁾ 전봉준의 격문은 2월 말부터 고부 인근 각 읍 농민들이 본격적인 항쟁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과 항쟁의 지도부가 무장에서 합세함으로써 본격적인 농민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3. 제1차봉기

1) 1차봉기의 구상과 반봉건 농민전쟁의 수행

앞서 보았듯이 고부민란은 그 형태에 있어 농민전쟁과 구별된다. 농민전쟁은 구체제를 타파하고 중앙 권력 집단을 구축하여 정권교체를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나 투쟁 대상도 과거의 일반 민란과는 질적 차별성을 갖는다. 농민군의 구성방식이나 투쟁의 대상이 군현단위의 국지성을 탈피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고부민란은 전쟁 지도부의 전쟁 구상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연결성을 갖는 것이었고, 실제 농민전쟁의 1차봉기는 군현단위의 농민항쟁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1차봉기의 기본 성격인 반봉건투쟁의 핵심 내용의 하나가 군현단위에서의 ‘폐정개혁’의 실현이었다. 농민전쟁은 기존 ‘민란’의 한계를 지양한 것인 동시에 그 발전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24) 장봉선, 「전봉준실기」

25) 2월 25일 순천, 2월 28일 영광, 3월 12일 금산에서 민란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전봉준의 격문에 따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아직까지 조직적 결합이 취약했고 인근 지도자들과의 합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하여 신임군수 박원명의 설득이 주효하여 3월 3일 경이면 그렇지 않아도 민란수준을 뛰어넘는 항쟁을 반대하던 ‘난민’들은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전봉준은 부하 50여명 만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가 무장의 순화증에게로 갔다. 김방선, 『입하유고』

2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38쪽

2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43쪽. 여기서는 “대장으로 추대된 자는 전명술이라 하며 연령은 40세가량으로서 복장은 보통이었다”고 하여 전봉준부대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시천교역사』(『동학사상자료집』 3, 614쪽)에는 3월 17일 순화증이 수천의 농민군을 이끌고 태인, 부안 등지를 순회한 것으로 나와 있다.

28) 『수록』 3-6쪽

대개 기존의 군현단위의 항쟁은 고립적으로 전개되어 반봉건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왔다. 농민전쟁의 지도부는 바로 이점에 주목했다. 군현단위의 산발적인 항쟁을 묶어낼 조직으로서 동학조직을 주목했고 각 읍에서 동원한 농민군의 물리력을 이용해 봉건모순을 해결하고자했던 것이다. 농민전쟁의 승패 여부는 군현단위의 지지기반 확보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고, 따라서 전쟁의 지도부는 농민들의 현실적 요구인 군현단위의 문제해결로부터 동력 확보를 시도하였다. 실제 전봉준은 각 고을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전 도의 공통의 과제와 각 군현의 과제를 제시하고 고부봉기를 주도하며 각 고을에 동참을 호소하였고,²⁹⁾ 전라 1도가 봉기하면 8도가 다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³⁰⁾

이렇게 본다면 농민전쟁은 전봉준이 고부민란을 이끌면서 1894년 2월20일경 각 읍에 격문을 띄우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¹⁾ 정부에서도 전라감사의 보고를 토대로 이것을 ‘東徒’의 ‘鄒所’에서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통문을 발한 괴수를 체포하여 효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전라감사 김문현은 금산군수 민영숙의 보고에 즉해서 금산에서는 ‘東都所’의 통문에 따라 모인 천명에 가까운 숫자의 무리들이 읍의 폐단을 교구할 것을 요구하여 군수가 처리한 까닭에 그 처리문건(十條成冊)을 의정부로 올렸다. 그것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의정부는 ‘동도소’가 나서서 통문을 발하고 인심을 선동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며 읍의 폐단을 고치자는 뜻만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³²⁾

전봉준이 고부에서 격문을 띄운지 10여일이 지나면서부터 전단이 마련되고,³³⁾ 3월 중순에는 1차봉기의 진원지 무장으로 농민군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장 冬齋峙面 堂山에는 농민군이 3월 16일경 부터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100여명이었던 것이 16일부터 18일 사이 주야로 사방에서 모여들

29) 주 18) 참조

30) <전봉준공초(재초문목)> 『동학란기록』 하, 532쪽 「문 : 그렇다면 전라1도의 탐학한 관리를 제거하고자 기포했는가, 아니면 8도의 모든 관리를 제거하고자 했는가?」 답 : 전라1도의 탐학한 관리를 제거하고 아울러 내직에 있으면서 관작을 팔아먹는 권신을 몰아내고자 한 것이니, 8도가 자연히 일체가 되는 것이다.」

31)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만 본다면 1차봉기의 신호가 되었던 무장창의문은 각 읍의 봉기를 촉구하거나 동학조직의 동원을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읍의 조직적 동원을 촉구한 문서로서는 전봉준이 고부에서 띄운 2월20일자 격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장에 집결하는 모습을 황현이 우연 10여읍이 일시에 일어났다고 한 것, 감사 김문현이 2월22일 5진영과 금구 정읍 부안 김제 담양 무장 태인 흥덕 등 11읍에 관문을 내려 각각 병사를 동원하여 신변을 보호할 것을 지시한 것, 무엇보다도 위 격문의 구조가 무장포고문은 물론 그 이후 1차봉기의 각종 통문(격문)의 기본구조로 되고 있는 점 등이 그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위 격문에는 전체 전쟁의 구상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각 읍의 봉기만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쟁구상은 별도로 준비되고 실제 조직적 동원을 위한 노력이 별개로 시도되고 있었던 점은 더 천착을 요한다.

32) 『고종실록』 고종31년3월 23일. 3월23일의 의정부 논의에서 드러난 전라감사의 보고와 금산군수의 보고 가운데 보이는 ‘東都所發通’ 문제를 무장의 남접도소가 발한 3월20일자 무장포고문과 연결시켜 파악하는 견해가 있지만, 위 통문은 2월20일자 전봉준의 통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듯 싶다. 감사 김문현이 금산군수 민영숙의 보고를 토대로 장계를 올린 것을 의정부에서 받아 검토한 것이 3월23일인데, 김문현이 3월22일 도착한 무장현감의 보고 및 23,24,25일의 각군 보고를 토대로 장계를 올린 것이 3월27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록』 <갑오3월27일계초> 시간상의 낙차가 의문시되고, 무엇보다도 무장포고문은 각 읍의 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이 아니라 창의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동도소’는 무장에 설치되었던 남접도소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산군의 봉기가 동도소의 발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인데, 그렇다면 각 읍의 봉기(기포)를 요구하는 격문을 띄운 고부에 도소가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게 된다.

33) 주26) 및 27) 참조

어 천여명으로 불었고 그 수는 더해갔다. 일단 준비를 끝낸 농민군은 3월21일 짐을 꾸려 다음날 출진의 준비를 갖췄다. 무장포고문³⁴⁾이 떨어졌다. 이들은 ‘輔國安民’으로 死生の 맹서를 삼아 의로운 깃발을 들었다. 1차봉기의 막이 올랐다.

3월22일 3,000여명의 농민군은 무장에서 출진하여 고창을 거쳐 흥덕에서 하루 자고, 23일 부안 줄포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어두운 저녁 고부를 친다. 이날 줄포의 射亭에 도착하여 쉴 때에 이들의 머리 위로는 仁義禮智信, 혹은 順天 光州라고 쓴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주력군의 각 부대가 전라 각 읍에서 올라온 농민군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그런데 여기에는 전라도 농민군만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충청도의 동학도(농민군)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 이들 동향에 관한 일본인의 첩보 가운데는 충청도내 동학도가 전라도로 간다는 말이 있으며 제보자 자신 동학도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전라도로 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는 기록³⁶⁾ 등도 주목된다. 여기에서 4월4일 고산현 읍성 문기등에 붙었던 방문의 내용을 보자. 내용은 장차 3,000병을 이끌고 4월5일 고산현을 지날터이니 매명당 쥘신 1씩과 돈 1량씩을 준비하여 ‘天命’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었다. 방문의 끝에는 ‘東徒大將 徐(不填名著名)’라 적혀 있었다.³⁷⁾ 꽤서 끝에 서명한 ‘徐’ 또는 서장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방문의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시기 활동하고 있던 충청도 옥천의 동학도와 전라도 진산의 동학도 등 금구 원평 북쪽으로부터 이동하고 있던 세력을 고려할 때,³⁸⁾ 매천 황현이 지적한 바와 같이 1차봉기가 徐包(기포 : 서장옥 휘하의 동학군)의 일련의 기포계획(전쟁구상) 하에서 추진되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³⁹⁾

즉, 1차봉기에는 단지 무장기포에 참여한 전봉준 중심의 3,000여 농민군만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호서의 동학조직도 연계된 연합군이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이 서장옥의 제자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장옥의 활동 중단사태가 이들의 전쟁기획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게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⁴⁰⁾ 서포의 기포계획은 호남 농민군지도부에 의해 일정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호남의 주력군이 무장에서 출발하여 당일 3월22일 고창을 지날때 농민군을 맞았던 고창현감이 그날

34) 『수록』 1쪽, <茂長縣贖上 東學人布告文>

35) 부안현 줄포에는 고부의 세곡을 보관하는 海倉이 있었다. 22일 아침 줄포에서의 점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파견된 10여명은 머리에 황건을 두르고 있었고, 이들은 부안의 이서들에게 식사 3,500상을 주문하였다. 당시 농민군의 구성에 대해 전봉준은 ‘첩주들은 모두 동학이지만 나머지는 충의지사이다’라고 하였다. 고부 등 4개읍의 보고를 토대로 감사는 각지에서 물러든 이들을 모두 동도(初無平民 俱是東徒)라고 보고하였다(『수록』).

처음 무장에 모인 농민군이 어느 읍에서 동원되었는가 하는 점은 분명치 않다. 황현이 『오하기문』에서 ‘右沿十餘邑’이 일시에 일어났다고 하였고, 2월22일 감사 김문현이 5개 진영과 금구 정읍 부안 김제 담양 무장 태인 흥덕 등 11읍에 관문을 내려 각각 자체적으로 병사를 동원하여 신변을 보호할 것(各調兵候用)을 지시한 것을 2월20일 경의 전봉준 통문이 감영에 감지된 결과라고 본다면 전라 전도에서 모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지역도 기포가 가능했던 지역으로 한정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36)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42쪽

37) 『수록』

38) 『수록』 <영가> 4월3일자

39) 4월12일자 초토사 홍계훈이 올린 <동도죄인봉초성책>에 私通을 가지고 충청도로 향하다가 전주에서 붙잡힌 김영배, 금산으로 가다가 잡힌 김용하 등의 명단이 있는 것도 무장 기포군과 충청도 및 금산 이북지역의 연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0) 조경달, <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서병학 서인주를 중심으로> 『역사연구』2 참조

로 감영으로 달려가서 감사의 면전에 상황을 보고하는 가운데, “그들의 말에 ‘구폐교정절목이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곧 해산하였는데 반대로 붙잡아들이려 하는 것은 무슨 연유때문인가. 장차 전주로 가서 이 이유를 감사와 안핵사한테 따질 것이다 운운’ 하였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주목된다. 3월25일자 금구현 보고에서도 농민군이 ‘장차 전주로 갈것이다’라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서포 휘하의 농민군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고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봉준군이 중심이 되어 기포하고 무장에서 진용을 갖추는 한편, 전라도 북쪽 지역과 충청도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의 농민군과의 연합으로 처음 계획하였던 바,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권력의 교체를 꾀하려 한 것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3월23일 고부를 치고 24일 무장을 강화하여 3월25일 백산에서 진용을 재편, 기본 틀을 갖춘 주력군은 湖南倡義大將所 이름으로 격문을 띄우고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東徒大將의 깃발 아래 그들이 추구한 목표는 輔國安民⁴¹⁾ 이었고, 그 실현 방법으로 ‘안으로 탐착한 관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⁴²⁾ 구체적으로는 중앙의 집권세력의 교체를 꾀한 것이었는 바,⁴³⁾ 반봉건전쟁의 수행을 선언한 것이었다. 곧 이어 농민군은 태인으로 나아가 금구 원평을 거쳐 전주로 향할 계획으로 진군을 시작하였다. 무장에서 출발할 때 3,000여명이었던 농민군이 금구로 나갈때는 6-7,000으로 불었다.

3월25일 그날로 선봉대를 원평에 보내고 본대는 3월26일 태인으로 나아가 농민군의 전력을 보강, 30일 태인 관아를 점령하여 무장을 강화한 뒤 4월1일 금구 원평으로 향하여 원평에서 진을 치고 정세를 파악하여 1대를 부안(하동면)에서 활동하고 있던 부대에 보내 후방강화를 꾀하고 부안공형에게 전령을 내려 그 지원을 지시하였다. 4월2일 감영의 군사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일대를 원평에 잔류시키고 4월3일 태인과 부안으로 나뉘어 회군한다. 4월4일 주력부대는 부안 상소산에 진을 치는데, 여기서 법성진의 이항에게 통문을 내렸다. 다음날 주력부대는 부안의 주산인 성황산으로 진을 옮기는데, 이곳으로 남쪽 정읍에서 수백 명이 추가로 합세하였다.

감영군은 4월3일 전주의 용머리고개에서부터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각 읍에서 징발한 포군, 부상 행상으로 구성된 군대와 도한, 유상, 지장으로 구성된 별초군 수초군 산초군이 불었다.⁴³⁾ 관군은 4월4일 원평에 잔류하던 농민군 113명을 포로로 잡고 고부 부안줄포로 향하려 하였다. 4월5일까지 관군이 고부에 속속 도착, 일부는 부안으로 향하였다. 이같은 관군의 항방을 파악하고 이들이 고부민을 도륙한다는 소식을 들은 농민군은 4월6일 고부 도교산에 집결, 황토현에 진을 친다. 4월7일 새벽까지 지속된 첫번째 전투에서 농민군 승리. 농민군은 군산포로부터 임피를 거쳐 4월7일 전주에 도착한 초토사 홍계훈의 경병(800) 동향을 주시. 남하를 결정한다.

농민군은 도착하는 읍마다 무혈입성하여 무장을 강화하고 폐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무장, 영광을 거치면

41) 오지영, 『동학사』 112쪽, 호남창의대장소 在白山 <격문>

42) 『대한계년사』 상, 74쪽 <농민군4대명의>「一.不殺人 不殺物 一.忠孝雙全 濟世安民 一.逐滅倭夷 澄清聖道 一.驅兵入京 盡滅權貴」

43) 『오하기문』 1필, 4월3일조

서 그 수는 더욱 불었고, 영광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경군을 유인하였다. 초토사의 군대가 영광을 향해 출발하자 함평으로 옮겨 진용을 정비하고 장성으로 향한다. 장성황룡촌에서 경군의 일대를 격파하고 곧 정읍을 거쳐 전주를 향해 북상, 드디어 4월27일 전주성에 입성하게 된다.

그런데 초기단계에서 전주로 직향하다가 감영군의 도래소식을 듣고 부안과 태인으로 일단 회군하였다가 고부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치고난 뒤 각 군현을 순력한 것은 단순히 관군의 동향을 살피고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농민군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배경으로 하여 각 군현에서 폐정개혁을 시행하는 등 반봉건전쟁을 수행하였다.⁴⁴⁾

1차봉기의 전개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2월20일자 격문에 나타난 반봉건 체제변혁 구상의 틀(보국안민)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⁴⁵⁾ 둘째, 4월16일자 영광에서 초토사에 보낸 통문에서부터 표명된 '호남공감국'의 중앙정권 구상이 일관되게 지속된 점, 셋째, 반봉건 과제의 수행은 과거 농민항쟁의 경험 위에서 축적된 방법이 활용되고 있었고,⁴⁶⁾ 여기에 각 읍의 吏民은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사민까지 여기에 호응하고 있었던 점, 넷째, 각 읍을 순력하면서 농민군의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 다섯째, 관군이 숫적 열세 속에 계속 농민군의 뒤만 쫓아다니는 결과가 되었던 것은 농민군이 경군과 접전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때문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봉기는 각 군현의 농민군들로 구성된 연합부대에 의해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충청 등지의 농민군 참여도 있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호남의 농민이 주축이었다. 백산의 도소가 '호남창의대장소'라 명명하였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⁴⁷⁾ 농민군 최고 지도부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이었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농민군들은 각 접주들에 의해 통솔되고 있었다. 이들의 전력은 관군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었고, 기율도 상당하여 일반 농민들로부터도 환영받고 있었고,⁴⁸⁾ 각 군현에서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성을 비울 정도였다.

44) 1894년 4월16일 함평현을 치고 동헌에 모였던 士民에게 한 포고 「우리는 탐관오리를 징창하고 읍폐민막을 교정하여 보국안민하기 위해 각 읍을 두루 다니는 길에 이 읍에 들렀다. 지금 사민가운데 동헌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과연 본읍 수령의 치적이 어떠한지 알만하다 운운(양호초토등록)

4월18일 나주공형에 보내는 통문 「우리의 급번 의거는 위로 국가를 보전하고 아래로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지나가는 열읍에서 탐관은 징벌하고 열리는 포상하며, 리폐와 민막을 교혁하고 전운영의 폐막을 영영 혁파하여 제거할 것이다...」(오하기문 1필 4월18일조)

45) 백산기포때의 구호 가운데 반봉건의 과제와 함께 반제의 과제(밖으로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친다)가 같이 제기되었으나, 1차봉기에서는 반봉건이 중심내용이 되고 있다.

46) 1894년 4월19일 농민군이 함평에 있으면서 초토사에게 보낸 정문에, “불쌍한 민생이 죽음을 면하려하나 할 수가 없어 서로 모여 몇몇이 본관에 호소하면 일러 亂類라 하고, 영문에 호소하면 지목하여 賊黨으로 몬다. 막중한 왕의 친군이 무난히 발포하고 열읍에서 병사를 모아 봉과 칼로 도륙하고 살륙을 감행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 선화하고 양민해야 할 사람이 이와 같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 하고 있는 것(<호남유생동 상서> 오하기문 1필, 4월19일조)은 농민군의 거사가 과거 일반적인 농민항쟁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47) 2차봉기시 삼례에 모여 전주로 들어갈 때 전라도 농민군보다 각도의 농민군이 더 많았고, 논산에 들어갈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전봉준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1차봉기는 2차봉기의 조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48) 『오하기문』 1필, 4월7일조. 관군이냐 농민군 모두 군량의 해결을 민간에 의뢰하고 있었는데, 농민군진영에는 팽주리가 줄을 이었지만 관군은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였다.

농민군의 구성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였을 뿐 아니라 신분계층의 면에서도 다양하였고, 천민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도 운영하였다고 한다. 농민군들은 서로를 존중하여 호칭에 상하의 구별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군기가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충고가 나올 정도였다.

위와 같은 농민군의 구성과 전력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반봉건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고, 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이서층은 물론 부호들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농민군은 과거 그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반봉건의 과제를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군현단위에서 봉건 권력을 무력화시키고⁴⁹⁾ 자신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무장력만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다. 읍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항들을 심분 활용하였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수령들조차 농민군과의 타협을 원하고 있었다.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민군은 각 관청을 부수고 무기를 수획하고, 호적대장 등 봉건모순의 주요 대상이 되는 문부들을 거두는가 하면 읍민의 원성을 사던 리교나 부민 토호들을 정치하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각 군현이 갖고 있는 모순이 동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농민군이 일어서면 전 군현이 호응하고, 전주성의 장악을 통해 중앙권력의 교체까지도 강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1차봉기군의 기본 지향은 언급한 바와 같이 농민군의 무장력을 바탕으로 하여 각 군현 및 도차원의 제반 봉건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 전략은 전주성을 함락시켜 이를 근거로 중앙권력의 교체를 통한 구 지배체제의 변경을 기도하는 것이다.⁵⁰⁾ 서울로 직향하여 직접 중앙권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구호는 ‘국태공감국’으로 드러났고, 이를 위해 각 읍에서 수행한 반봉건투쟁의 결과를 가지고 전주성에 입성한 것이다.

2) 정부의 대응과 ‘전주화약’

위와 같이 농민전쟁은 지금까지 민중이 제기해온 사회모순의 전반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중앙권력의 교체까지 전망하는 것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처음 중앙에서는 고부의 거사를 종전의 민란과 같은 차원의 것으로 파악, 조병갑 대신 용안현감 박명원을 고부군수로 전보 발령하고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사태를 파악, 읍의 폐단을 시정할 방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국왕도 각 군현에 율음을 내려 농민들의 요구를 무마하려 하였고, 감사와 안핵사에게 농민들을 효유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지방관의 교체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 감사 김문현은 자신의 천거에 의한 조병갑의 고부 재부임이 사태를 악화시키자 이곳에 온 관심을 집중시켰다.⁵¹⁾

49) “농민군은 처음 비록 각 읍의 수령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꼭 옥보이고 협박하여 죽이지만 않았다면 차이가 없었다. 또 성을 함락하고 창고와 병기를 약탈하니 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황현의 지적(『오하기문』1필, 4월18일조)은 봉건 권력의 무력화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50) 4월18일 나주공행에 보내는 통문 및 4월19일 함평에서 초도사에 보내는 정문에 보이는 대원군 웅립의 문제.

51) 전라감사 김문현이 2월22일 도내 5 진영과 금구 정읍 부안 김제 담양 무장 태인 흥덕 등 11읍에 관문을 발송하여 각각 병사를 징발하여 이용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오하기문』1필, 2월22일조) 이는 고부민란이 타지역과 연계될 것이라는 사실을 탐지한 것인지 의문이다. 2월20일경 전봉준이 각 읍에 격문을 띄워 호응할 것을 촉구한 사실과 관련해서 음미해볼 수 있다.

3월3일 신임군수 박원명의 효유에 의해 고부농민들은 일단 해산한 듯 하였으나, 이날 안핵사 이용태가 역졸 800을 대동하고 고부에 도착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구잡이로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 닥달하였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였다. 전쟁의 불길은 이미 잡을 수 없게 타올랐다. 그런데도 성이 함락되어 도망나온 지방관이나 안핵사조차도 전주에 모여 이번 사태는 민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⁵²⁾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4월2일 홍계훈을 양호 초토사로 파견하여 문제를 수습하고자 하였지만 정부 내에서 대경장을 요구하는 일부 인사의 요구는 묵살되는 형편이었다. 고부민란과 농민전쟁을 파악하는 데서 지배층 일반이나 정부 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가 탐관오리의 잘못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같은 판단은 전주성 점령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농민군이 고부 태인을 치고 금구로 나오자 감사 김문현은 4월3일까지의 태인과 부안의 보고를 토대로 병사파견을 결정했다. 당시 감사는 부안의 농민군에 대해 이들을 금산, 태인에서 일어난 부류들과 같은 것으로 파악(一而二)하고 ‘合成一團 分作三隊 相通聲氣’ 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각동의 민인과 포군을 동원하여 토벌할 것을 현감 이철화에게 지시한바 있는데, 감영병의 파견에 앞서 계속 관문을 내려 향병을 5-6,000명 징발하였으면서도 차질이 있을까 두려워 중앙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후 서울에서 내려온 초토사 홍계훈은 물론 각 읍의 이서나 장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겁을 집어먹고 위축되어 오가는 문서에 감히 ‘賊’이라고 배척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다만 ‘東徒 彼黨 闕徒 彼類’ 등이라고 칭할 뿐이었다.⁵³⁾ 이는 각 군현의 일반 민이 농민군에 보내주는 지지와 관군에 대한 적대감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1차봉기 기간 관민의 협력으로 농민군에 저항했던 유일한 읍은 나주 한 곳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감영군은 물론 경군조차 적극적으로 농민군과 대처하지 못하고, 다만 각 군현에 농민군의 동향을 살피고 그 진로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조심스레 전황을 정탐하는가 하면 간간히 관문을 띄워 귀화를 종용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초토의 임무를 띠고 내려온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 역시 숫적 열세와 사기의 저하로 쉽게 움직이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추가병력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⁵⁴⁾

농민군이 각 읍을 순력하는 가운데 그 수가 더욱 불어나 4월9일 무장을 칠때는 기록에 10,0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와같이 농민군의 숫자가 증대되어 나가자 중앙에서도 조속한 수습을 독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는 농절이어서 농사의 보호를 위해서뿐 아니라 지나는 곳의 농민들의 합세가 더욱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초토사가 농민군에 무뢰배들이 참여하여 수가 늘어나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자신의 고립된 적은 수의 군대로는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보고에 대해 민영준이 회신하는 전보에서 초토사가 전주에만 물러있는 것을 책하면서, “이같은 농절을 당하여 하루가 급한데 만일 하루가 늦어지면 (농민군에) 붙는 자들이 늦어진 만큼 늘어날 것이니 속히 토벌하여 제거하라”⁵⁵⁾고 지시한 것이 바로 그같은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52) 『오하기문』 1필, 3월20일조 「猶以爲民亂也 當自定」

53) 황현 『오하기문』 1필, 갑오 4월18일조

54) 『양호전기』 4월10일자

위와 같은 지시에 의해 홍계훈은 4월14일 정탐대 280명을 무장으로 파견하고, 본인은 4월15일 서울에서 추가병력 파견을 확인한 뒤 4월18일에야 비로소 전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당일로 금구에 도착, 19일 정읍, 20일 고창에 도착하였고 전주를 떠난지 4일만인 4월21일 영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이미 장성으로 떠난 상태였다. 이같이 초토사 홍계훈은 계속 농민군의 뒤를 쫓아다닌 결과가 되었고, 중앙군과의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영광까지 진출하였던 초토사 홍계훈군은 문수산의 벽으로 인해 고창을 거쳐 정읍 태인을 경과하여 4월28일 아침에야 완산에 진을 칠 수 있었다. 홍계훈은 전주성이 떨어진 데 대한 책임추궁을 걱정하였지만 전술적으로는 농민군이 한곳에 모임으로 해서 그들을 압박하여 타도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게다가 기호에서(심영병과 청주병사, 양호순병사 이원회군)의 원군과 전라 각지에서 새로 모집한 군사들이 도착함에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남산 건지산 기린봉 오목대 황학대를 잇는 긴 포위망을 구축하고 홍계훈은 날마다 각 진을 순시, 군사를 독려하고 화기 다루는 법을 훈련시키고 사다다리를 만들어 공격의 형세를 강화하였다.

정부 내에서는 이미 4월18일 김학진을 전라감사로 새로 임명하고, 4월27일 이원회를 양호순병사, 엄세영을 삼남엄찰사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전주성의 함락소식에 접하고는 외국 군대에게 농민군 진압을 의뢰하게 된다. 4월28일 민영준은 고종의 내락을 받아 원세개에게 차병안을 제의한 것이다.⁵⁶⁾

초토사 홍계훈은 전주성을 포위한 뒤로 계속 전보를 쳐 전투상황을 보고하여 자신이 독단한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때번 왕의 재가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관군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농민군의 철수 바로 전날까지 신임감사 김한진과 순병사 이원회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⁵⁷⁾ 실제로 전황은 관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같은 조건 하에서 '전주화약'이 이루어졌다. 초토사 홍계훈은 5월4일부터 제시된 농민군의 제의를 공식적으로는 부정하면서 5월7일 복문을 농민군에 양보하였다. 농민군은 드디어 복문을 열고 군악에 맞추어 대오를 정돈하여 출발, 관군을 가로질러 서쪽을 향하였다.

55) 『양호전기』 4월12일자

56) 정식 외교문서로 원세개에게 차병요구서를 전달한 것은 4월29일이었는데, 이미 일본은 4월26일 출병을 결정하고 4월29일 혼성여단의 출병을 결정한 상태에서 주한 일본공사관에 농민군과 청군의 동태를 살필 것을 지시하고 있다.

57) 『양호전기』 4월7일자

58) 「경군이 뒤따라와 완산에 이르러 용두현에 진을 치고 성중을 향해 대포로 공격, 경기전을 훼손한 까닭에 이러한 연유를 경군에 알렸더니 경영에서 효유문을 작성하여 너희 소원에 따르겠다고 한 까닭에 감격하여 해산하였다.(전봉준 공초)

「윤음을 가지고 선유하러 간 사신을 죽인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괴수 전봉준이 죽었다면 나머지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열읍의 폐막 가운데 가히 혁파할 것은 혁파하겠거늘 지금 적어보낸(27개조) 제소항은 잡스러운 것이 아님이 없고 모두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고 화를 조장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들이니 개과천선의 뜻이 있다고 볼수 없다. 군기를 반납하고 문을 열고 항복하라. 살고싶으면 속히 성문을 열고 흩어져라. 쫓아가서 잡는 일은 없을 것이고 각 읍에 신칙하여 못살게 굴지 않도록 하겠다.. 이려고도 말을 안들으면 나오든 대로 다 죽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을 부수고 곧바로 들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농민군의 소지에 대한 제사)

「어제 너희들이 고한 것은 거짓이 아님이 없다. 이려고 저려고 할 필요 없다. 군물을 거두어 바치고 성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하면 방에서 이른 바와 같이 다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몇백명이라도 목숨의 위협이 없을 것이다. 모두 호서의 양민이 귀화한 것같이 귀화한다면 민국에 큰 다행이지만, 다시 더 날뛴다면 일내로 결전을 불사할 것이니 오래끌어 탈이 없도

전주화약을 이해함에 관군과 농민군측의 진술은 판이하다.⁵⁹⁾ 농민군은 '초토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서 성을 철수하였던 것이고, 관군측은 요구조건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무기를 버리고 해산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농민군의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왕의 유민이다. 국태공을 받들어 감국을 의뢰하는 것은 그 사리가 마땅하거늘 어찌 모반을 꾀하고 살해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선유하는 윤음은 보지 못하고 토포와 모병을 알리는 글만 보았다. 완영에 방포한것을 죄로 모는데, 초토사가 방포 전각을 훼손한 것은 가한가. 탐관오리를 제거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될 것인가. 완산은 국가의 소중한 곳이니 여기에 방포하는 것은 죄가 된다. 오직 합하게서 선처하여 우리들의 처지를 왕께 아뢰주시길 바랄 뿐이다”(濟衆生等 義所).

위 5월4일자 <적당소지>는 관군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초토사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계속 전문을 띄워 사태수습의 방도를 하달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1차봉기가 '전주화약'으로 종결된 것은 수차의 전주성 공방전에서 열세에 물리고 농민기에 농민층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던 농민군 지도부의 입장과, 청병의 진주와 일군의 파병으로 서울이 위기를 맞고 있던 상황에서 조속히 초토군을 불러올려야 했던 정부측의 입장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농민군 지도부도 전주성에서 청일의 개입소식에 접하고 민족적 위기를 해소하고자 화약에 응했다고 하는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⁶⁰⁾도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전주화약'은 이와 같이 관군과 농민군과의 불완전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제 농민군은 그들 본래의 목적인 폐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전주성 철수는 그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4. 맺음말

이상 살핀 바와 같이 고부민란과 1차봉기는 기존의 민란의 한계를 뛰어 넘어 중앙권력의 교체까지 이루어 내고자 하는 체제변혁적 성격을 띠고 농민전쟁의 지도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다. 당시 지방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모든 구조적 비리가 권위로 표현되는 집권층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기인하고 있었던 만큼, 이의 교체 없이는 지방관의 탐학으로 나타나는 온갖 부세운영의 비리는 물론 토호의 발호 등 민중이 질곡으로 느끼는 체제모순을 해결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위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체제변혁운동이 가능했

특 할 것이다. (5월5일자 관군의 효유문)

5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89쪽, 12일에 받은 초토사의 전보(양6월15일):「그 적도들은 전주에서 도주한 후 통문을 띄우기를, “들은 소문에 의하면 청국군의 수는 다만 3천명 뿐인데 수만명이라고 와전되었고 또 각국의 군대가 도로에 계속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잠시동안 병력을 퇴진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일이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청국군이 물러간 뒤에 다시 의기를 들까 하니, 각군의 장졸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명령을 기다리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통문을 돌린 자를 잡아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들은 5,6백명씩 작대하여 각처의 심산유곡에 은신하고 있다고 하므로 장차 그들을 찾아내어 초멸할 것이다.」 『양호전기』에는 이날(음5월12일) ‘전로가 통하지 않아 전보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국과 일본의 개입명분을 속히 제거하고자 했던 정부측의 입장 문제)

던 것은 전라도 고부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농민전쟁 지도부와 난리를 바라던 농민들이 강고히 결합하고 주변 여건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농민전쟁의 지도부는 1890년대 초반 동학조직을 포착하여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노력이 보인 금구집회의 해산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별도의 반봉건 변혁운동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그때까지 제기된 척왜양의 구호로는 민중의 체제변혁을 요구하는 여망을 담아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다수의 농민 역시 과거와 같은 군현단위의 고립적인 항쟁만으로는 구조화되어 있던 체제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망하고 있었다. 고부민란은 그 단초였고 1894년 2월 20일 전봉준이 각 읍에 띄운 격문은 실질적인 농민전쟁의 선포를 알리는 포성이었다. 이 격문은 1890년대 초반의 농민층의 동향과 동학교단내의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교단조직이 갖고 있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지도부의 전쟁구상의 골격을 보여준 것이었다.

농민전쟁의 초기 전개과정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장기포까지의 준비단계, 백산출진까지의 정비단계 금구퇴각까지의 정세관망기, 황토현전투 이후 각읍을 순력하면서 세를 과시하고 장성전투를 거쳐 전주성에 입성하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동학의 각 접을 통해 동원된 농민군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기존의 민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지만 동시에 각 군현단위의 항쟁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의 농민항쟁의 한계를 지양하는 동시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력군은 무장기포에 참여한 전봉준 중심의 3,000여명과 고부 백산출진시 참여한 농민군 등 전라도 농민군이었지만, 동시에 호서와 금구 원평 이북지역의 농민군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은 徐包(起包)의 영향권에 있는 각지로부터 동원된 연합군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농민군에는 동학도 외에도 많은 일반 농민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같은 점은 각 군현을 순력하는 과정에서 더 두드러졌다.

농민군은 전쟁초기 관군의 동향과 관련하여 회군하고 황토현전투 이후에는 각 군현을 순력하는데, 이는 농민군이 전력상 취약하다는 전술적인 판단과 무장의 강화필요에서 취해진 조치만은 아니었다.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위해 전쟁에 참여한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내야할 필요와 후방지원 확보 및 연합군 형성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상으로 볼때 이미 무장에서부터 반봉건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이 일련의 전쟁과정에서 농민군은 자신들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반봉건개혁을 시도해 나갔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 위에서 중앙권력의 교체를 기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농민전쟁은 과거 농민항쟁의 한계를 지양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구체제가 갖고있던 모순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반봉건 농민항쟁의 총결산의 의미를 지니며, 중앙권력의 교체까지를 기도함으로써 구체제 붕괴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것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대외정세나 반봉건 변혁의 역량을 고려할때 농민군의 역량만으로 체제변혁을 이루어내기는 힘들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군의 중앙권력에 대한 구상이 관념적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었고, 이는 당시 한국사회가 갖고있던 시대적 한계이기도 하였다.

2.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2

- 집강소기부터 제2차 봉기까지 -

1. 집강소기 농민군의 활동

- 1) 전주성 퇴각과 소극적 청원기
- 2) 분풀이식 개혁과 집강소를 둘러싼 협상기
- 3) 官民相和의 폐정개혁과 2차봉기 준비기

2. 제2차 봉기의 성격과 지향

- 1) 재봉기의 원인과 배경
- 2) 2차봉기의 참여세력과 전투경과
- 3) 2차봉기의 역사적 지향

공동연구 고석규(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서영희(서울대 강사)

1. 집강소기 농민군의 활동

1894년 농민전쟁에는 두차례의 봉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운동의 단계적 상승을 상징하는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1차봉기와 2차봉기 그사이 기간을 흔히 집강소기라고 부른다.

주지하다시피 논자들에 따라서는 집강소의 설치시점, 설치의 계기로서 전주화약 과의 관련성 여부, 설치 지역, 기능 및 역할, 성격 등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그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관에 대립적, 배타적,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통 치기구냐, 아니면 관의 협조하에 운영되던 자치기구냐, 또 아니면 관에 종속된 하부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설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의가 분분하다는 것은 그만큼 집강소가 농민전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풀어야할 관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집강소에 대해서는 이처럼 현격한 견해차가 있으나, 어느 경우든 집강소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고 있으며, 또 기존에 있던 기구가 아니고 농민전쟁의 과정에서 새롭게 설치된 기구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말하면, 집강소는 비록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새롭게 창출한 기구라는 점이다. 1894년 농민전쟁기에서 집강소의 설치운영은 농민적 향권의 구체적 실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집강소 그 자체보다는 '집강소기 농민군 의 활동'을 살피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1,2차 봉기 사이의 상황을 시간의 연속성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집강소기' 동안의 전개과정은 어떠했으며 그런 전개과정에 집강소는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 나아가서 '집강소기'는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시기였는가를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집강소 이해를 위한 객관적 조건을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집강소 논의

에 또하나의 혼란스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1) 전주성 퇴각과 소극적 청원기 (5. 8. - 5. 19.)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폐정개혁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다. 전주성에서 퇴각하는 것은, 물론 전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계속되는 패배에서 드러나듯 무력의 열세도 무시할 수 없었다.

농민군은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국왕에게 上奏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군도 이를 승락하고 농민군에 대한 신분보장을 약속한다. 이에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물러나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관군이 전주성을 탈환한다.¹⁾ 다음날인 9일에 신임 전라감사 김학진이 전주에 입성하고 순변사 이원회도 전주에 도착한다. 전주성은 관군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고 그 파장은 호남일대에 미쳤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청군은 물론이고 일본군이 진주해 있던 상황에서 그들에게 철수를 요청할 명분을 만들어야 했던 정부의 입장에서 이른바 ‘난’이 평정되었음을 확인시켜야 했고, 그 구체적인 행동은 정부군의 철수로 나타내어야 했다. 정부는 농민군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침내 5월 18일 순변사 이원회가 서울로 돌아갔고, 19일에는 홍계훈도 군대를 거느리고 전주를 출발하여 공주로 향하였다.

한편, 전주성을 물러난 농민군은 어느 정도의 무장력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5월 12일경 농민군들은 서로 약속하기를 “아직은 각처의 민을 만한 곳에 몸을 숨기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또 정부군과 청국군이 와서 추격을 하더라도 절대 싸우지 말고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²⁾라고 하였다. 이처럼 농민군 지도부는 순변사 이원회가 이끄는 증원군이 전주에 도착하고 청국군이 조만간 전라도로 진군하려는 상황에서, 농민군을 적극 절제시키며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였다.³⁾

각지로 흩어진 농민군을 적극 자제시킨 농민군 지도부는 또 한편으로 전주화약에서 확인된 폐정개혁안의 관철과 농민군에 대한 신분보장을 꾀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 위해 이 시기에 전봉준은 수차례의 청원을 한다.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5월 4일경에는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낸다. 그리고 전주성을 물러난 뒤인 5월 11일경에는 순변사 이원회에게 14개조의 ‘全羅道儒生等原情’을 올리고, 이어서 17일경에는 24개조의 原情을 다시 제출하여 폐정개혁을 요청하였다.⁴⁾ 초토사 홍계훈에게도 농민군에 대한 신분보장을 요구한다. 18일에는 정읍에서 또다시 순변사 이원회에게 ‘東學會生等狀’을 제출하여, 폐정개혁안을 시행하도록 다시 촉구하는 동시에 소원대로 되지 않을 경우 뒷날 다시 봉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⁵⁾

1) 세부적인 전개일지는 「1894년 농민전쟁 일지」(송찬섭·김용민 정리, 1993 『역사연구』2)를 참고하였다.

2) 『駐韓日本公使館記錄』1책, 90쪽

3) 김양식, 1993 「1,2차 전주화약과 집강소 운영」 『역사연구』2, 123쪽

4) 「全羅道儒生等 原情于巡邊使李元會」 「又原情列錄追到者」 『續陰晴史』상, 322~326쪽. 「湖南儒生等上書」 『東匪討錄』(『한국학보』3, 263~264쪽)

5) 『東匪討錄』 「井邑持者便來」

이 시기 농민군의 목적하는 바는 공명하게 지방정치를 개혁해서 무고한 백성을 비참한 재난에서 구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농민군이 정세를 관망하면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原情을 올리는 식의 청원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원대로 되지 않을 경우 뒷날 다시 봉기할 것을 천명하였다고는 하나, 정부군의 주력이 호남일대에 남아 있는 동안은 전술적인 이유로 농민군의 적극적인 활동은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의미에서 집강소의 설치와 같은 농민권력의 행사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다.

2) 분풀이식 개혁과 집강소를 둘러싼 협상기 (5. 20. - 7. 5.)

김학진만 외롭게 남게 되는 5월 20일 이후부터 국면은 새롭게 전환한다. 무력을 지니지 못한 김학진은 그런 속에서나마 행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농민 군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5월 20일경 전봉준은 장성으로 가서 김학진에게 13개조의 폐정개혁조항을 요구 하였다.⁶⁾ 이때를 전후해서 김학진도 6개항의 수습방안을 제시하였다.⁷⁾ 그 중 제2항에 “그대들이 거주하고 있는 각 面里마다 집강을 두었으니 만일 그대들 중에 무슨 원통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집강이 사유를 적어 箭門으로 訴를 올려 公決을 기다릴 것.”이라고 하여 면리단위의 집강을 통한 폐정개혁의 시정이란 방안을 제안 하였다. 농민들의 권력기구로서 집강소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의 관변측 질서를 통해 사태를 수습해 보려는 소극적인 제안이었다. 따라서 “적들은 모두 그것을 비웃었다.”⁸⁾고 하듯이 농민군측이 이런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통상 ‘집강소 설치’라 함은 주로 농민군 집강소가 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을 때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군이 어떤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했을 경우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차비를 갖추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갖추어진 체제 자체는 정부의 공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농민군은 1차 봉기 당시에도 각 마을의 동장이나 집강을 동원해서 공동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강한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⁹⁾ 일반적인 농민권력기구로서의 집강소와 관에 의해 인정되는 집강소는 그 실 내용은 같으나 다만 공식적인 위상이 달랐을 뿐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관에 의해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의 집강소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이를 인정치 않고 오히려 관변측의 집강을 통해 이를 희석 시키려는 김학진의 수습방안은 타협의 여지를 가질 수 없었다.

결국 5월말경의 사정은 기왕의 관변측 논리가 적용되는 면리단위의 집강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김학진의 어정쩡한 제안과 합법성이 결여된 농민군의 불완전한 지배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김학진의 입장에서든 관주도의 행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었고, 또한 동시에 전봉준의 농민군측에

6) 『大韓季年史』 권2, 74쪽

7) 『隨錄』의 효유문 참조 『草亭集』 권7, 公文 「再論道內亂民文」 甲午五月. 『梧下記聞』 2필, 39쪽에는 6개조항 중 兵器還納의 일에 대한 조항이 없다.

8) 『梧下記聞』 2필, 39쪽

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책, 55쪽.

서도 확고하고 광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때 호남 일대 향촌사회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경병의 철수 분위기 속에서 농민군의 적극적인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東徒는 초토사가 회군하고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 무기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보고는 더욱 더 폭위를 떨쳐 곳곳에서 개미떼같이 둔취하였다.”라고 하여 5월 19일의 초토사 회군을 경계로 한 농민 군 통태의 현격한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¹⁰⁾

이처럼 전주성에서 물러나 관망하고 있던 농민들은 정부군의 철수로 무력적인 위압이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거칠 것 없이 풀기 시작했다. 이른바 분풀이식 행동이었다. 이 시기의 폐정개혁은 “목고쌍인 원통하고 분한 기운을 다푸는”¹¹⁾ 그런 식의 개혁이었다. 분풀이는 한편으로는 억눌린 농민들에게는 시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일시적인 시혜는 분풀이식 개혁의 부산물일뿐 항구적으로 농민적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시적인 시혜가 수반하는 농민군의 이런 분풀이식 행동은 호남 일대의 곳곳에서 일어났고 각지에서 열렬히 호응하여 물밀듯이 퍼져 나갔고, 수령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¹²⁾

그러나 이런 분풀이식 행동에는 당연히 무질서, 무절제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무절제한 분풀이식 행동을 당시 농민군 지도부는 능률적으로 제어하지 못 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농민군 자체의 실정 때문이었다.

5월 이후 전봉준은 폐정개혁의 실행을 위해 여러 고을을 순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정을 『梧下記聞』에서는 “(全)璿準이 여러 읍을 순행하면서 절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명령은 오히려 행해지지 않았고, 각자 접을 지어 오직 强盛한 자들만이 서로 우두머리임을 다투었다.”(1필, 104쪽)라 하였다.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이란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 거칠 것 없이 행동하던 접주들의 무질서한 행동을 확고한 견 제장치를 갖고 있지 못했던 전봉준이 절제시키기는 매우 어려웠다. 분풀이식 개혁의 무질서함으로부터 최소한의 행정질서의 회복을 바랐던 김학진은 집강소를 통한 농민군의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봉준의 입장에서도 김학진과의 협의를 통해 관의 이름으로 공인된 권위를 보장받는 것은 농민군 내부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그리하여 전봉준과 김학진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고, 김학진은 6월 7일 농민군측에 의해 선출되는 집강소를 인정하는 새로운 수습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농민군 스스로 집강을 뽑도록 하고 그 집강에게 행정력을 양도하는 것이었다.¹³⁾ 순수한 의미에서 농민집강소의 설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6월 7일의 효유문에도 불구하고 농민군 조직상의 질서는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혼돈상이 더해지고 있었다. 농민군은 각읍에 할거하고 있었다. “각 지방에는 각각 거괴라고 하는 자가 있어

10) 정창렬, 1991 『甲午農民戰爭研究 - 全璿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 198쪽

11) 『梧下記聞』 1필, 104쪽. 「甲午略歷」, 『東學亂記錄』상, 65쪽

12) 『梅泉野錄』 권2, 154쪽

13) 『草亭集』 권7, 「四諭道內亂民文」 爾等各就其土 擇謹慎有義者 爲執綱 隨現隨捕 以交該邑勸處 如或執綱難擅 이거든 指名報官以爲設法捕捉이되”

서 配下를 통솔하지만, 거괴들을 통솔하는 대거괴는 없다.”¹⁴⁾라 하듯이 巨魁들간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 의거하여 우도를 號令하고, 김개남은 남원에 응거하여 좌도를 統轄 하였다. 그 나머지는 金德明, 孫和中, 崔景善 등이 각각 한 지방에 의거하고 있었다. 충청도의 서부와 호남에서 각 거괴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각 지방에서 기포하여 자기 의사를 결행하려고 한 것 같다. 소위 巨魁輩란 자들이 각자 대장이라고 일컬으면서 다만 誅求만을 일삼고 약속을 듣지 않았다. 따라서 전봉준도 어찌할 수 없었다. 집강소기 농민군 자체 통제가 대단히 어려웠다.

6월 15일 전봉준과 김개남 등 농민군의 주류층이 수만의 무리를 모아 연 남원대회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전봉준이 각 고을의 布에 劄을 내려 읍에 都所를 두고 그 親黨을 심어 집강으로 삼아 수령의 일을 행하게 했다는 『梧下記聞』의 기록은 집강소 체제를 통해 농민군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봉준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수만의 군중을 모아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집강소 체제의 공식성을 민주적인 형식을 밝히 확보하고자 했음을 뜻한다. 즉 농민군 입장에서의 공식화, 합법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채 효과를 보기도 전에 사태는 돌변하였다. 그것은 6월 21일에 일어난 경북궁 쿠데타 때문이었다. 새로운 단계의 집강소가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상황은 또다시 어렵게 반전하였다. 일본군의 왕궁점령이라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 김학진은 전봉준에게 협상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7월 6일 전주 회담이 열린다.

3) 官民相和의 폐정개혁과 제2차봉기 준비기 (7. 6. - 8. 25.)

(1) 官民相和의 폐정개혁

6월말경 관찰사 김학진은 전봉준 등을 감영으로 초치하였고, 이때 “觀察使相議 官民相和之策 許置執綱于各郡”¹⁵⁾이라 하여 다시 한 수준 높여 집강소를 인정하였다. 이 시기는 바로 이런 관민상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7월 6일의 전주회담 전에 전봉준은 東學生等の 이름으로 原情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농민군 자체 통제를 강화할 터이니 자신들을 匪徒로서 금압하지 말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학진은 53州에 내린 甘結에서 “今此革舊自新 可見天彝之良心 自此以後 俱是改過之平民 切勿以舊愆指目”이라 하여 전봉준의 뜻을 적극적으로 긍정함으로써 그의 입지를 강화해 준다. 그리고 나아가 “至於不恒之類 藉托起鬧者 亦當自其中 定執綱 隨現捉納於本邑矣”이라 하여 농민군 집강에 의한 자체 통제체제를 다시 한번 인정한다.¹⁶⁾ 김학진은 또 7월 8일에 道內에 甘結을 보낸다.¹⁷⁾ 여기서는 “至於定執綱 設其禁斷之舉 而爲守土者 反爲袖手 興言及此 寧不寒心”이라 하여 집강소의 질서유지활동을 수수방관하는 수령들에 대해 질타하기까지

1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책, 25쪽

15) 『甲午略歷』 『東學亂記錄』상, 65쪽

16) 『草亭集』 권7, 「甘結五十三州, 開國五百三年甲午七月

17) 『隨錄』 「茂朱甘結」 7월 8일자. 『梧下記聞』 2필, 64~65쪽

하여 관민상화의 질서가 확보,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전봉준과의 전주회담에 대해서는 ‘實心悉陳’ 했다고 해서 매우 만족해 하고 열읍의 집강에게 보낸 전봉준의 통문이 “言由實心 事皆停當 懇切周詳 靡不用極”이라 하여 극찬하고 있다. 김학진은 사실상 전봉준의 우위를 인정하는 선에서 관민상화의 명분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관에 민이 종속되는 형태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김학진의 위의 도내 감결에서 “若或有此輩之依前作擊者 雖眞東學 隨現發 不待關飭 自其洞中 并力捉納于官 不容一毫疎虞 以爲照律勸處 亦即通及於執綱所以爲齊心禁究”¹⁸⁾라 하여 洞中이라는 기왕의 행정체제에 의한 통제를 전제하면서도 집강소에게 알려 그 협조를 얻도록 할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집강소의 통치가 관에 예속된 것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호남이나 기타 지역에 모두 수준이 같은 집강소 통치를 할 수는 없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항시적인 조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농민군 활동의 주요 양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일정 기간 수령을 대신하여 읍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수령에게 폐정개혁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민폐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吏·鄉 등을懲致하고, 軍器나 公錢 등을 탈취한 뒤에 물러났던 것으로 보인다.¹⁹⁾ 개혁의 요구는 일회에 그치지 않았고 단순한 청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었다. 또한 비록 일시적이지만 이·향을 정치하는 등 읍정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종전의 항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보적 성과였다.

광범한 지역에서의 농민군 활동은 곧 집강소의 영향력 확대를 가능케한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집강소는 호남 일대의 광범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날마다 봉기하여 列邑을 遍行하며 軍庫를 파괴하여 병기를 모두 탈취하고, (중략) 전라도 50고을이 문득 邪匪의 소굴이 되었다.”²⁰⁾고 하는 것은 이 시기 집강소 행위의 일반적인 양상과 영향력의 정도를 요약해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집강소 활동의 일반적인 원칙, 즉 이른바 정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東學史』에 보이는 12개조의 폐정개혁안이었다. 전주성 점령 당시 올렸던 폐정개혁 27개조는 1차봉기의 총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동학사』의 12개조는 집강소기 일반의 개혁상황의 대강을 적은 것으로 본다.²¹⁾

관민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의 유지가 선행되어야 했고, 이는 농민군이나 김학진 양자 모두에게 필요하였다. 협의도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 이 시기의 집강 소체제는 농민군의 무절제한 투쟁을 제어하고 도내의 안정을 이끄는 데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 시기 농민군의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봉건적인 질서를 현저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봉건적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단계의 질서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이것이 농민들 개혁의 한계였다.

18) 『梧下記聞』 2필, 64쪽

19) 『邑報抄概冊』(奎古5125~86) 1894년

20) 『謙山遺稿』 권19, 「錦城正義錄」 甲編, 3쪽

21) 정창렬, 1992 「甲午農民戰爭의 全州和約과 執綱所에 대한 研究史的 檢討」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53쪽

(2) 제2차봉기로의 전환

집강소기는 휴전기였다. 그리고 휴전의 조건이 전주화약이었다. 전주화약은 농민군은 전주성의 철수를, 정부측에서는 농민군에 대한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안에 대한 上奏를 조건으로 맺은 타협이었다. 따라서 화약의 실현 여부는 종전이나, 재봉기나를 규정하는 관건이었다.

화약의 내용 중 신변보장의 조건은 어느 정도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폐정개혁 쪽인데, 6월 11일 교정청을 설치한 것은 그런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교정청의 개혁이 채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6월 21일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 쿠데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외적 조건이었다.

경복궁 점령 소식이 호남 일대에 전해지면서 일부 농민군 진영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움직임은 명백히 일본에 대한 반대였다. 따라서 이러한 반일운동은 무력을 동원한 전면적인 전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은 산발적이었을 뿐, 농민군 지도부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들은 아니었다. 특히 전봉준의 경우는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 까닭은 6월말경부터 시작되었던 이른바 갑오개혁 때문이었다. 갑오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농민군측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발을 일단 유보케 하였다. 갑오개혁에 대한 기대는 두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개혁의안의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아닌 대원군의 등장이었다.

먼저, 군국기무처는 처음에 농민군의 폐정개혁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改革議案을 채택함으로써 민심을 수습코자 하여 일련의 평등주의적인 사회제도개혁을 선언하였다.²²⁾ 그리고 농민군이 전주화약 전에 原情 형식으로 제시한 폐정개혁요구에 대응하는 경제적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민심을 무마하고 민요의 재발을 방지하려 했다. 또한 농민봉기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前宣惠廳堂上 閔泳駿 등 3인을 지목하여 국왕에게 엄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민심무마책들은 일단 경복궁 쿠데타에서 비롯된 위국국면을 넘기는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농민군의 입장에서 대원군이 국정에 간여할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²³⁾ 비록 일본측의 의도된 행위의 결과이겠지만, 경복궁 쿠데타를 계기로 대원군이 재등장하여 섭정의 위치에 나아가게 되었다. 대원군은 한 때 갑오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효유에 나서기도 하였다.²⁴⁾ 『日省錄』 8월 2일자 기록에 따르면, 김학진은 全州 士民이 聯狀으로 올린 여러 조의 폐정개혁안 중 國計에 관련된 7개조에 대한 중앙 정부의 처분을 바라는 狀啓를 올렸다.²⁵⁾ 감사가 나름대로 농민군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농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고무적인 일이었고, 따라서 굳이 재봉기를 해야 할 이유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8월 17일 평양전투에서 일본이 청군에 대해 대첩을 거두며 승리하자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이때

22) 『議定存案』(근. 17236) 6월 28일의 議案에 “劈破門閥班常等級 不拘貴賤 選人材事”, “公私奴婢之典 一切革罷 禁販買人口事” 등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혁명적 개혁안이 실려 있다.

23) 『大韓季年史』(상) 권2, 고종 31년 갑오 5월, 86쪽. 동학당이 장성에서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올린 13개조항의 폐정개혁안 중 13조에 “國太公(即大院君) 干預國政 則民心有庶幾之望事”라 하여 대원군의 국정참여를 청원하고 있다.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京第 109號 左水營으로 내습한 東學徒 격퇴의 件」 중 別紙 己號, 243~244쪽 참조

25) 『日省錄』 고종 31년 8월 2일, 263쪽

부터 일본은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의 도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제한적인 자주성을 유지하며 추진되던 갑오개혁도 개혁적 성격이 희석되고 변질된다.²⁶⁾ 그리고 井上馨은 대원군의 抗日陰謀를 빌미로 그의 하야를 촉구하였고 대원군은 마침내 10월 21일을 기하여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이어서 10월 24일의 御前會議에서 井上馨이 대원군에게 주어졌던 섭정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여 국왕의 용락을 받아냄으로써 대원군은 완전히 거세되었다.²⁷⁾ 이러한 변화는 대원군을 형식상의 정점으로 하여 추진되었던 갑오개혁에 대한 농민군의 기대를 결정적으로 무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개화파들도 프랑스혁명에서 농민대중의 봉기와 항쟁을 평등사상에 의해 발단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대혼란의 징조로 인식하여 크게 경계하고 있었다.²⁸⁾ 역시 농민군과는 상이한 현실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8월초에 이르러 삼남에서 반일 민중운동이 재연하자 이를 진압할 대책을 강구하게 되면서 8월 4일 '유민'(몹쓸 백성)에 대한 무력탄압까지도 불사한다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여 왕에게 건의하였다. 군국기무처 의원들이 농민군과 적대적인 긴장관계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9월 18일에 농민군을 진압하겠다고 한국정부에 통고하였고, 21일 개화파정권은 이를 수락하였다. 농민군 토벌을 위한 일본과 개화파정권의 결탁이 성립되었던 것이다.²⁹⁾

군국기무처의 개혁이 일부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것들이 있었고 또 겉으로 볼 때 정부의 정점에 대원군이 있었을 동안은 농민군도 우려 속에서나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본과 개화파 정권의 결탁은 이제 더이상의 기대를 가질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에 농민군도 8월말부터 2차봉기를 위해 재결집하기 시작하였다.

농민군은 자신들의 정세판단에 따라 갑오개혁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것이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더구나 대원군의 정치적 위상이 현저히 하락하여 자주성이 위협받게 되자 본격적인 재봉기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다.

이상 전주성에서 퇴각하는 5월 8일부터 재봉기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는 8월말까지의 시기를 '집강소기'라고 명명하여, 농민군을 대표하는 전봉준과 정부를 대표하는 김학진, 두 사람의 움직임 중심에서 세계의 소시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집강소기라하여 이 기간 내내 또는 이 기간 동안만 집강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강소의 설치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가 접하는 농민전쟁상의 위치는 집강소의 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집강소는 19세기 내내 농민군의 반봉건항쟁의 축적 속에서 이루어낸 뜻깊은 농민적 향권의 구현체였다. 그러나 역사상 맞은 한번의 기회를 통해 농민적 근대사회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승화시키기에는 내외의 여건들이 만만치 않았다.

우선 농민군 내부의 여러 집단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그로 인해 통제에 급급함으로써 농민적 개혁에 효

26) 정창렬, 1991 앞 책, 249쪽

27) 柳永益, 1990 『甲午更張研究』 중 제2장 「淸日戰爭中 日本의 朝鮮保護國化企圖와 甲午·乙未更張」, 45쪽, 일조각.

28) 金容燮, 1975 『韓國近代農業史研究』, 일조각, 321쪽

29) 정창렬, 1991 「동학농민전쟁과 프랑스 혁명의 한 비교」 『프랑스혁명과 한국』, 일월서각, 250쪽

을적으로 힘을 집약시키지 못했다. 근대사회의 건설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집단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사회의 구현이란 우연이나, 의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 또 그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더욱 어렵게 한 외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집강소는 역사상 최초로 농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를 향촌사회에 실현하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한 상징적 산물이었음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제2차 봉기의 성격과 지향

1) 재봉기의 원인과 배경

전봉준과 농민군은 9월 18일경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10월 중순경 복상을 시작함으로써 재봉기하였다. 5월 8일 전주성을 철수한 후 약 4개월간 전라도 일대 각 군현에서 집강소 체제를 유지하던 농민군이 다시 전쟁을 시작한 배경은 여러가지로 짚을 수가 있다.

전봉준 자신은 「공초」에서 재기포의 이유를 묻는 물음에 “귀국(일본)이 개화를 한답시고 민간에게 일언반구 알림도 없이 率兵하고 都城에 들어와 야반에 왕궁을 격파하고 主上을 경동케하였다는 말을 듣고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분개를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했다”³⁰⁾라고 하여 2차봉기의 목표가 일본세력 구축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농민군 2차봉기의 성격은 일단 항일전의 성격을 띠고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 이후 전국적으로 항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곳곳에서 항일의병을 표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청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서울-부산간 전선을 가설하면서 강제로 조선인 역부를 동원한데 대한 각지 인민의 반발도 그 한 흐름이었다.³¹⁾

그런데 농민군의 재무장은 9월에 들어서 최초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1차봉기 농민군은 전주성을 나온 후 곧 바로 해산하지 않고 여전히 화약과 무기를 가지고 곳곳에 둔踞해 있었다³²⁾. 전주성을 떠나면서 그들이 요구한 폐정개혁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그들은 무장을 해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봉준은 순변사 이원희, 초토사 홍계훈 등에게 수차례 폐정개혁안을 제시하였고 5월 18일 순변사 이원희에게 낸 ‘東學學生等狀’에서는 폐정개혁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뒷날 다시 봉기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하였다.³³⁾ 이에 전라감사 김학진은 농민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전봉준과 타협을 시도하고 결국 집강소를 통한 관민상화 체제를 도출해 낸 것이었다.

그러나 집강소의 관민상화 체제하에서 오히려 농민군과 반농민군 간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었다. 전봉준 등 지도부가 갑오개혁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동안에도 하층 빈농, 해방된 노

30) 「전봉준공초」 初招問目

31)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박영재 역), 1989 199~ 212쪽 참조.

32) 『梧下記聞』 제2필, 39쪽 김학진의 효유문

33) 『隨錄』 5월 18일

비, 流民 등 천민들이 주력을 이룬 각지의 농민군들은 자체적으로 반봉건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전봉준은 김학진측과의 합의를 중요시하여 이를 제재하려 하였으나 그의 수는 잘 서지 않았고 일단 가동된 반봉건 투쟁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었다. 김학진과의 전주회담에 불참한 김개남도 ‘관민상화’에 불만이었고 여타 일반적 농민군의 정서도 집강소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각지의 농민군 무장대는 지도부의 노선과 상관없이 富民 양반을 討索하거나 官屬 징치 행위를 계속하였다.³⁴⁾

그리고 6월말 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장차 왜병이 쳐들어 올것이다’ 라고 하며 장성, 무장, 금구, 김제, 옥구, 함열, 능주 등의 농민군이 관아의 무기고를 탈취하였고 7, 8월간에는 전라도 일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지에서 무장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들의 재무장은 사실 항일거병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애초에 자신들의 반봉건투쟁을 보위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반드시 관군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진압하러 올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러한 사태를 맞을 준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전라좌도를 호령하고 있던 김개남은 8월 25일 경 남원에 둔취하여 드디어 재봉기를 요구하였다. 전봉준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반대하고 손화중도 “士族, 富民, 能文之士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접장들은 愚賤해서 禍를 즐기고 黥竊을 기뻐하는 무리들일 뿐이다”³⁵⁾라고 하며 만류하였으나 김개남과 그 휘하의 농민군은 독자적 행동을 고집하였다. 이들은 보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혁명적 요구를 실천할 방법으로 재봉기를 택한 것이었다.

이에 전봉준도 더 이상 이러한 농민층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재봉기를 결심하게 되었다. 9월 10일 금구 원평에서 각지에 통문을 보내 군수곡과 군수전을 모으기 시작하고 9월 14일 전주성 내로 들어가 무기를 탈취함으로써 무장을 시작, 추수가 끝나 新穀이 나올 때를 기다려 10월에 본격적으로北上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봉준의 재봉기 결심의 원인을 대원군과의 밀약에서 찾는 설도 있다.³⁶⁾ 대원군이 밀사를 보내 전봉준의 재기를 촉구했으므로 전봉준이 비로소 재봉기를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은 「공초」에서 완강히 대원군과의 관련을 부정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정치를 그르친 것은 대원군이므로 인민들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원군은 또한 有勢한 자라. 유세한 자 어찌 遐鄉 백성을 위하여 동정이 있으리오”³⁷⁾라고 하여 대원군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9월초 대원군이 김개남에게 보낸 金泰貞, 鄭頤謨 등의 밀사를 제거해 버리라고 명하면서 “우리들의 거사는 나아감만 있고 물러남은 없다. 만약 國太公의 命을 따른다면 萬事가 틀어진다. 鄭 아무개 일행을 죽여서 國太公의 바램을 꺾는 것이 좋다”³⁸⁾라고 하기도 하였다.

34) 「東擾日記」에 나타난 경상도 성주지역의 상황을 보면 8-9월까지도 항일전을 준비한다기 보다는 교란 지도부 혹은 농민군 주력부대와 별 상관없이 자생적 농민군의 반봉건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필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동학군의 명칭을 한 화적떼로서 굶주린 窮民, 건달 무리들이 有産者, 판료 토색을 일삼았다 한다.

35) 「오하기문」 제2필 8월조

36) 李相伯, 「東學黨과 大院君」 역사학보 17, 18에서 제기된 이래로 최근의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3 『역사비평』 1990 여름호에서도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37) 오지영, 「동학사」 '동학도 대장 전봉준등이 경성에 입승' 편에서

그러면 전봉준의 재봉기에 대원군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대원군 밀사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 지수하여 그 내막을 폭로한 李秉輝의 진술에 따르면 대원군측에서는 수차례의 밀사를 보내 남쪽 동학당의 봉기를 촉구했다는 근거가 있다.³⁹⁾ 그러나 이는 권력에서 제거될 궁지에 몰린 대원군측이 농민군 세력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아보려고 한 행위일뿐 대원군의 밀지를 받고 전봉준이 재봉기를 결심했다는 근거는 결정적 없다고 생각한다.

이병휘가 편지 연락을 한 것은 8월간의 일이고 그는 이미 9월초에 지수하여 대원군의 음모를 폭로하였다. 전봉준은 召募使 李建永을 삼례역에서 만났으나 假稱 소모사라고 판단, 체포하라 명했다 하며 9월초에 宋喜玉을 통한 대원군측의 연락도 전적으로 확신하지 않았다. 그는 「공초」에서 송희옥이 가져온 대원군의 밀지는 믿을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원군이 개화파의 압력을 받아 내려보낸 효유문 또한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조정의 효유문은 한 두번이 아니나 끝내 실시한 것이 없으므로 서울에 이르러 민의를 상진하려고 재기포하였다. 대원군의 효유문이 개화파로부터 압박이 됐든 안됐든 상관없는 일이고 비록 효유문이 있어도 깊이 믿을 수가 없는 고로 재기한 것」이라고 하여 윤현궁이上來하기를 기다려서 재기한 것이 아님을 누차례에 걸쳐 답변하였다.⁴⁰⁾

재봉기의 원인을 묻는 심문에서 일본영사가 특히 대원군과의 관련을 집중적으로 캐내려한 것은 당시 일본이 대원군과 그의 손자 李垓鎔을 음모사건으로 엮어 권력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¹⁾

1차봉기때 國太公을 받들어 나라를 맡기려했던 전봉준이 재봉기와 관련하여서는 전연 대원군을 부정하게 된 것은 단지 일본측의 심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집강소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정세인식과 권력구상에 변화가 와서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과제인 것이다.

2) 2차봉기의 참여세력과 전투경과

(1) '抗日' 표방과 참여세력

농민군 재봉기의 근본적인 목표는 보다 철저한 폐정개혁이었지만 거사의 대의명분은 '항일'이었다. '항일'이라는 명분은 1차봉기때 전라도 일원에 국한되었던 거사지역을 충청도 경상도를 비롯한 전국 일원으로 확

38) 鄭頌謨, 「甲午略歷」, 68쪽(동학란기록 상) 追聞

39) 「이병휘공초」 卍17284, 정석모, 「갑오약력」 과 일본측이 수집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대원군측이 분명히 농민군측에 밀지를 내려보낸 것 만은 사실로서 확인할 수 있다.

40) 「전봉준공초」 三招問目

41) 전봉준에 대한 심문이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고 난 후 이준용은 4월 19일 음모혐의를 받아 喬洞으로 유배되고 그 도당 朴準陽 李泰容 등은 誅殺되었으며 대원군은 사실상의 연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앞서 이병휘가 지수하였을 때 이미의 심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항변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이준용은 전봉준에 대한 심문이 끝나자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유배당하고 말았다. 대원군과 이준용의 음모는 白地虛構는 아닐지라도 정상형 공사가 부임한후 대원군을 계획적으로 권력에서 제거하는 과정과 보다 관련있는 것이지 전봉준의 재기 결심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甲午實記」 8월 27일조 동학란기록 상권 32쪽 '이준용 음모전').

대시키고 남북접의 연합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실제로 2차봉기의 참여세력은 '전라일도의 인민만이 아니라 각도 인민이 稍多'⁴²⁾한 상태였다. 그러면 이러한 각도 인민들은 전봉준 등이 표방한 항일연합전선에 호응하여 참여한 다양한 사회계층들인가.

집강소 기간동안 농민군의 위력이 높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상당한 富民과 士族들이 집강소 체제에 협조하였다.⁴³⁾ 그러나 한편으로 농민군의 반봉건투쟁이 강화될수록 反농민군의 적대감도 심화되었다. 소위 '관민상화체제'라는 집강소하의 7월간부터 각지에서는 민보군, 守城軍이 형성되어 농민군과 접전을 계속하였다. 9월 농민군이 재봉기하자 농민군과 양반층의 적대관계는 다시 첨예화되어 농민군들은 軍用錢 조달을 위해 도처의 부호 양반을 더욱 토색하고 양반들은 自衛를 위해 대부분 민보군을 조직, 농민군에 대항하였다. 집강소기 투항했던 일부 이서, 향입층들조차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농민군 토벌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항일을 대의명분으로 척사유생과 농민군이 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차봉기 참여세력이 '反日'의 쏘사회계층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이미 농민군과 反농민군 세력의 계급적 대치는 화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고 연합전선을 제기한 전봉준의 항일의식이 절박한 國權意識이라면 당시 민보군에 가담한 유생, 양반 관료층의 항일의식은 봉건적 斥邪意識이었다는 점에서도 도저히 연합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2차봉기에 참여한 참여한 다수의 사회계층은 여전히 하층민농을 중심으로한 농민군 무장대였다. 1차봉기에 비해 봉기가 전국화한 것은 1차봉기 이래 각 지역에서 서 무수히 발생한 자생적 농민군 무장대의 참여때문이었다.

한편 북접교단 산하의 농민군이 참여한 것도 농민군 확대에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북접의 최시형은 9월초 삼례회합때까지도 여전히 '교도 근신조목'을 내리는 등 농민군 봉기를 무마하려고 하였고 '남접 각포가 義擧를 자칭하여 平民을 침학하고 敎人을 장해하니' 등으로 전봉준의 재기병을 비난하였다. 이에 남북접 동학도들간의 갈등은 "남접의 銃槍머리에 북접 사람들이 모두 죽을 지경에 이를"⁴⁴⁾ 정도였다.

최시형은 결국 일본군, 관군에 의한 동학교도 학살과 그로 인한 교도들의 물끓는듯한 요구에 못이겨 봉기 참여를 허락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단보위, 교도보호의 차원이었고 전봉준 등 남접의 봉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四恩의 報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六賊의 일만을 생각하여 斥和를 자칭하고 도리어 창궐을 일삼는다'라고 비난하며 전봉준을 만나거든 타일러서 그 暴擧를 그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⁴⁵⁾ 이에 북접교단 산하의 농민군은 손병희, 손천민 등의 지휘하에 靑山에 집결하고 10월 16일 전봉준 지도의 남접과 논산에서 만나 합세하였으나 그 참여목적은 남접 농민군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었다. 전봉준 자신도 재기포시 최시형과 의논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바,⁴⁶⁾ 남북접 연합에 의한 재봉기라는 일반적 통념은 불식될

42) 「전봉준공초」 初招問目

43) 「오하기문」 제2필 98쪽 5월이후 수령과 사족들이 많이 도적을 따랐다' 와 94~95쪽의 협조자 명단 등 참조, 「양호초토등록」의 312~313쪽과 317쪽, 「순무선봉진등록」 423쪽 등에서도 농민군에 굴복하여 집강소에 상당히 협조한 사람들의 기록이 보인다.

44) 오지영 「동학사」 「南北接爭端」 편 참조

45) 김의환, 「갑오동학농민항쟁과 남북접 문제」 『나라사랑』 15집 71~72쪽에서 재인용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주력군은 집강소 체제하에서 재무장을 강화한 전라도 일대 접주 통솔하의 병력으로서 진안의 동학접주 文季八, 金永東, 李宗泰, 금구의 趙駿九, 전주의 崔大奉, 宋日斗, 정읍의 孫世玉, 부안의 金錫元, 金世中 등이 이끄는 4천여명이었고⁴⁷⁾ 최경선, 손화중은 재기는 같이 모의했으나 함께 복상하지는 않고 후비를 맡게 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2차봉기에 참여한 농민군의 숫자는 늘었으나 철저하게 전봉준의 지휘체통을 따르는 조직된 농민군의 숫자는 그다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만의 농민군을 휘하에 두고 있던 김개남이 전봉준과 합류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전봉준 부대의 전력에 차질을 빚는 것이었다.⁴⁸⁾ 결국 1차봉기를 같이 했던 농민군 지도자중 오로지 김덕명만이 전봉준과 함께 복상을 하고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부대 등 대규모 무장대가 후방에 남게 되었다.

(2) 전투경과⁴⁹⁾

2차봉기는 전라도 일원을 무대로 했던 1차봉기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광범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만큼 크고 작은 전투의 숫자도 많고 내용 또한 다양하다. 크게는 전봉준이 이끄는 재봉기군과 북접교단 산하의 농민군이 2차봉기의 주력군이지만 이외에도 각지에서 나름대로 관군, 일본군, 민보군을 상대로 전투를 치른 무장대는 헤아릴수 없이 많았고 전봉준 등 지도자들이 모두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전투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주력군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들은 본격적인 2차봉기가 시작되는 9월이전에 이미 각지에서 무장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9월들어 북접교단의 전투참여로 더욱 세가 증가된 충청도 농민군은 9월 24일 청주성 공격을 시작으로 관군과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안성, 이천 등 경기도 일부지역의 농민군까지 합세하여 10월 중순까지 진천, 태안, 서산, 아산, 괴산, 죽산 등지의 관아를 공격, 점령하였다. 양호도순무영의 이규태 부대, 장위영의 이두황 부대, 경리청의 성하영 부대 등 京軍과 충청감영군,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힘써 막았으나 중과부적인 형세였다. 전봉준 부대가 복상하기전 충청지역 농민군의 기세는 상당히 승세를 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전봉준부대는 9월 18일 삼례역에 집결하여 대도소를 설치한 후 약 20여일간 각지 세력을 모은 후 10

46) 「전봉준공초」 再招問目

47) 「전봉준 판결선고서」

48) 김개남은 전봉준이 王事에 협력하자고 편지를 보냈으나 끝끝내 협력하지 않았고(「전봉준공초」 四招問目) 10월 중순경 남원을 출발, 전주로 나아가 고부군수 양필환, 남원부사 이용현, 순천부사 이수홍 등을 처벌하는등 극단적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전봉준 부대의 우금치전투가 한창인 11월 11일경 청주를 향해 출발, 11월 13일 청주싸움을 벌였으나 패하고 진잠, 연산 쪽으로 후퇴하다가 공주전투에서 패하고 내려오던 전봉준 부대와 만나 관군과 싸웠으나 다시 패한후 두 부대는 각기 흩어지고 만다. 이후 김개남은 12월 1일 태인 種松里에서 沁營兵에게 붙잡혔다.

49) 이차 2차봉기의 전투경과에 대해서는 「선봉진일기」, 「양호우선봉일기」, 「순무사정보첩」, 「선봉진정보첩」, 「일본공사관기록」 등을 토대로 종합정리.

월 12일 경군과 충청감영에 보내는 통문을 발하면서 본격적인 복상을 시작하였다. 전봉준은 강경을 거쳐 10월 16일 논산에 이르러 복접세력과 합류하였다. 이후 호서, 호남 농민군 연합군은 공주대교에 둔踞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공주성 점령을 위한 전투를 벌였다.

10월 25일 전봉준 지휘하에 경리청군과 벌인 熊峙전투는 치열한 접전이었으나 결과는 농민군이 敬天店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孝浦싸움에서도 우선봉장 이규태군에게 농민군의 많은 수가 부상을 입었다. 다시 11월에 들어 전봉준부대는 8일 공주를 향하여 진격하여 11월 9일 공주 우금치 돌파를 위한 총공격을 하였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두 차례의 공주공격에 실패한 전봉준은 결국 패잔병을 이끌고 11월 12일 경에는 공주 주변에서 전면 후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11월 15일 논산, 은진전투에서 다시 패배한후 강경, 여산, 삼례를 거쳐 전주로 들어갔고 11월 25일 원평전투, 태인전투를 치렀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집결한 일본군 관군 연합군을 대적하지 못하고 11월 28일 금구에서 부대를 해산, 순창 피로리로 피신하였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1만여명의 직속부대를 이끈 전봉준 부대가 기껏 2천여의 관군, 일본군 연합부대를 이겨내지 못한 원인은 여러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지만 우선은 화력의 열세와 전투력의 미숙이었다. 농민군의 이러한 약점은 대중의 숫자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으나 각지의 농민군 무장대가 모두 우금치로 모이지도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었다. 공주전투가 한창일때에도 충청도 일부지역의 농민군들은 독자적으로 관군, 일본군을 상대로 홍주전투, 청산전투, 해미전투 등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각지 농민군의 활동은 충청도 일대 뿐아니라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남부지역에서도 계속되었으며 전봉준의 주력부대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전투와 반봉건 투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록 주력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자의 근거지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반봉건, 반일 투쟁을 수행함으로써 2차봉기의 전국적 의의를 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2차봉기의 역사적 지향

이상 전봉준과 농민군의 제2차봉기에 나타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2차봉기의 지향을 보여주는 격문으로 전봉준이 10월 16일 논산에서 호서순찰사 박제순에게 보낸 「전봉준상서」⁵⁰⁾와 11월 12일의 경군, 영병에게 보낸 「示京軍營兵」, 「고시경군여영병이교시민」⁵¹⁾ 등에 나타난 봉기의 목적은 ‘척왜척화’ 혹은 ‘斥邪遠倭’라고 하여 일본세력과 친일 개화당에 대한 응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는 재봉기의 이유에 대한 전봉준의 공초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항일은 일단 제2차 기병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격문」은 정부군에 대한 회유라는 전술적 고려가 우선시되어 작성된 것이고 「공초」도 일본 영사의 심문에 대한 대답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격문에서는 정부군에게 연합전선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반봉건 구호보다는 ‘척사척왜’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일본영사에게도 거사의 대

50) 동학관기록 하권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383~384쪽 所載

51) 동학관기록 하권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379쪽 所載

의명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일의병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전봉준의 반일 연합전선 제의는 정부군은 물론 농민군외의 각 사회계층에게서 전혀 반응이 없었고 민보군, 유희군 등에 참여한 보수 지배층은 일본군보다는 농민군에 더 적대적이었다.⁵²⁾ 따라서 2차봉기의 성격을 해명하는데 있어서는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들의 항일의식의 실체와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좀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바 반봉건의 혁명적 해결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유추가 더 절실히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화파의 개혁으로는 만족치 못했던 그 무엇을 농민군은 2차봉기에 참여하면서 획득하고자 한 것이었다. 자체적인 집강소 개혁을 경험한 일반 농민층과 해방된 노비, 천민층의 반봉건 요구의 정도는 1차봉기때와도 단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전봉준도 이미 1차봉기때와는 다른 권력구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원군과 같은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國事를 맡기는 것은 폐해가 있으므로 '몇사람 柱石의 士' 를 내세워 '公議法' 에 의해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⁵³⁾

그런데 전봉준이 지칭한 몇명의 주석의 선비는 어떠한 정치세력을 염두에 둔 것일까. 농민군은 처음 군국기무처에 의한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을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환영하였고 전봉준도 9월초까지는 개화파와의 연합과 동맹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⁵⁴⁾ 전봉준이 재봉기에 대해 신중했던 것도 개화파와의 합작인 집강소 질서의 지속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다가 온건개화파 중심의 군국기무처 개혁이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고 개화정권내에 박영효로 대표되는 친일세력이 많아지자 농민군은 드디어 개화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일' 의 재봉기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학진은 결코 개화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없고 군국기무처 개혁을 주도한 것도 김홍집, 김윤식 등 온건 개화파가 아니라 유길준, 조희연, 안경수 등 일본의 쿠데타에 힘입어 권력에 진입한 친일개화파였다. 이들은 자체 권력기반이 없어 전적으로 일본군의 물리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스스로 일본공사 관측에 접근하여 일본군의 장기주둔을 호소하고 다녔던 인물들이었다.⁵⁵⁾ 때문에 군국기무처 개화파와 박영효를 친일성 여부로 구별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군국기무처의 성립 자체가 일본군의 군사력에 의거한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유길준 등의 개혁은 반봉건 근대 개혁의 측면에서 박영효 등장 이후의 개혁보다 오히려 불철저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봉준이 김학진을 온건개화파라고 생각하였다면 인식의 잘못이고 박영효 등장이후 개화정권에 대한 농민군의 기대가 달라졌다면 그것 역시 전봉준과 농민군의 정치의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봉준이 박영효, 서광범등 갑신정변의 변법적 개화파를 격렬히 성토했고 개량적 개화파나 척사유생과는

52) 일부 보수세력중 농민군에 참여한 경우로 공주출신 유생 의병장 李裕尙이나 여산부사 겸 영장 金元植 등을 예로 들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 2차봉기의 항일연합전선적 성격때문에 참여세력이 보다 포괄적이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위의 두가지 예외적인 사례외에 일반적인 보수세력의 항배는 민보군에의 참여였다.

53) 「동경조일신문」 1895년 3월 6일

54)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42쪽

55) 김정명 편 「일한외교자료집성」 4. 40쪽 문서번호 23 朝鮮國駐劄大鳥公使ヨリ陸奧大臣宛 朝鮮國ノ政情ニ關スル情報ノ報告ノ件 安綱壽氏ノ内話 참조

항일연전의 대상으로 생각했다⁵⁶⁾고 하는 것은 전봉준의 정치의식이 아직도 유교적 국가의식이나 勤王主義의 굴레에 견고하게 갇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전봉준은 대원군을 부정하면서도 박영효를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는 정도의 정치의식을 갖고있는 것이었다.

56) 「오하기문」 제3필 을미 3월조

3. 농민전쟁의 지역사례

- | | |
|-------------------|--------------------|
| 1. 전라도 남부지방의 농민봉기 | 3. 경상도지방의 농민봉기 |
| 2. 충청도지방의 농민봉기 | 4. 강원도 황해도지방의 농민봉기 |

공동연구 박찬승(목포대), 양진석(서울대 규장각)
박진태(성균관대 강사), 정은경(한양대 박사과정)

1. 전라도 남부지방의 농민봉기

전라도지방은 1894년 농민전쟁의 진원지이자 본 무대로서 농민전쟁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농민전쟁 연구는 주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지도자들이 이끄는 농민군 주력의 이동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1894년 농민전쟁의 회오리는 53개주에 이르는 전라도의 전 지역에 영향을 미쳐 그해 여름 이른바 집강소시기에는 전라도 전 지역이 사실상 농민군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 물론 이 시기에도 나주성은 여전히 관측의 수성군이 지키고 있었고, 또 어떤 지역은 농민군이 일시적으로만 성을 점령하고 곧 철수한다든가 하는 양상을 보여 농민군의 세력이 각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 전라도의 전 지역은 농민군의 세력하에 들어가 있었고, 따라서 이 지역의 향촌사회는 실로 혁명적인 격동을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농민군은 기존의 지배체제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그해 겨울 일본군과 정부군, 그리고 각 향촌사회에서의 수성군 의병 민포군의 반격에 농민군세력이 무너짐으로써 좌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1894년 농민전쟁 연구는 1894년의 격동기의 향촌사회의 모습을 살핌으로써 그 연구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전라도지방 가운데서도 특히 노령(갈매)이남의 남부지방, 즉 현재의 전남 지방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민군의 세력분포, 주요 접주들의 사회적 성격, 그리고 각지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를 살핌으로써 이 지방에서 있었던 1894년 농민봉기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전라도 남부지방 동학농민군의 세력 분포

전라도 남부지방(노령 이남)에서의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이 지방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대접주들은 광주의 손화중 최경선, 무안의 배상옥, 순천 광양의

김인배, 장흥의 이방언 등이다. 그 다음의 세력을 가졌던 집주로는 나주의 오권선, 담양의 남응삼, 홍양의 유복만, 함평의 이화진, 영광의 양경수 송문수, 해남의 백장안, 장성의 이장태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의 세력이 비교적 약했던 곳으로는 창평, 영암, 강진, 화순, 능주, 옥과, 구례, 곡성, 완도, 진도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농민군세력은 다시 대접주들을 중심으로 몇개의 권역으로 그 세력을 나누어볼 수 있다. 광주 장성 나주지역은 손화중 최경선의 세력권에, 담양 옥과 구례지역은 남원의 김개남세력권에, 장흥 강진 보성 해남 지역은 이방언의 세력권에, 순천 평양 승주지역은 김인배의 세력권, 무안 함평지역은 배상옥의 세력권에 각각 속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 대접주들 가운데 손화중 최경선 김인배 김개남 등은 모두 노령 이북, 특히 고창 태인 금구지역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대접주외에도 영광에서 활동한 양경수 송문수 오하영 오시영 등은 모두 고창 무장출신들이었다. 이는 당시 노령 이남지역에서 이방언 배상옥 외에 특출한 대접주를 배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마도 이 지역에 동학이 전파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먼저 이 지역출신 대접주급에 해당하는 이방언 배상옥이 어떤 이였는지 살펴보자. 이방언은 장흥 용산면 묵촌 사람으로 본관은 인천, 당시 2백석정도의 지주가로서 부친은 향교의 齋長을 지냈다고 한다.¹⁾ 裴相玉(裴奎仁)은 무안 대월리 출신으로 본관은 달성, 신분은 평민, 경제적으로는 소지주 내지는 부농정도에 해당하는 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흔히 '함무안접주'라 불리었으며, 그 세력은 손화중과 맞먹어 전봉준이나 김개남보다 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²⁾

다음에는 비록 대접주급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권선 전유창(나주) 남응삼(담양) 유복만(홍양) 이화진(함평) 백장안(해남)과 金亨巡(담양), 李仕京(장흥) 등도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고 이 지역의 농민전쟁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들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권선은 당시 나주 삼가면 도림 세동 송동 나동에 세거하던 나주 오씨들의 동족부락 세동출신으로 어려서 부친이 읍내에 들어가 한때 서당훈장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며, 성장해서도 초가 두칸의 집에 살고 있던 몰락양반에 속하는 이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일가 가운데에는 부자들이 있어 같은 마을의 吳碩煥은 오권선을 통해 농민군측에 상당액수의 자금을 대기도 하였고, 이웃 도림마을의 吳駿善은 나주수성군측에 군량미를 대기도 하였다.³⁾ 그러나 오권선은 이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식층이었던 것이다. 李化辰은 함평 손불면 장동사람으로 본관은 공주, 경제적으로는 중농정도, 지식층으로서 부친, 형과 함께 농민군활동을 주도하다가 모두 처형당하였다. 俞有暢은 나주 노안면 동산사람으로 본관은 천안으로 전봉준과 같은 성씨라 해서 일찌기 전봉준이 집에 찾아온 일이 있을 정도로 가까웠으며, 백산봉기에도 참여했다. 상당한 부자였다고 하나 신분은 평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이종찬(이방언의 증손) 증언(1994.3.1)

2) 나주 목사 민종렬은 양호순무선봉장 이규태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장 손화중과 무안 배상옥은 각기 그 거느리고 있는 무리가 수만에 이르러 전봉준이나 김개남과 비교할 때 몇 배에 달한다고 쓰고 있다(이규태왕복서 및 묘지명『동학란기록』 하, 503쪽).

3) 오학수씨 증언(1994.5.5) ; 『금성정의록』 참조

담양 용구동의 김형순은 빈농으로서 완력이 강한 이었다고 하며, 그해 7월 담양의 아전으로서 수성군을 조직하려 한 鞠弘烈을 잡아다 죽임으로써 '强接'으로 이름을 떨쳤다.⁴⁾ 장흥 부산면 용반의 이사경은 부친이 이미 접주로서 이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마련해온 '대물림접주'로서 상당한 규모(수백석?)의 '서민지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남의 白長安은 대흥사 바로 앞의 삼산면 구립리 사람으로 부친 백용담은 선원록청의 書寫와 巡將을 지낸 바 있었고, 백장안 자신은 1888년 武科 丙科에 급제하여 흔히 '백선달'로 불리던 이었다. 그는 해남의 삼산면접, 비곡면접, 현산면접, 그리고 남문밖 남동리의 농민군세력을 이끌고 우수영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후일 완도에서 붙잡혀 해남으로 끌려와 처형되었다.⁵⁾

다음 이러한 중간접주들 외에도 소접주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체로 각 면정도의 권역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들 가운데 몇몇 신원이 확인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 갈동의 鄭安冕은 최근 발견된 고문서에서 함평 갈동면 접주로 확인되는 인물이다. 그는 갈동면(현 월야면) 양정리 양지부락사람으로 본관은 나주, 신분은 평민, 비교적 부유한 편으로 지식층이었다고 한다.⁶⁾

광양 옥룡면 상평의 徐允若 徐亨若형제는 광양 옥룡면 운평리 상평사람(본관은 이천)으로 집터만 3백평, 담살이를 12호 거느릴 정도로 옥룡면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한다. 그의 부친 徐志殷은 옥룡면 면부부터 시작하여 民庫都監, 사헌부감찰, 충훈부도사의 교지를 구할만큼 신분상승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었다.⁷⁾ 무안 해제 석용리의 崔文彬 崔善泳형제는 중농정도로서 비교적 지식층으로 꼽히는 이었다고 한다.⁸⁾ 이러한 사례들은 소접주 가운데에도 부농 내지 소지주층이 상당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외에 아마도 빈농 혹은 천민층으로서 소접주가 된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접주 밑에는 接司 省察 禁察 등의 계급과 教長 教授 都執 執綱 大正 中正 등의 직책이 있었다.⁹⁾ 이들 중간 지휘자들도 어느 정도는 문식이 있는 이들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각 면 리에서 執綱 등으로 발탁된 이들은 원래 동학교도가 아닌 이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한편 이들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던 일반 농민군들은 사회적으로 평민 천민, 경제적으로는 영세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었을 것이다.

한편 반농민군측 세력으로는 주로 향리층의 세력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농민군의 활동도 활발하였던 곳에

4) 황현은 호남의 强接으로서 남원의 화산당접과 담양·용구동접을 꼽았다(『오하기문』 2필)

5) 白鍾南(백장안의 증손)씨, 白一萬씨 증언(1994.5.12) 및 [教旨] 등 고문서 참조

6) 정무석씨(정안면의 증손) 증언(1994. 5.5)에 의하면 정안면은 돈녕부도정의 교지를 갖고 있었다 한다. 이는 그가 신분상승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7) 서형식씨(서운약의 증손) 면담(1994.4.5)

8) 최석봉(최문빈의 손) 면담(1994.4.2)

9) 이들 각 직책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봉준공초]에 자세하다. 다른 곳에서는 계급으로서 대접주 소접주 사접접주 접사 省察 禁察, 직책으로서 教長 奉教 執綱 大正 中正 奉道 등을 들기도 하였다(『일본공사관기록』6, 24쪽).

10) 예를 들어 나주, 완도의 경우(최근 발견된 고문서 [羅州名錄]; 김상철, 『枕泉先生自敘行錄』)가 그렇다.

서는 향리층에 의해 수성군이 조직되었으며(나주, 광양, 담양 등), 향리층의 세력이 약한 곳, 그리고 농민군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양반유생층에 의해 의병이 조직되었다(구례 등).

2) 전라도 남부지방에서의 주요 전투

전라도 남부지방에서의 주요 전투로서는 1차 봉기시의 황룡촌전투, 집강소시기부터 2차봉기시에 걸친 나주성전투, 2차봉기 이후 순천 광양전투와 장흥 강진전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널리 알려진 황룡촌전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른 전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주는 집강소시기에도 호남지방에서 유일하게 관측이 농민군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한 곳이었다. 나주목사 민종렬은 오히려 수성군을 강력히 조직하여 농민군에 대항하고 나섰다. 이에 농민군은 7월 5일 최경선이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권선과 함께 나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나주성은 천혜의 요새지여서 공격이 여의치 않았으며 수성군의 병력과 무기도 만만치 않았다. 7월 27일 최경선은 다시 나주성을 공격하였으나 결국 패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8월 13일 나주성을 직접 찾아가 민종렬과 집강소설치문제로 담판을 가졌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9월 중순 농민군의 2차 봉기가 시작되면서 전봉준은 손화중으로 하여금 상경하는 농민군의 배후가 될 광주 나주지방의 방비를 맡겼다. 공주에서 전투가 시작될 즈음인 10월 20일 광주 영광 함평 나주 일대의 농민군은 황룡강변의 선암장에 집결하여 나주성공격을 준비하였다. 이에 민종렬은 선수를 치기로 작정하고 수성군을 성밖으로 출정시켰다. 침산과 선암에서 21일 벌어진 전투에서 농민군은 수성군의 우세한 화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

11월 들어 공주부근에서 농민군이 계속 밀리는 가운데 이제 농민군에게 나주성점령은 배후거점의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손화중은 광주 나주 장성일대의 농민군뿐만 아니라 고창 무장 등지의 농민군에게까지 원병을 청하였다. 수성군은 이에 농민군의 토벌을 위한 2차 출정을 단행하여 11월 11일 농민군이 집결하고 있던 황룡강 상류 두정동쪽으로 진출하였다. 농민군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용진산으로 이동하여 전투는 13일 용진산에서 벌어졌으나, 화력의 열세와 훈련미숙으로 인해 이번에도 농민군이 역시 패하고 말았다.

11월 17일에는 함평 무안일대의 농민군들이 나주성공격에 나서서 나주성의 남쪽 방면인 고막원에 집결하였다. 이에 수성군은 다시 고막원에 진출하여 역시 농민군을 패퇴시켰다. 23일에는 오권선이 이끄는 농민군의 나주성공략이 마지막으로 시도되었다. 농민군은 나주성인근의 남산촌까지 진출하여 접근전을 폈으나 역시 패하고 말았다. 결국 농민군은 나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손화중 최경선은 농주 동북방면으로 후퇴하였다가 그곳에서 검거되어 나주로 압송되었으며, 고막원전투에 무안 함평 농민군을 동원하였던 배상옥은 농민군 해산을 선언하고 해남으로 도피하였다가 검거되어 처형되었다.

순천 광양지역의 농민군들은 금구에서 파견된 김인배의 지도하에 순천에 영호대도소를 설치하고 순천의 유하덕, 승주의 정우형 등이 농민군을 이끌고 있었다. 이들은 집강소기에는 관측과 타협국면을 이루고 있어

큰 충돌은 없었다. 8월말에 이르러 남원의 김개남 등이 영남으로의 진출을 결의하는 가운데 그 선봉으로서 김인배가 이끄는 순천 광양의 농민군은 9월 1일 하동 진주방면으로 진출하여 이곳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19 일에는 양하일이 이끄는 순천의 농민군이 낙안을 장악하였다. 농민군은 이어서 좌수영을 공격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진주방면에서 경군과 일본군의 반격이 시작되어 진주의 농민군은 하동방면으로 후퇴하여, 10월 20일부터 하동의 섬진강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22일 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고 광양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1월 20일 순천의 농민군은 다시 좌수영을 공격하였는데, 좌수사가 여수 앞바다에 정박중이던 일본군함 쓰쿠바호에 구원을 청하여 26일 일본군이 상륙함으로써 농민군은 일본군과 좌수영 연합군에 패배하고 말았다. 사태가 점차 농민군에 불리해지자 12월 6일 순천의 아전들이 중심이 되어 수성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측을 습격, 정우형을 비롯한 농민군 53명을 죽였다. 8일에는 좌수영의 군대가 순천방향으로 들어와 각면의 접주들을 비롯한 농민군 약 4백여명을 죽였다.

광양에서도 12월 7일 전 군수 김석우와 아전들이 중심이 되어 수성군을 조직, 농민군측을 습격하여 김인배 등 농민군지도부는 사로잡혀 처형되었으며, 이후 며칠동안 각 면의 접주들에 대한 수색과 토벌이 시작되었다. 9일 좌수영군과 하동방면에서 온 일본군은 섬진강변, 옥룡면, 섬거역 등지에서 전투를 벌여 농민군세력을 섬멸하였다. 이어서 광양으로 들어간 일본군과 좌수영군은 농민군을 철저히 수색하여 수많은 농민군을 처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라도 남부지방에서의 농민군의 최후 저항은 장흥 강진 해남일대에서 시도되었다. 용산면 목촌의 이방언과 부산면 용반의 이사경에 의해 지도되는 장흥의 농민군세력은 7-8월 자라번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7월 30일 부임한 장흥부사 박헌양은 부임직후부터 유림들과 농민군토벌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등 시기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 강진 병영에서는 10월 1일 이곳에 설치된 동학도소를 철폐하고 수성소를 설치하는 등 농민군과의 대결태세를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 공주전투와 나주전투의 연이은 패배소식이 전해지고 이곳 농민군들은 장흥일대를 농민군 최후의 거점으로 확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장흥일대의 농민군 수만명은 11월 26일 이방언 이사경 이인환 등이 회령진(현 보성군 회천면)에 집결하여, 12월 4일 벽사역을 점령하였으며, 다음 날 장흥성을 공격,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흥부사 박헌양 등 수성군 96명이 전사하였다.

농민군은 여세를 몰아 7일에는 민보군(김한섭 지휘)이 강진을 점령하였으며, 10일에는 병영성을 공격, 점령하였다. 장흥 강진 병영성의 함락소식은 당시 나주부근까지 남하하고 있던 경군과 일본군에 곧 전달되었다. 이에 나주에 머물고 있던 우선봉진의 이규태군은 12일 강진을 거쳐 장흥으로 들어오고, 일본군은 유치방향을 거쳐 15일 장흥으로 들어오며, 순천에 머물고 있던 좌선봉진의 이두황군은 20일 장흥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로써 12일부터 이규태군과 농민군 사이에 1차 접전이 시작되었는데, 농민군은 이규태군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 장흥성을 내주고 자울재를 넘어 고읍(관산)방면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일 농민군은 다시 자울재를 넘어 석대들을 가득 매우며 장흥부로 공격해 들어왔으나 이규태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농민군은 다시 자울재를 넘어 후퇴하여 4,5천명이 옥산리(현 관산읍

옥당리)에 재집결하여 17일 최후의 항전을 벌였으나 여기에서 다시 백여명이 희생되고, 나머지는 천관산쪽을 거쳐 강진, 대구방면으로 흩어져갔다. 일단 흩어진 농민군은 다시 해남방면에 집결하여 12월 18일 해남읍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당일 이규태군이 해남읍에 도착, 농민군을 격퇴함으로써 농민군은 뿔뿔히 흩어져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과 관군은 장흥지역에서 300명, 강진지역에서 320명, 해남지역에서 250명의 농민군을 붙잡아 처형하였다고 한다.

2. 충청도지방의 농민봉기

1) 1차 농민전쟁기

(1) 농민군의 활동

1차 농민전쟁기의 충청지역의 농민군 활동은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농민전쟁기 충청지역 농민군은 농민군 지도부의 활동과 무관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의 농민군 일부는 농민군 주력 부대와 일정한 연관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농민군 주력부대를 둘러싼 주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북적교단의 영향하에 있었으므로 농민군 대부분은 적극적인 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기존의 揆包조직을 형성하여 활동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충청지역에서 동학교단을 기반으로 한 농민군도 농민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동학교단은 1893년 3월에 이미 보은 집회를 통하여 각 지역에 산재한 조직을 새로이 정비하였다. 忠義包 손병희, 忠慶包 임규호, 淸義包 손천민 등등의 교단조직이 그 중심이었다. 이들 조직은 2차 농민전쟁기에 동학군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기반이 되었다. 게다가 소위 怨民, 혹은 亂民으로 불리는 농민층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에는 이러한 두 개의 성격을 갖는 층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러한 흐름에서 이 지역의 농민군의 활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차 농민전쟁기 충청지역 농민들의 움직임으로 주목되는 것은 1894년 4월초를 전후하여 홍주지역 民擧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沃川 西化面에 모인 농민군 수천 명이 읍저에 돌입하려 한다든지, 5월경에는 회덕·진잠·청산·보은·옥천·문의 등의 각읍에서도 농민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¹¹⁾

6월 말에서 7월 초의 농민군의 움직임은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林川에서 6월 29일 20여명정도가 作廳에 난입을 한 사건, 혹은 公州에서는 大橋, 公壽院, 盤松 등지에서 동학군들 수십, 수백명이 돈과 곡식을 집류한 사건, 定山에서는 7월 7일에 관현면 신대리에 살고 있는 進士 趙昶夏가 동학군에 의하여 피살당하는 사

11) [全忠兩道=民亂付村村濬意見書(明治27年 5月 22日 機密제43報告)]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中卷(1936년 편), 329쪽. 전라지역과 함께 충청 양도 지역의 1/3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충청도내의 이외의 지역에서도 농민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건동이 일어났다. 또한 報恩에서는 봄에 背道한 무리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고 한다든지 혹은 7월 2일에는 수백명의 동학도였던 金介鉞가 倡義를 목적으로 報恩郡 恩角面 高升里 川邊에 농민군을 소집하였다고도 한다. 이들이 都約長으로 군수인 鄭寅亮을 내세우고 約長에는 任圭鎬, 黃河一 등등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볼 때 관군을 이용하려고 하였음이 분명하다.¹²⁾

그리고 舒川에서도 7월 9일 '扶安東學人'을 자처하는 자들이 총을 쏘면서 읍에 들어가 관청에서 술과 음식을 토색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 連山에서도 7월 6일부터 8일까지 동학배들이 총과 창을 갖고와서 돈을 비릇하여 총, 말을 빼앗아 갔다고 한다. 그리고 7월 3일 利仁驛에서, 7월 7일 舒川, 靑陽에서, 17일 燕岐, 韓山에서 각각 작요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洪州지역에서는 이미 동학도들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관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동학도들이 주문을 외어 그 소리가 들릴 정도일 뿐만 아니라, '시가에서 성외의 郊垆에 이르기까지 곳마다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밤이 셀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였다. 또한 이 지역은 '吏校와 奴舍들이 몰들지 않은 자가 없었고'라고 할 만큼 동학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¹³⁾

한편 8월 경에는 충청도의 농민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8월 1일 농민군 만여 명이 公州의 正安面 弓院에 모였다. 두령은 任基準으로서 취회의 목적은 倡義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營門과 公州府에 머물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에서 이들의 해산을 종용하였고, 농민군은 오히려 儒狀과 民訴로서 合辭하기도 하였다. 8월 3일 농민군은 읍치에서 10여리 혹은 30여리 떨어진 곳에 각각 둔踞하였다. 8월 19일 농민군은 다시 금강근처에 둔踞하였고, 관군은 이를 막는 상황이 지속되었다.¹⁴⁾

한편 노성현에서는 동학배들이 군기를 탈취하는 사건으로 현감이 8월 24일 파출당하였다. 이처럼 농민군들은 2차 농민전쟁기 이전에 이미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1차 농민전쟁기 및 이후 청일 양국의 접전, 일본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농민군들의 활동은 점차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보다 조직적인 활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2) 2차 농민전쟁기

9월 말경 농민군들은 다시 기포를 하였다. 吳知泳에 따르면 이 때에 충청도 지역에서 기포한 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¹⁵⁾

청주 : 孫天民, 李容九 태안 : 金東斗 보은 : 金演局, 黃河一, 權秉憲 홍주 : 金斗悅, 韓圭夏 목천 : 金福用, 李熙人 면천 : 朴熙寅 옥천 : 鄭元俊, 姜彩西 안면도 : 朱炳道 서산 : 朴寅浩 남포 : 秋鏞聲 신창 : 金敬三

12) 『錦藩集略』別啓 7월 7일

13) 『洪陽紀事』7월 7일

14) 『錦藩集略』別啓 甲午 8월 5일

15) 吳知泳, 1938 『東學史』(『東學史』, 南北接爭端 p149, 1984 대광문화사에서 인용)

공주 : 金知擇, 裴成天 덕산 : 金?培 당진 : 朴容台, 金顯玖

이들 명단은 해당인물들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을 보이는 정도이며, 한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활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은 전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였다. 이들 조직은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조직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조직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한 주요한 전투들은 다음과 같다.

(1) 서산 태안 예산 해미 홍주지역의 전투

충청도 지역에서는 9월 24일 匪類 수만명이 성아래를 침범하자, 충청병사 이장희는 이들을 물리쳤다고 보고하였고, 湖匪들의 소식이 이어져서 감병영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으며, 上黨城의 무기도 잃을 염려가 있다는 보고가 연잇고 있었다. 이에 앞서 호남농민군의 움직임도 이미 충청도 농민들에게 전달되었다. 9월 이전에도 충청지역에서 농민군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8월 17일 충청도 선무사 정경원은 충청도 농민군들이 곳곳에서 활동하여 이러한 상태에서는 匪類들을 恩撫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9월달에 들어서는 “양호지간에 비류들이 창궐한다”, 혹은 “양호의 비류들이 근래에 嶺南 關東 畿湖 등지에 만연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농민군들에 대한 입장은 강경하였다. 태안지역에서는 9월경에 군수가 태안 서산 해미 3읍의 동학교도들을 귀화시키고, 거부하는 자들은 죽이려고 하였고, 이어 병정과 관군을 보내어 동학의 大首頭目 30여명을 가두었다. 위기를 느낀 박희인등은 일반두령들의 생사문제 및 동학이 공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기포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간혀있는 두목들을 구할 것을 결정하고 서산지역에서 기포하였다.

한편 최시형도 이러한 상황에서 ‘8도의 우리 교도가 죄가 있고 없건 이 세상에서는 삶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차하면 모든 두령들은 날날이 모두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니, 이 글을 받는 즉시 속히 기포하여 각자 자기가 속한 接包에 모여 자생하라’는 훈시문을 보냈다. 최시형의 훈시문은 농민들을 부추겨서 공주 은양 예산에서 예산 안흥군까지 일시에 기포하였다.

9월 말에 서산의 북점조직은 북면 방갈리에 있는 文章魯의 집에서 接主 張聖國, 文章魯, 金君執, 崔孟春을 비롯하여 接主 都執 執綱 中正 등이 모여서, 旗手隊長에 安玄默, 西部隊長에 朴正伯, 北部隊長에 李致榮으로 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10월 1일에 태안읍에 모였다. 10월 2일에는 禮包관내에 수만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들은 관정에 돌입하여 안무사와 서산, 태안군수를 묶고 때려서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옥에 갇힌 30여인을 구출하였다. 이때 禮包의 大都所는 禮山 木巢리에 근거지를 두었으며, 이때에 각군의 무기를 몰수하고, 대도소에 유치하였으며, 전쟁에 필요한 군비들을 마련하였다.

이 지역의 농민군은 손병희가 이끌던 忠義包에 속하고 있었으며, 德包의 朴寅浩, 禮包의 朴熙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손병희가 북점의 통령직을 맡게 됨으로써 충의포는 박인호에게 일임하게 되었으며, 박인호, 박희인등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덕산 당진 서산 태안 홍주 예산 면천 안면도 해미 등지에서 봉기하였다.

그런데 10월 11일에 홍주군수 이승우의 관병과 일본병 300여명, 유희군이 예산 목소리의 대도소를 공격하자, 농민군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농민군들은 다시 봉기하는 길을 모색하였고, 해미 서산 태안 등지의 농

민군에 합류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이들 군대들은 10월 23일에 해미 승전곡에서 관군 500명과 일본군 400명, 유회군 수천명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였고, 이어 면천까지 덕산을 거쳐서 10월 26일에는 禮山 新禮院으로 모였다. 이때에 북접 계통의 농민군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한다.

10월 27일 홍주군수 이승우와 유회군 김덕경 등이 신례원에 진을 치고 농민군을 공격하여 양측간에 전투가 벌어졌으며, 10월 28일 홍주 예산 덕산 지역의 농민군은 柳相台, 朴德七의 지휘하에 홍주성을 공격하였다. 이때의 농민군은 약 3만명 혹은 6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홍주지역에는 해미 방면에서 농민군에 패하여 도망해온 관군과 일본군, 유회군이 지키고 있었다. 양쪽측은 이날 오후부터 싸움을 개시하여, 농민군은 야음을 이용하여 대포로 공격을 가하였으나 홍주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29일에도 새벽에 농민군은 이곳으로부터 응봉으로 철수하였고, 다시 오후에는 해미로 철수하였다. 홍주성의 전투는 농민군이 약 200명의 부상자를 내고 끝이 났다. 이처럼 이 지역의 농민군은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고 강력하여 관군에게 위협을 주었으며, 이후 관군과 일본군들이 이 지역에 증파되었고, 특히 관군은 이 곳에서 양민을 학살하는 등 분탕을 치고 있었다.

(2) 大田坪전투

전봉준군이 삼례에서 논산으로 행군하여 대회를 개최하려던 때를 즈음하여 전봉준부대의 선봉대가 음력 10월 9일 직전에 논산북방의 한밭에서 영장 廉道希가 이끄는 충청도 감영군 80여 명과 벌인 전투이다. 농민군은 이때 선봉대를 파견하여 논산북방을 경계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충청병영은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주변지역을 살피기 위하여 連山 鎭峯지역을 순회하고나서 大田 근방에 이르러 벌어진 전투이다. 이는 1만여명의 농민군이 의도적으로 관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3) 한산 서천 전투

10월 경에 한산 서천에는 允洞接, 林川接 등이 연합하여 관포 칠산에 도회를 벌이고 있었으며, 10월 15일에는 임천읍의 도회로 농민군들이 들이닥치기도 하였다. 게다가 전라지역의 농민군도 道경계를 넘어 임천읍에 들이닥치기도 하였다. 이들은 11월 12일에 한산을 점령하고 이어서 서천을 함락하였다. 그들은 이어서 홍산, 남포 등지에도 나타났다. 특히 한산지역의 전투는 매우 치열하여 민가가 모두 불에 타버릴 정도였다. 관군은 경리청군을 중심으로 수성군이 중심이 되어 농민군과 접전을 벌였으며, 농민군은 퇴각하였다. 이때 김제의 강명선, 임피의 김행룡등이 잡혀 죽었다. 이후 합열 웅진 농민군들이 한산을 다시 공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경리청군은 이 일대에서 농민군들의 저항에 계속 직면하고 있었다.

(4) 목천 세성산 전투

10월 21일경 충청도 목천의 세성산에서 농민군과 관군, 일본군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다. 金福用이 지휘하는 농민군 3천명이 세성산에 주둔하여 일본군과 관군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세성산은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한 요새였다. 세성산 동,남,북쪽의 3면은 산세가 험준하고 서쪽은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농민군은 세성산에 의지하여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일본군은 1개 소대를 세성산의 동남쪽 기슭에, 2개 소대를 세성산의 북쪽 기슭에 매복시키고, 1개 소대 및 관군은 세성산의 서쪽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세성산의 서쪽을 집중 공격하다가 이어서 동남쪽에서 공격을 하였다. 농민군은 서쪽을 집중적으로 막고 있다가 다시 전투배치를 다시하여 대항하였다. 치열한 공방끝에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전술 및 화력의 우위에 밀려 북쪽기슭으로 후퇴하려 하였으나 매복한 관군과 일본군의 습격으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패하였다. 농민군의 피해는 전사 약 370명, 부상자 약 400명과 김복용, 중군인 김영우 등이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 이들 세성산에서 패한 농민군들은 이두황부대에 쫓겨 공주방면의 유구지역에서 활동하던 崔漢圭의 농민군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농민군이 서울로 향하는 북상로였으며, 관군과 일본군이 충청, 전라지역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따라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농민군으로서는 그 북상로를 차단당하는 것이었으며, 한편 관군과 일본군의 남하를 저지못함으로써 농민군의 작전과 사기를 비롯한 이후의 활동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5) 영동 청산 보은 전투

이 지역은 경상도와 전라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이다. 10월 초에 청안현 영동현 등에서 군기를 탈취하는 사건들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10월 말경에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농민군들이 취회를 거듭하고 있었다. 11월 초순 황간 영동 등지 및 청산일대에서도 농민군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농민군들은 경상지역을 위협하기도 하여 민보군들이 이곳에 들어와 활동을 하였으며, 일본군도 활동을 개시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거괴로 지목되는 최시형이 머물고 있던 지역이었고, 손병희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농민군외에도 반농민군 세력으로 경리청, 청주병영, 옥천의병과 민보군들이 집중하고 있었다. 몇 차례의 전투를 벌이면서 농민군은 다시 보은으로 집결하여 보은 관아를 쳤으며, 관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개입하여 민보군을 지휘하였고, 관군이 이에 가담하였다. 농민군은 부대를 나누어 활동하였고 반농민군에 타격을 가하였으나 그들의 간계로 무너지고 말았다.

3. 경상도지방의 농민봉기

1894년 농민전쟁은 분명히 전국적인 반봉건의 농민항쟁이자 반외세의 민족운동이었다. 동학의 남접계통인 호남지역세력이 이 해의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봉기하면서 주력부대를 형성했지만, 경기 충청도를 비롯한 강원 황해도 지역의 중부권, 그리고 소백산맥을 경계로 호남과 구분되는 영남의 경상도 각 지역에서도 치열한 항쟁이 전개되었다. 경상감사 조병호의 파악에 의하면, 도내 71개 군현 가운데 무려 60여 군현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¹⁶⁾ 특히 영남지방은 조선후기 이래 중앙권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소외된 남

16) 『고성부총쇄록』

인들의 세거지로서, 이들에 의한 향권장악과 그것을 토대로 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어느 지역보다도 철저하게 허부계층에 까지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19세기 말 신분계급적인 측면에서의 봉건적인 모순은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항쟁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1) 동학교세의 확장과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경주지방의 최재우에 의해서 1860년에 창립된 동학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조선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조직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였다. 1894년 봄 농민군의 급격한 세력팽창은 이러한 조직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영남북서부 여러 군현 가운데 예천의 경우는 북접계통의 수접주 최맹순이 1894년 3월 동로면 소아리에 접조직을 처음 설치한 후 불과 수개월이 지난 여름에는 48개 접소에 7만여 명에 달하는 농민군을 포섭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은 각 처에 은둔해 있던 동학교도들을 매개로 대거 합세했던 것이다.¹⁷⁾

다만 경상도 북서부를 비롯한 북접계통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지역에서는 최시형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면서 여름까지는 무장봉기를 자제하고 교세를 확장하는데 주력하였다. 경상도 남부지역에서도 함안 사천 김해군에서는 비록 동학교단의 남북접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봄부터 격렬한 농민항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영남 전 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은 호남지방의 경우와는 달리 여름 이후에 가서야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6월 말 일본군의 경복궁쿠데타 이후 대거 결집해온 농민군세력이 군사편제화하면서 본격적인 무장활동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호남지역의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수시로 접하고 있던 경상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세력은 이 때부터 이미 갖추어진 무장력을 바탕으로, 또한 새로 동학교세에 합류한 농민층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즉각 폐정개혁에 착수하고 동시에 대일전쟁 준비를 수행해 나갔다. 특히 일찍부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평, 낙동, 태봉 등지에 일본병참대가 설치되어 이들 일본군과 잦은 충돌을 빚어왔던 영남의 농민군 세력은¹⁸⁾ 중앙정부

17) 『갑오척사록』

18) 영남지역 동학농민군의 무장활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름 이후 본격화되지만 그 내용에서는 각 지역의 폐정개혁과 아울러 전국적으로 2차 농민전쟁기로 접어드는 9월 이전에 이미 對日戰을 상당한 정도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6월 말 경복궁쿠데타 이후 중앙정계의 재편과 맞물리어 영향을 받았겠으나 지역적으로도 일찍부터 일본군과 충돌이 잦았기 때문이다. 즉 낙동강을 따라 배치된 일본병참대와 주민들의 크고 작은 충돌은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민의 반일 의식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7월 12일 大邱에서는 일본 병참부에서 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토목사업에 강제로 인부를 동원함에 따라 이것에 반발하여 주민 100여 명이 반일 봉기를 일으켰으며, 7월 하순경에는 咸昌 인민들도 일본군의 강제적인 인부동원에 응하지 말 것을 선동하였다.(『시사신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고성부총쇄록』) 8월 초에는 固城에서도 반일 분위기가 조장되면서 일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지방관헌들과 일본인을 반대하도록 동학농민군들이 인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8월 중순경 경상도 북서부 龍宮과 聞慶 사이에 위치한 山陽일대에는 咸昌 台奉의 일본군 병참부를 공격하기 위해 농민군이 집결하기도 하였으며(『갑오척사록』) 실제로 8월 29일에는 문경 농민군 600여 명이 태봉의 일본병참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충주 주둔 일본군 공병대 병력 25명과 접전하여 패하기도 하였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가 일본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자 대일전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일본의 화력에 대항하기 위한 무장력 확보를 위해 관군 및 양반유립을 비롯한 보수세력으로 이루어진 민보군과의 연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봉건적인 지배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찾고자 한 영남의 보수세력은 농민군이 조세납부를 거부하고 官長 및 사대부를 능욕하며 錢財를 탈취할 뿐만 아니라 군기를 약탈하여 무장봉기로 읍내를 점거하는 형태의 폐정개혁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이들은 또한 개화파에 의한 갑오개혁 및 일본세력에 반대하면서도 반일전쟁을 위한 농민군과도 이러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협력할 수 없었다.

영남 북서부의 용궁 상주 선산 지례 성주(이상은 읍내를 점거, 무기를 탈취했던 군현임) 안동 의성 예천 봉화 문경 함창 개령 김산과, 영남 남서부의 함양 하동 곤양 진주 남해 고성(이상 읍내 점거, 무기탈취) 사천 단성 등지에서는 농민군세력이 광범하게 결집된 위에 충청도와 전라도 농민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¹⁹⁾ 이 중 상주 예천 김산의 경우는 이미 사례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농민전쟁의 전개과정과 보수세력의 대응양상이 세밀하게 밝혀진 바 있다.

2) 성주지역의 사례

여기서는 성주지역의 사례의 일단을 소개해보고자 한다(東擾日記, 討匪大略, 歲藏年錄 등 참조). 성주는 낙동강 중류 서쪽에 위치하여 지례 김산 개령 선산 등지와 낙동강을 따라 연결되고 대구부외도 가까우며 또한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전라지역과도 인접해 있다. 이 지역은 고령 함천 등의 지역과 함께 영남에서 가장 땅이 기름져 적은 종자로 많은 수확을 하는 곳으로 옛부터 알려져 있다. 6,7월이 되어 이 지역의 농민군의 활동도 활발해 졌다. 6월 영남북서부의 농민군은 성주 관아에서 동도 수십명을 처형하자 북접교단의 지시

19) 경상도 북서부 지역은 동학의 북접교단에서 조직적으로 선포하여 동학교세가 확대되고 동학농민군의 개혁활동도 대체로 교단의 지시를 계통적으로 받아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남서부 지역의 경우는 교단 조직의 확대과정조차 명확하지 않지만 1894년 여름 이후의 각 지역의 농민군 활동에서는 전라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지원을 뚜렷하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9월 1일에는 順天 嶺湖大都所의 농민군 부대가 섬진강을 건너 河東을 공격 점령하여 읍내에 都所를 설치하고, 5·6일 머물다가 일부는 湖南으로 되돌아 가고, 나머지는 嶺湖大接主 金仁培를 따라 晋州로 들어가 9월 8일에는 진주 관내 73개 면 주민들이 각 면마다 100명씩 죽창을 들고 읍내 장터에서 都會를 개최하는데 함께 하였으며, 이때 이 곳에 忠慶大都所가 설치되었다(『오하기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또한 9월 11일에는 호남 농민군 19명이 경상도 南海를 공격하여 吏廳을 장악하고 잡혀있던 농민군을 석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읍폐 교정에 착수하였고, 9월 15일에는 전라도의 광양 순천 농민군 수천 명은 昆陽 읍성으로 들어와 조총 20자루를 탈취하여 진주로 향하다가 진주 접경지역 完沙驛에서 하동 농민군 수천 명과 합류하였으며, 9월 18일에는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이끄는 천여 명이 다시 진주로 들어갔다(규장각고문서). 또한 10월 19일에는 일본군과 관군이 호남의 농민군이 하동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동으로 진격하기도 하였다(『釜山府史原稿』). 진주 하동 지역의 농민군은 토포사석영이 이끄는 대구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고 농민군 대장 嶺湖大接主 金仁培와 首接主 劉夏德은 평양으로 물러났으나 평양의 관리와 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체포되어 12월 7일에 처형되었다(『오하기문』, 『순무선봉진등록』). 이처럼 영남 남서부 지역의 본격적인 농민군 활동은 이들 지역 자체의 농민군 성장을 토대로 호남지역 농민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결되고 있었다.

를 거역하고 상주 김산 농민군까지 합세, 무장봉기하여 읍내 민가를 불태우고 관아를 점거하였다. 특히 성주와 하동은 농민전쟁기 읍내 보수지배층이 가장 참혹하게 보복을 당한 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이다.²⁰⁾

이후 이 지역은 농민군이 우세한 상황 하에서 관의 협조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8월 말의 상황을 통해 조직적인 농민군의 폐정개혁 상황을 볼 수 있다.

인근의 금산 개녕 선산 인동 지례 등에서 농민군의 무장봉기가 일어나면서 8월 23, 24일에는 지례 김천(김산) 등에서 수십명씩 무리를 지어 총 창 환도 등으로 무장을 하고 성주로 들어온 농민군이 시장 변두리 接主 文龍元가에 취회한 이후 개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농민군은 進士, 參判宅, 座首家 등에 들어가 이들을 결박 구타하고 본인이 없을 경우 그 권술을 잡아 갔으며 錢財(몇 백량에서 누천량에 이르기 까지)를 색출하였다. 이 시기 영남지역에서 양반지주 뿐만 아니라 상인 등을 포함한 饑戶부민들에 대한 농민군의 討財활동은 가장 일반적인 활동 중의 하나였다. 당장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각 처에 빚을 내어서 얼마라도 마련해 주어야 풀려나올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농민군은 평민들 사이의 私債문제도 관여하고, 逼葬人塚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관아와 협의하여 賦稅문제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성주군에서는 1895년부터 結價는 매결 15兩, 戶布는 매호에 봄 가을로 각각 6錢씩 거두기로 하였다.

이들 무장농민군의 지도부는 尙州 아전 申某와 金泉에 사는 曹春三과 具哥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군의 농민군이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농민군의 종적 조직을 볼 수 있다. 상주지역의 대접주가 이 지역의 농민군활동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의 취회에서는 두 갈래로 들어온 무장한 동학농민군이 중심이었으나 이튿날 40명으로 늘어나고 다시 이틀 후에는 100여 명으로 그 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다. 농민군의 기세에 놀려 화를 면하기 위해 이름만 가탁한 중간부류들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은 대개 자원해서 입당하고 있으며, 인근 각 읍의 경우와 같이 '흉년에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과 약한 건달류', 그리고 鄉吏 등에서 '巨族之家'까지 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농민군의 연합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같은 북접교단 관할의 농민군 가운데서도 계통별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성주지역 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대응은 읍의 아전과 장교 및 군로와 사령을 중심으로 한 官屬과 樵軍, 그리고 雇奴輩 등으로 구성된 邑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7일 저녁, 성문 밖 松臺 근처에 기백 명의 읍군이 모여 농민군을 기습하고자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농민군은 각기 무기를 들고 한편에서는 관문으로 난입하여 獄門을 부수어 찢 및 邑의 죄수를 방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軍器庫를 부수어 창과 총 및 화약과 총알 등을 꺼내어 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牧使는 首校 등으로 하여금 급히 나팔을 불고 북을 치게 함으로써 읍군의 기습이 일제히 이루어졌다. 읍의 수령 및 관속의 협조를 지나치게 믿고 방심하고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런 읍군의 기습으로 농민군 18명이 타살되자 농민군은 대오를 갖추기도 전에 흩어지고 말

20) 그 중 피해가 큰 성주 하동에는 국왕이 내탕금 1만 냥을 내릴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다(『일성록』, 『갑오살기』).

왔다. 읍군의 보복도 철저하였다. 접주 문용원 및 서달용의 집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농민군에 밀고한 巫女 進秋의 집과 망건장수 張哥의 집도 방화되었다. 이후 官屬 및 村民丁을 중심으로 읍군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수성케 하였으나 경비문제로 인해 9월 2일 이후에는 민정들을 내보내고 각 반 관속으로 하여금 각 청을 수직케 하였다.

성주지역의 경우 자체의 농민군조직보다는 상주 등 북접계통의 여러 군에서 보내진 연합농민군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폐정개혁에는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응하는 반농민군 세력은 유럽 등의 양반계층보다는 읍 관속으로서의 향리층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2차 농민전쟁 시기에도 경상도내에서의 각 지역별 연합농민군은 호남 호서의 주력부대와 합류하지 못하고 대체로 각 지역의 관군 및 민보군 그리고 일본군과 지역적인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12월 경에는 전체적으로 패퇴하기에 이른다. 영남의 농민군을 진압한 군사력으로는 관의 정규 부대인 대구감영하의 남영병과 정부의 주도 하에 각 지역에서 보수적인 양반유럽 및 일반 민으로 일시적으로 구성된 소모영 등의 병력과 일본군이 주축이었다. 다만 영남 남서부 지역의 격전지였던 진주 하동 및 전남 광양의 마지막 전투에서는 전라좌수영병이 일본군과 협력하여 농민군을 토벌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4. 강원도 황해도지방의 농민봉기

강원도와 황해도지방에서의 농민전쟁은 제2차 봉기시기인 1894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²¹⁾ 이 곳들은 청일 전쟁의 수행지였기 때문에 농민군 활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일본군의 동향과 관련시키지 않으면 그 전체 면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본군은 동학농민전쟁이 강원도 이북지방에까지 번짐으로써 러일전쟁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삼남지방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포위망을 구축하여 삼남지방의 농민군이 강원도 등의 산악지대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²²⁾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兩道에서는 삼남지방과 다른 성격의 농민전쟁이 전개되었다.

21) 강원도 황해도 지역에서 농민군의 활동이 남부지방의 제 2차 봉기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이유로, 한우근은 이들 지역에는 동학교가 미처 널리 유포되지 않았던 것과, 청일 양국군의 교전지역이었던 점을 들고 있다(한우근, 『東學農民軍의 蜂起와 戰鬪 -江原 黃海道の 경우-, 『한국사론』 4, 1978).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특히 강원도의 경우) 동학은 일찍부터 전파되고 있었다. 남부지방의 동학의 교세처럼 널리 확장되지 않았지만, 동학의 조직이 갖춰져 있었다. 또 이전부터 빈번하게 일어난 민란의 경험은 이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황해도 지역의 김창수(김구)와 강원도 지역의 차기석이 북접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농민군이 2차 봉기시기에 이르러서야 봉기한 것은 이 지역에 전파된 동학이 북접과 연결되어 있었던 점에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機密送第 79호, <東學黨의 件>. 일본군은 농민군을 전라도 서남방면으로 몰아서 포위한 다음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군대를 東路 西路 中路로 나누어 파견하였는데, 東路의 군대를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농민군을 中路와 西路방면으로 도망치게 하여 이들의 포위망을 점차 좁혀나갔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諸第 79호, <公州救援要請과 江原 咸鏡慶尙道方面으로의 賊徒侵入警告>).

1) 강원도지방의 농민봉기

민중세력에 의한 반봉건투쟁은 강원도도 예외에 속하지 않아,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10년전인 1884년부터 1894년까지 강원도에서 발발한 크고 작은 민란은 8개 지역에서 30여회 이상이나 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²³⁾ 이는 이 지역의 봉건적 모순이 극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었던 것을 반영해 준다.

동학이 강원도 지역에 처음으로 전해진 것을 1869년 3월, 동학 2세교주인 최시형에 의해서였다. 최시형의 포교로 1870년대의 동학교세가 바로 강원도의 산악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호서 호남지역으로 교세가 확장되고 그 중심축도 이동해 버리자²⁴⁾ 강원도 지역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던 듯하다.²⁵⁾ 강원도에서 본격적인 동학교도의 봉기는 1894년 여름에 오덕보에 의한 포교활동에 의해서였다.²⁶⁾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때, 민란으로 다듬어진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의식은 일찍부터 전파된 동학의 조직과 연결되면서 농민전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일 강원도 농민군의 총수령이 된 차기석이 최시형의 영향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 동학농민군은 북접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봉기과정 중의 북접의 교단과 직접적인 연결점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북접교단과는 독자적으로 봉기하였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동학농민군의 주축은 초기에는 강원도 지역 자체내의 세력하다가 인접한 충청도 경상도 농민군의 세력이 가담하여 형성되었다. 湖中の內郡인 堤川 淸州 등지의 농민군은 영월 평창 등지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수천명의 세력으로 강릉부 大和面에 진격하였다.²⁷⁾ 또한 예천에 근거지를 둔 관동포는 강원도 평창 등지까지 연관을 맺고 있었다.²⁸⁾ 이처럼 농민군은 도단위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강원도와 이웃한 충청도 농민군이 합세하였지만 그 중심세력은 강원도 지역의 농민군이 주축을 이루어 독자적으로 농민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농민군의 요구사항이 폐정개혁의 측면에 맞춰져 있음을 볼 때, 강원도 농민봉기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에서가 아니라 봉건적 모순에 시달리는 농민의 고통을 그대로 반영하여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호남지방 농민전쟁의 제1차 봉기의 성격과 같은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봉기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 농민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활약하였다. 하나는 1894년 9월 4일 충청도의 제천 청주세력과 연합하여 강릉관을 점령한 바 있는 정선 평창 영월 원주 등의 영서 남부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흥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부 내륙세력이 그것이다. 모두 영서에서 활동하여 영동, 즉 감영이 있었던 강릉부로 진격하고자 하였다.

23) 金洋植, 『高宗朝(1876~1893) 民亂研究』,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24) 朴孟洙, 『東學農民革命에 있어서 東學의 役割』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1993

25) 그러나 강원도 지역의 동학교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1893년 4월 보은집회 당시에 강원도의 原州接에서 참여하였고 그 수도 200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 숫자는 충청도 靑安接 100여명, 鎭川接 50여명, 청주접 290명 등에 비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 (『聚語』)

26)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十一日 關平昌郡.

27) 『東匪討論』

28) 『歲藏年錄』, 『甲午斥邪錄』.

중부내륙세력은 10월 11일 홍천 내면의 車基石과 접주 朴鍾伯의 지휘하에 천여명의 군세로 홍천현의 東倉을 돌입하여 倉廩을 방화하였다. 이어 이들은 강릉으로 진군하다가 10월 21일 맹영재가 이끄는 관군과 홍천 장야촌에서 마주쳐 서석전투를 치루었다. 여기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내면으로 근거지를 옮긴 뒤, 정선 평창의 두읍에서 강릉부를 점령하고 후퇴한 영서 남부세력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 차기석은 강릉 양양 원주 횡성 홍천의 농민군을 총지휘하는 다섯 읍의 접주로 대두되었다.

평창 후평에는 천여명의 군세를 이루어 강릉부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여기에서 농민군은 각 부군현에서 모집한 관군과 일본군 丁中隊와 2시간에 걸친 접전을 벌였다. 여기에서도 패배한 농민군은 藥水包로 재결결하였으나, 11월 9일부터 14일에 걸친 관군과 일본군측의 사면포위작전에 휘말려 내면 창촌에 이어 원당리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이 평창전투를 고비로 강원도의 농민전쟁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후에 관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던 농민군을 수색하여 여지없이 체포하여 효수하거나 효유 귀화시켰다. 평창 전투 이후로 간헐적인 잔여 농민군 세력에 의한 봉기가 있었으나, 이미 태세는 바꿀 수 없었다.

이 지역에서 일본군의 활동상은 미약하다. 반면 민보군을 주축으로 한 관군의 활약이 대단하여 농민군 토벌부대의 주축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군이 삼남지역의 농민전쟁에 치중하여 산악지대인 이곳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였던 점이다. 일본군은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를 그 경계선으로 포위망을 구축하여 농민군을 서남해안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세워 농민군에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⁹⁾ 다른 하나는 이 지방에서 면리단위까지 오가작통법의 실시를 통해 일반 농민을 완벽하게 장악한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책임자인 면임과 풍헌 약정, 기타 제 소임들에게 군정 차출의 임무를 지우고, 만약 어기는 경우 군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였다.³⁰⁾

이는 농민군의 끊임없는 대원보충의 기반을 흔들리게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야기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 지역의 향촌지배세력인 유림들이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관군으로는 농민군을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일본군의 여력이 강원도에까지 미치지 않자 향촌사회에서 유력한 유림을 주축으로 민보군을 창설하여 농민군에 항전하도록 하였다.³¹⁾ 유생들과 양반지주들의 적극적인 관군후원은 곧 강력한 민보군의 탄생을 야기하였고, 일종의 항병조직을 만들어낸 것이다.

2) 황해도지방의 농민봉기

황해도 지역은 1894년 9월경(음력)부터 함경도와 접경지대인 내륙 깊숙한 지역을 제외한 황해도 전 지역에

2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仁站發甲第43호, 『洪州附近東學黨征討 및 視察所見에 관한 山村大尉의 報告寫本 送付』. 이처럼 일본군은 강원도보다는 남부지방의 농민군 공격에 주력하고 있었다.

30) 『東匪討論』. 이 자료는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이 지방행정의 말단인 面里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밀히 보여주고 있다.

31) 『東匪討論』, 『臨瀛討匪小錄』. 이러한 점은 황해도 지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황해도는 일찍부터 양반토호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으로 민보군의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민보군의 활동여부는 곧 그 지역의 향촌지배세력의 존재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 약 3개월에 걸쳐 농민군이 봉기하였다. 해주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녹산 송림 강령, 서쪽으로는 웅진 장연 죽산 등, 북쪽으로는 송화 신천 문화 등지에서 동학군이 봉기할 정도로 황해도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대단히 두드러진 곳이었다. 또한 전라도에 이어 유일하게 해주 監營과 웅진에 있던 水營이 모두 농민군 수중에 떨어진 지역이기도 하다.³²⁾

황해도 지역에 언제부터 동학이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창수(김구)가 최유현 오응선과 함께 보은에 있던 최시형과 손병희등 북쪽의 동학교단측 지도자와 만나기도 하는 등³³⁾ 황해도 동학군이 북쪽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과정에서 북쪽의 지도를 받으며 봉기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당시 농민군을 진압하던 일본군은 농민군 가운데 진정한 동학교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⁴⁾

황해도도 봉건적 모순에 대항하여 민란이 빈번히 발발한 지역이었다. 갑오년 농민전쟁 직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1893년 8월에 재령에서, 11월에는 개성과 황주에서 민란이 발생하였고, 황주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1894년 1월에 재차 봉기하였다.³⁵⁾ 이처럼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되어 오던 민란들이 1894년 서로 연계를 가지면서 광역화한 것이었다. 한편 동학농민전쟁 당시에는 동학교도 이외에 포수와 신천 장연 송화 등지의 사금채집광부들이 다수 가담하여 농민전쟁의 참여계층도 넓어지고 있었다.³⁶⁾

황해도지역에서 농민군이 봉기한 것은 제2차 봉기 시점인 1894년 가을무렵이었다. 농민군은 9월경부터 여러 군에서 봉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0월 25일(이후 양력) 수만명이 집결하여 먼저 강령현을 점령하여 군기를 획득한 후에 해주성으로 진격, 해주성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해 해주감사는 營奴廳에서 기거할 정도로 해주성의 행정은 농민군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11월 7일에 농민군은 동서로 부대를 나누어 해주성을 나왔다. 이 때 농민군이 해주감사(鄭顯爽)의 직위를 인정하며 다시 해주감사에게 정사를 볼 것을 요구하고 성을 되돌아 나온 것을 볼 때,³⁷⁾ 당시만 해도 아직은 부패한 내정에 대한 개혁요구가 주요한 봉기동기인 것으로 생각된다.³⁸⁾

그러나 일본군의 출동으로 이후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청일전쟁의 교전지였던 탓으로 황해도민의 대일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차에,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의 토벌은 황해도 농민봉기의 성격을 대일항쟁으로 바꾸어 놓았다. 11월 23일 재령의 해창을 농민군이 공격하여 일본의 민간인 5,6명을 습격, 이 중에서 2명이 피살되자 일본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황해도 지역은 청일전쟁이 직접적으로 발발하였던 지역이기

32)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33) 김구, 『백범일지』.

34)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여기에서 일본군대의 鈴木少尉는 眞正東學黨, 一時的 東學黨, 僞東學黨으로 농민군을 분류하였다. 『通商彙纂』 한국편2, 제22회東學의 鐵釘에서도 강원 경기이북의 諸道에서의 진정한 東徒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35) 『日省錄』 고종 30년 8월 12일, 11월 24일, 고종 31년 1월 21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發第20호 在京城日本公使館通常報告제4호, [黃海道 黃州民擾의 件]

36)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사금채취가 금지되자 살길이 없어진 사금채집광부들은 농민군에 많이 가담하였다.

37) 『甲午海營匪擾顛末』(『東學亂記錄』 하권에 수록).

38)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三谷儒生等單子]에서는 수령의 탐학과 간할한 吏隸層의 농간, 요역의 증가를 起鬮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때문에 도내에는 각 지역에 일본군 병참부가 소재해 있었고, 여기에서 평양에 주둔한 수비대와 남부(충청도) 농민군 진압부대였던 용산에 주둔한 부대까지 가담하였다.³⁹⁾

해주에서 나온 농민군은 두 부대로 갈라져서 하나는 장연에서 봉기한 농민군을 흡수하여 재령을 거쳐 평산으로, 한 부대는 해주에서 평산으로 집결하였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산을 둘러싼 주변지역에서 농민군은 일본군과 대전하여 결국은 패퇴하고 말았다. 다시 농민군은 부대를 수습하여 해주성으로 진격, 5,6만명의 병세로 취야장 북쪽에 주둔하였다. 해주 인악의 수접주와 평산수접주는 서로 통문을 돌려서 해주의 서쪽과 동쪽의 길로 나누어 협공하여 해주감사를 사로잡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2월 23일 해주 서남쪽에 진을 친 동학농민군과 이 소식에 접해 해주로 진격한 일병 사이에 무려 5시간에 걸친 해주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막강한 일병의 화력에 농민군은 결국 물러서고 말았다. 이 때 농민군은 해주성문 밖에 6,7천명과 해주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1만명, 또 30리 떨어진 취야장에 1만 3,4천명 등 모두 3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해주에서 퇴각한 농민군은 장연으로 다시 집결하였다. 이어 봉산병참부의 일병과 장연에서 격돌하고, 1895년 1월 5일에는 농민군은 사리원에 진격하여 우마 30두를 빼앗아 봉산에서 30리 떨어진 정방산을 기습, 무기고를 탈취한 뒤 은파로 향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일병이 진주해오자 농민군은 후퇴하여 정방산, 사리원, 재령 방면에서 재집결하였다.

농민군은 정방산의 무기를 운반하여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때마다 일병의 저지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듯 일병의 철저한 무기조달 차단과 송화 온정에 소재한 도창 제조소의 파괴, 장연에 소재한 화약 제조소와 灰汁取擻所의 파괴로 인해 농민군의 기세는 점차 꺾여 갔다. 이후 1월 8일에 은파에서, 30일에는 은율에서 소규모 접전 끝에 농민군은 장연방면으로 후퇴하고 해주방면은 일병의 세력권으로 포함되었다. 일본군은 장연에 주둔한 농민군을 포위 협격하기 위해 광탄→은율→송화→장연, 해주→장연으로 각각 나누어 진격하였고, 결국 농민군은 해산하고 말았다.⁴⁰⁾

황해도 지역은 양반토호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으로 민보군의 활동도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해주감사의 보고가 중앙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교통이 두절되어 중앙정부에서 관군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였고,⁴¹⁾ 농민군 토벌의 모든 지휘권은 일본에 있었다. 농민군은 자체내에서 탄약고, 화약제련소 등의 시설을 갖출 정도로 자립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부대로 적을 치는 게릴라전을 펼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의 진압개입에 따라 농민군의 타도대상과 개혁요구도 농민군봉기 초기의 폐정개혁에서 대일항쟁으로 변화되었다. 당시 지방관들의 대일인식도 꼭 친일의 경향을 띄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그것은 平山府使 李彰烈이 黃海道監司의 농민군 說諭방침에 부응하지 않고 管内에서 봉기한 東徒를 토벌하는데 진력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된 사건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黃海道監司인 趙熙一은 동학도를 토벌하는 대신 이들을 타

3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40)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41) 『甲午海營匪擾顛末』.

일러서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일본군의 討滅작전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일본은 조희일의 설
유계획을 동학도의 봉기를 방입하는 것으로 몰아부쳤으며, 평산부사를 옹호하고 다시 복직되도록 힘썼다.⁴²⁾

이렇듯 친일관료를 면직시킨 황해감사의 정책에는 민족의식이 내포되어 있었다. 평산부사 이창렬을 제외
한 황해도 지방관료들 역시 일본에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다.⁴³⁾

4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黃海道 東學徒討伐狀況과 平山府使 留任件]

4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위와 같음. 일본군은 東徒의 巨魁 林某리는 자의 포박을 각 府使 郡守 縣監들에게 조희하였는데
도 후환이 두려워 그를 포박하는 자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실정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체포한 동학도들을 그
지역 지방관 수중에 넘기지 말도록 하라고 각 부대에 지시하였다.

4. 농민전쟁의 지도부 연구

- 전봉준 · 김개남 · 손희중을 중심으로 -

- | | |
|--------------------|---------------|
| 1. 머리말 | 4. 기타 지도부의 성향 |
| 2. 지도부의 형성 단계 | 5. 맺음말 |
| 3. 세 지도자의 출신배경과 역할 | |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소장)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진행과정에서는 여러 세력이 참여했다. 그 참여계층이 빈농 친인중심이라는 단순 구분만으로는 그 본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시 말해서 빈농주도설 또는 친민주도설이라는 도식으로는 그 성격규명에 한계를 지니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세력을 일단 주체세력과 지도부로 나누어 이 문제의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첫째 주체세력은 사회신분과 경제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사회신분으로 따져 볼 적에 천민인 노비·백정을 기본축으로 해서 몰락양반(소외된 향반 포함)과 평민 상민이 이 범주에 든다. 여기에 부연해 들 것은 향리와 군교(軍校) 등은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들이 비록 동조한 경우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부적이었다.

경제수준으로 따져볼 적에 중소지주·빈농·소상인·어민·고공(머슴)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부세력으로 무리배 유리민을 들 수 있다. 이들 주체세력은 가장 큰 모순의 담지자로 농민전쟁의 수행과정과 집강소 통치기간에 기본동력이 되었다. 접주·집강은 그 사회신분과 경제수준을 뚜렷이 구분할 수 없으나 일선 행정의 감독과 호위를 맡은 성찰(省察)은 대부분 상·천민으로 임명되었다.

흔히 '동학'에는 반불입(班不入) 사불입(士不入) 부불입(富不入)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기 교단의 경우를 말한 것이지, 후기 교단 또는 농민전쟁 수행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¹⁾

1) 오지영의 [동학사와 이든화의 「천도교 창건사」에 나옴. 그 기본 속성을 대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됨.

둘째 지도부는 이와 달리 향반·중소지주·농촌 지식인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직접 모순의 담지자이기보다 모순을 해결하려는 계층이었다. 특히 몰락양반과 향반층은 향권(鄕權)에서 소외된 경우도 있으나 경북궁 구태타와 2차봉기무렵 항일의식이 고양될 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체세력의 동력을 끌어내거나 조직화하여 농민전쟁을 유발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폐정개혁을 주도하고 그 동기와 명분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신분으로나 경제수준으로 따져볼 적에 위의 주체세력과 상당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남접 5대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최경선·김덕명은 사회신분으로는 향반 또는 향촌에서 행세하려는 신분이었으며 경제수준으로는 전봉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소 지주출신이었다. 그리고 모두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물론 각지의 접주 또는 집강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료의 장벽이 가로 놓여 있어 그 사실 증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천민(常賤民)²⁾ 출신의 접주, 집강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의 하나로 향촌의 질서를 바로 잡거나 물질·인적 동원에 이들의 능력이 제한 또는 원활치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에 비해 지도부를 구성하는 층은 이런 면에서 상당한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농민전쟁의 유발과 진행과정에서 남접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남접 지도자를 그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북접의 지도자는 그 활동기간·영향력·의지로 보아 한시적이고도 제한적이어서 일단 기타 지도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남접 세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출신성분, 지도노선, 지향, 성격등을 일단 규명해 보아 농민전쟁의 성격규명에 접근해 보려는 것이다.

2. 지도부의 형성 단계

지도부는 운동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는 동학의 조직과 봉기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겠다.

1) 동학 교단과의 연관

동학 조직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884년(갑신) 최시형이 6임의 제도 곧 동학의 포덕을 위해 교장(敎長) 교수(敎授) 도집(都執) 집강(執綱) 대정(大正) 중정(中正)을 둔 때부터였다. 이 제도가 약 5년간 계속되었다.”³⁾

1891년 전라북도 두령 윤상오, 전라좌도 두령 남계천이 있었는데 이어 남계천을 전라좌우도 편의장을 삼

2) 양천(良賤) 평민(平民) 상천(常賤)등으로 구분되는 용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상놈·천민의 뜻으로 썼다.

3) 천도교 교회사 초고 포덕 25년도

있고⁴⁾ 계속해서 각지에도 편의장, 편의시를 두었다. 이무렵 교단 중앙에는 김연국·손천민·손병희 등이 지도자로 부상했고 1892년의 공주 삼례집회때에는 서인주(장옥)·서병학이 지도부로 부상했고 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 때에는 김연국 등 온건파와 서병학 등 강경파가 공동으로 추진했고 뒤이은 보은집회에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은집회 무렵에 각 포(包)의 대접주를 임명하였는데 손병희·임규호·손천민·임정준·박석규·이원팔·남계천·이관영·박인호 등이었다.⁵⁾ 여기에 남접 지도자는 남계천인 점, 북접의 강경파 서인주·서병학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그 당시 동학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로 급속히 번지고 있었는데 전라도는 9개 포중에서 1개 포조직의 책임자만을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서인주를 비롯, 후기 남접 지도자가 한 명도 대접주에 임명되지 못한 사실에 유의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남접조직의 형성

남접의 형성은 적어도 공주 삼례집회단계에서 태동되었고 보은집회·원평집회 단계에서 뚜렷이 형성된 것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다. “처음 동학에서 그 당을 ‘포’라고 불렀는데 법포(法布)와 서포(徐布)가 있었다. 법포는 최시형을 받드는데 시형의 호가 법현이기 때문이다. 서포는 서장옥을 받드는데 장옥은 수원 사람이다. 장옥과 시형은 모두 최제우의 학을 따랐는데 제우가 죽자 각각 도당을 세워 사사로서 서로 전수하면서 포덕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모포’(某布)라고 서로 표지로 나타냈으며 서포가 먼저 일어나고 법포가 뒤에 일어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서포를 기포(起布)라 하였고 법포를 좌포(坐布)라 하였다. 전봉준 등이 난을 일으킬 적에는 모두 서포였다.”⁶⁾

여기에서 전봉준 등이 모두 서장옥 계열임을 밝히고 있다. 또 이런 기록이 있다. “최시형의 제자로 서장옥이라는 자가 있는데 학력과 재주가 모두 출중하다. 그리고 서장옥의 제자로는 전봉준·김해남(金海南: 김개남의 오류-필자)·손화중 등이 있다. 이들 제자들은 서장옥의 학력과 언변술이 모두 최시형보다 뛰어났다고 해서 마침내 남접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최시형의 제자는 그의 스승을 애써 북접이라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동학당에는 남접과 북접의 명칭이 생겼다. 남접은 충청도의 서부와 전라도의 전부를 총괄하고 북접은 충청도의 동북부와 그 이동·이북을 총괄하는 것 같았다.”⁷⁾

여기에는 세 지도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지휘지역까지 적고 있다. 그러면 세 지도자와 동학과의 관련은 어떠했던가?

손화중은 10대부터 10승지를 찾아 여러 곳을 다녔다 한다. 그의 동학 입도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

4) 앞 책 포덕 32년도

5) 천도교 교회사 초고 포덕 34년도 및 「서천교역사」 기사년도

6) 황현의 「오하기문」수필.

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24쪽.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번역본)

으나, 1880년대 중반으로 추측된다. 이때는 최시형이 교단의 호남 책임자로 남계천을 임명(편의상)하였으며 김낙철 등이 전라도의 접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손화중은 차츰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처음에는 정읍, 다음에는 고창·무장 일대에서 동학 포덕에 열중했다. 그리하여 1880년말과 1890년초에는 유명한 접주로 부상했다.⁸⁾

김개남 또한 어느 때에 동학에 입도했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1892년 6월 최시형이 전라도를 순회할 적에 태인 지금실의 김기범(김개남의 자)의 집에 머물렀고 이때 김기범은 하의(여름옷)를 지어 바쳤다고 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최시형은 금구의 김덕명의 집에 머문 적도 있다. 그후 그는 태인접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전봉준은 가장 늦은 1890년대 초에 동학에 입도한 것 같다. 전봉준은 동학의 교리는 ‘혹호’ 한다고 했으나 그 포덕에는 종사치 않았다고 하였다.⁹⁾

그는 흔히 고부접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차 사료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최경선을 고부접주로 일컫기도 한다. 군 단위의 접주인지, 지역단위(면리)의 접주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만큼 그는 동학과 밀접한 관련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위 세 지도자는 삼례집회 광화문 복합상소를 벌일적에 여기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손화중·김개남은 여기에 참석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전봉준은 여기에 참여치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어 원평집회와 보은집회가 있었을 적에 이들 세 지도자의 행방은 상당히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보은집회 도중에 10대 대접주를 임명했는데 호남대접주에는 여전히 남계천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독자적인 남접이 형성되어 갔다.

3) 운동 단계에 따른 지도자 부상

1893년 3월의 원평집회는 분명히 보은집회에 맞서 강경노선을 표방한 것이었다. 따라서 세 지도자, 적어도 전봉준, 김개남은 보은집회에 참여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손화중을 보은집회의 귀추를 엿보기 위해 파견했다는 설이 있다.¹⁰⁾

1893년 1월, 전봉준 등이 원평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울 적에 북접교단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법소(法所)와 도소(都所)를 정하고 각지의 접주를 본포(本包), 전라도는 남계천 지휘체계에 소속시켰는데 청주의 손천민, 옥천의 박석규, 보은의 임규호, 예산의 박희인, 문의의 임정준, 청산의 박태현, 부안의 김낙철, 무장의 손화중, 남원의 김개남, 청풍의 성두환, 흥천의 차기석, 인제의 김치운 등이었다. 이는 “전봉준이 사사료이 교도를 빼앗아 전라도 금구군 원평에 주재하기 때문이었다” 하였고 이어 “이때에 전봉준, 김개남이 호남지방에서 스스로 교중(敎衆)을 거느리고 혹 모이기도 하고 혹 흠어지기도 하면서 갑오년에 이르렀다”¹¹⁾고 하

8) 최현식의 「갑오동학혁명사」참고

9) 전봉준 공초

10) 정창렬의 「갑오농민전쟁 연구」와 우윤의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참고

11) 「시천교 역사」계사년조

였다. 본포에 소속시킨 접주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가 대상이었고 여기에 전라도에서는 김낙철, 손화중, 김개남을 지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 김개남은 여기에 굴치 않고 새로운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운동이 단계적으로 상승되면서 그 지도 노선이 들어나고 지도자의 부상이 상반되고 있었다. 전봉준은 1893년 사발통문을 통해 농민군의 행동목표를 설정할 적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 서명자중에 최경선·송대화·손여옥·황찬오·송주성·송주옥·김도삼·정종혁 등은 1~2차 봉기때에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또 대부분 나주 초도영에서 처형당하였다.

고부봉기 단계에서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최경선, 송대화 등 사발통문 서명자들이 중심 역할을 했다. 이어 무장에서 연합전선이 형성되어 본격적 농민전쟁이 벌어지고 백산의 호남창의대장소가 정식 조직되었을 적에는 전봉준을 대장으로 하여 손화중, 김개남의 서열과 김덕명·오하영·최경선·송희옥·정백현 등의 부서가 짜여진다.¹²⁾ 이렇게 해서 세 지도자가 확고히 부상하였다. 세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은 농민전쟁이 끝날 때까지 확고하게 이어진다. 그리하여 복잡은 물론, 관변이나 일본군측에 의해서도 계속 주목되고 추적되었다.

3. 세 지도자의 출신배경과 역할

동학농민전쟁과정에서 일어나 싸움을 벌인 것은 서포라 했으니 서장옥이 그 대부분이다. 서장옥을 정점으로 하여 고찰할 적에 10대 지도자, 5대 지도자, 3대 지도자를 흔히 떠올린다. 3대 지도자라면 물론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이요, 5대 지도자라면 여기에 최경선 김덕명을 포함시키는 것이요, 10대 지도자라면 5대 지도자에서 이방언 김인배 손병희 차기석 이용구(또는 박인호)를 꼽을 수 있겠다. 10대 지도자는 전 과정의 역할과 일정지역 또는 일정전투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5대 지도자는 기본전선의 역할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면 3대 지도자의 출신배경과 역할, 그리고 갈등과 성격을 아울러 살펴 보기로 한다.

1) 전봉준의 경우

전봉준(1855~1895)은 고창현 덕정면 당촌 태생이다. 고창현과 무장현 일대에는 천안전씨 중의 문효공파(文孝公派) 삼재공파(三宰公派) 등 5개파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전봉준은 최근 문효공파로 밝혀졌으며 고조까지 벼슬하지 못한 향반(또는 평민)의 위치를 겨우 유지하는 정도의 신분으로 나타난다.¹³⁾ 특히 경제적으로 아주 몰락하여 어릴 적부터 여러 곳을 유랑하는 생활을 하였

12) 오지영의 「동학사」등.

13) 「천안전씨 문효공파보」. 1886년의 「신보」에는 송시열의 후예로 대사헌을 지낸 송병선의 서문이 있다. 또 그의 태생지는 원래 고창출신인 오지영의 「동학사」에 기재되어 있다. 이기화의 「전봉준의 고창 태생설에 관한 연구」참고

다. 그의 아버지도 훈장이나 이장으로 생계를 꾸렸고 전봉준도 때론 서당교육을 받으며 훈장, 풍수, 대약(賣藥)으로 생계를 이었다.

그는 이렇게 유랑생활을 하면서 태인의 김개남·최경선, 정읍의 손화중·차치구, 무장의 오하영·정백현, 고부의 송대화, 금구의 김덕명, 삼례의 송희옥 등을 친구 또는 후배로 교분을 맺었다. 특히 거사 당시 처가인 송씨들의 대거 참여가 주목된다. 그가 어느 때부터 변란을 꿈꾸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나 늦게 잡아도 30대에 조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직계로 끌어들이는 송대화 정백현 임오남 등의 청년그룹이 일선 행동대로 움직인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2) 김개남의 경우

김개남(1853~1894)은 태인현 산외면 동곡리 윗지금실에서 태어났다. 이 일대는 도강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었는데 벼슬을 별로 누리지는 못했으나 토호로 군림하는 세족(世族)이었다. 그의 아버지 대흠은 상당한 지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세째 아들로 태어나 40여 마지기(또는 40석의 소출의 제급을 받았다 한다.¹⁴⁾ 그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서당교육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년시절부터 외지로 돌아다녔다 한다. 그는 이사를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전주 등지로 출입하면서 전주 영장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김시풍이나 낙안군수를 지내고 같은 고을 산내면 중송리로 이거해온 임병찬 등과 교류했다 한다. 이는 그의 출신 배경이 미천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 뒷날 도강 김씨들이 집단으로 농민전쟁에 가담한 사실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손화중의 경우

손화중(1861~1895)은 정읍의 과교리에서 태어났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공을 인정받은 손홍록의 후예이다. 이들 손씨는 정읍 일대의 사족으로 대우받았고 혼맥도 울산 김씨, 고흥 유씨 등 토반과 이어졌다. 그의 증조 기일(基一), 조부 석철(錫喆)은 처사 문행(文行)으로 명망을 얻었으며 또 대지주로 행세했다.¹⁵⁾ 그의 아버지 호렬(浩烈)은 사족 지주로 지방의 향권(鄉權)에 참여하는 인물이었으나 장자인 손화중은 청년시절 출입이 잦았고 일찍 동학에 입도하여 고향일대에서 포덕에 열중했다. 그런 탓으로 농민전쟁 수행과정에서 이들 손씨들도 대거 참여했다. 손화중은 장자로 아버지가 1894년 3월에 죽자, 많은 유산을 물려 받았다. 경제 수준으로 따져 볼 적에 중간 이상 지주층이었던 것이다.

14) 방손 김동기 및 손자 환옥의 증언

15) 「밀양손씨세본」, 최현식의 「갑오동학혁명사」참고 재판기록에는 전봉준, 손화중을 모두 ‘평민’으로 기재하고 있다.(東學關聯 判決文集, 충무처)

4) 세 지도자의 역할과 노선

전주화해(和解)이후 집강소 기간을 거치며 세 지도자는 각기의 열함을 맡게 된다. 다시 말해 귀화(歸化)라는 이름으로 집강소 통치를 강화하거나 확대하고 있었다. 김개남은 장수·임실일대를 순화하였고 손화중은 장성·광주 등지를 순화하였다. 이와 달리 전봉준은 최경선을 수행원으로 하여 금구·김제·태인을 거쳐 장성·담양·순창·옥과·남원·창평·순천·운봉을 순화하였다.¹⁶⁾ 다시 말해서 김개남 손화중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순화하였으나 전봉준은 호남 전지역을 순화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집강소를 통한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전봉준과 김개남은 6월초 남원회합을 갖고 집강소 통치문제를 상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감사 김학진은 이들을 회유키 위해 효유문을 도내에 띄우고 기존의 면리(面里)집강을 통해 역술한 일을 해결케 한다는 소위 폐정개혁을 약속했다.¹⁷⁾

이런 사정 아래에서 각기 세력확대 노력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다. “적이 처음 고부에서 일어날 적에 그 괴수는 태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좌우도를 통해 태인접이 으뜸이었다. 다른 접은 모두 태인을 모칭하였으나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다. 또 승전접이 있었는데 전봉준 등을 따라 고부장성에서 이기고 전주를 함락한 자들이다. 도둑들이 그 공을 인정하여 특별히 ‘승전’이라 부르며 표시했는데 여러 접중에 더욱 교만하고 횡포를 부렸다. 기범의 족속은 대대로 태인에서 토호노릇을 해서 사람들이 도강 김씨라고 일컬었다. 김시풍도 그 중의 하나이다. 기범은 군세고 자못 무단스러워서 난을 일으킬적에 여러 족속이 모두 따랐기 때문에 도강김씨에는 24접이 있었다.”¹⁸⁾

여기에 전봉준 계열의 승전접과 김개남 계열의 태인접을 말하고 있다. 문제는 그후에 더욱 복잡해진다. 7월 15일 전봉준 김개남 등은 남원대회를 갖는다. 그리고 집강소 통치의 강화를 다짐한다. 이때 감사 김학진은 경복궁 구태타에 따른 항일전선의 구축을 위해 군관을 보내 연합을 제의한다.¹⁹⁾ 이때 전봉준은 이에 동의하나 김개남은 불응한다. 이로해서 전봉준은 “김학진을 끼고서 기화(奇貨)로 삼고 일도를 전제했다.”는 것이었고 김개남은 타협을 거부한 채 독자노선을 걷는다.

손화중은 장성 광주일대에 머물며 여기에 참여치 않았다. 손화중은 고창일대에서 천만부대를 거느리고 집강통치를 강화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었다. 8월 25일에 김개남은 남원에 들어 독자적 영역을 구축했고 이에 따라 좌도의 농민군을 김개남 휘하로 집결했다. 곧 순창·용담·금산·장수·남원 등지가 김개남의 통치권이었다.²⁰⁾ 김개남이 남원에 웅거하자, 전봉준과 손화중이 달려갔다. 전봉준이 “시세를 보니 왜와 청이 싸워 한쪽이 이기게 되면 반드시 군사를 옮겨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 무리가 많기는 하나 오합이어서 쉽게 무너질 것이어서 끝내 득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귀화를 핑개해서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다가 천천히 그 변화를

16) 전봉준 공초 4차 문목. 「오하기문」2필 6월조에 “김기범은 우도를 들고 전봉준은 좌도를 들었다”고 기술한 것은 정확치 않다.

17) 「오하기문」2필

18) 앞과 같음.

19) 앞과 같음. 「전봉준공초」4차 문목에서 전봉준은 일본군의 범궐소식을 7월사이 남원에서 들었다고 하였다.

20) 전봉준공초 5차 문목

살펴보자”고 제의하자 김개남은 “대중이 한번 흩어지면 다시 규합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듣지 않았다.

또 손화중이 뒤따라 와서 “우리들이 기의한 지 반년이 되어 비록 한 도가 호응했지만 이름난 사족이 따르지 않고 재물있는 자가 따르지 않고 능문(能文)의 선비가 따르지 않는다. 서로 접장이라 부르는 자는 어리석고 천한무리로 화 만들기를 즐기고 도둑을 일삼는 무리뿐이다. 인심의 향배를 징험해 보니 일이 반드시 성공치 못할 것이다. 사방에 흩어져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또한 듣지 않았다.²¹⁾ 여기에서 세 지도자의 시국관과 현실 대처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의 원평에 웅거하면서 우도의 호령을 행하고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성에 웅거하면서 좌도를 통괄하였다. 그 나머지 김덕명 손화중 최경선의 무리는 각기 한 지방에 웅거하였다. 그런데 그 탐학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개남이 첫째였고 전봉준같은 자는 동학 교도를 이끌어 혁명을 도모하였지만 이른바 거괴의 무리는 스스로 대장이라 일컫고 주구(誅求)로 일을 삼으면서 약속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봉준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²²⁾ 여기에서 김개남은 반봉건운동에서 강경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대접주들이 각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도 알게한다. 또 전봉준은 왕조 체제의 전복이라는 구상아래 세력을 규합하고 있음도 알린다. 이상으로 따져 전봉준을 중도파로, 김개남을 강경파로, 손화중을 온건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손화중을 비롯하여 김덕명 최경선 등 우도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전봉준의 영향권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관변이나 일본군측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도 ‘거괴’를 전봉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측도 “전봉준이 동학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동학도 중에서 다소의 양민과 의사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봉준이가 일단 그 속에서 떠나자 이들 양민·의사들은 역시 모두 흩어져 떠나갔다”고 이해하고 있다.²³⁾ 김개남은 남원을 중심으로 ‘왕’을 표방하고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국지성을 띠고 있었다.

5) 세 지도자의 성격

김개남은 앞에서 본대로 강경노선을 추구하고 비타협으로 일관하였다. 김학진의 협조요청도 거부하였고 양반 토호의 징치에 격렬하였다. 전봉준은 이와 달리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책을 추구하면서 김학진의 협력을 얻어 집강소 통치의 원활을 기했고 또 대일항쟁에 역량을 결집하려 노력했다. 이런 탓으로 두 지도자는 6월 남원 집회이후 그 지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현실대처를 달리하고 있음을 본다. 그후 7월 15일 남원 대회를 계기로 더욱 갈등을 보이고 있었다.

손화중은 현실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전봉준 노선에 기울어졌고 또 그 지휘를 받고 있었다. 그가 2차봉기 때 비록 전봉준의 지시에 따라 광주 등 남쪽지역의 방위에 나섰으나 중심부에 합류하여 공주전투에 참여치

21) 「오하기문」 2필.

22) 정석모의 「갑오약력」

2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54쪽.

않은 것도 이런 일면을 드러낸다. 이렇게 그 지향이 다른 것은 성격의 차이와도 관련된다. 김개남에 대해서는 “광망포획하기가 여러 도독중에서 으뜸이어서 사람들이 호랑이와 이리같이 두려워했다.”²⁴⁾고 하였다. 그렇다고 김개남이 지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홍선대원군의 사자가 왔을 적에 전봉준이 이들을 죽이라고 당부하자,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책이라고 놓아준 일도 있다.²⁵⁾ 그러면서 과단성이 있었고 부하가 명령을 어기면 가차없이 군법을 시행하였다. 수령들이 고분히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정한 군법에 따라 처단하였다. 전봉준은 신중하면서 때로는 타협, 때로는 과단성을 보였다. 그는 강은 양면을 구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가 체포되어 압송될 적에 이런 기록이 전해진다.

“전봉준이 현관(縣官)들을 보고는 모두 너라고 꾸짖으며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압송 도중에 죽령고(竹瀝高), 인삼, 속미음(粟米飮)을 달라고 하며 행동 거지가 두려움이 없었고 조금이나마 그 뜻을 떨쳤다. 또 현관을 꾸짖어 말하기를 ‘나의 죄는 종묘사직에 관계되니 죽으면 죽을 뿐이다. 어찌 너희들이 힘부로 다룰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여 압송자들이 예예하며 받들었다.”²⁶⁾ 전봉준은 이런 기개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해서 일본의 회유를 당당히 물리쳤다. 손화중은 전봉준과 함께 압송될 적에 나주목사 민종렬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소인’이라고 자신을 일컬었다고 하여 전봉준의 꾸지람을 받았다.²⁷⁾ 이는 그가 수령을 대하는 예의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서울에서 재판받을 적에는 전봉준과 함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 일본 신문기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²⁸⁾ 손화중은 윤희한 성품으로 무장이기보다 문관의 성격과 인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4. 기타 지도부의 성향

필자는 동학농민전쟁 과정에 나타난 26인의 출신과 활동을 추적한 바 있다. 그 26인의 선정은 활동의 정도와 출신지역을 대체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표본추출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남북접을 망라하고 지역활동을 감안하였다. 이들을 통해 일단 그 성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름	출신지 ²⁹⁾	신분 ³⁰⁾	나이 ³¹⁾	경제수준	비고
서장옥	수원(청주)	평민	43	빈한	동학포덕
송대화	고부	향반	36	부농	
손화중	정읍(무장)	향반	34	부농	

24) 「오하기문」 3필.

25) 정석모의 「갑오약력」.

26) 「오하기문」 3필.

27) 앞과 같음.

28) 「二六新報」의 기사 등.

29) 괄호안은 거주지

30) 「판결선언서」에는 대개 평민, 농민으로 기재.

31) 나이는 1894년 기준. 만으로 계산.

	김덕명	금구	향반	50	중농	
김개남	태인	향반	42	중농		
최경선	태인	향반	36	부농		
김인배	금구	평민	24	빈농		지도급은 아님
최달곤	하동	평민	33	빈농		
오권선	나주	향반	33	부농		
정백현	무장	향반	25	중농		
이상옥	상주(이천)	평민	26	유랑		
차치구	정읍	평민	43	빈농		
홍낙관	서울(고창)	평민(상민)	44	유랑		
이희인	목천	향반	48	부농		
최맹순	춘천(여천)	평민	42	옹기장수		
편보언	금산(경상도)	향반	28	중농		
황하일	보은	평민	49	빈농		동학포덕
손천민	청주	이전	37	중농		동학포덕
차기석	홍천	평민	미상	빈농		
김창수	해주	상민	18	빈농		
박인호	덕산	평민	39	빈농		머슴살이
이유삼	정산(부여지방)	유생	미상	도사(都事)		
이방언	장흥	향반	56	부농		
손병희	청주	이전	33	빈농		동학포덕
전봉준	고창(태인)	향반	40	빈농		훈장
백낙희	해주	평민	36	포수		

1) 출신 지역과 나이

이를 출신 지역별로 구분하면 전라도 11명, 충청도 6명, 경상도 3명, 강원도와 황해도 각 2명, 그리고 서울·경기지역이 2명순이다. 전라도와 충청도 출신이 17명으로 절대 우위의 수치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외 경상도 3명, 각 지역이 2명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몇명의 경우 출신지역과 활동지역이 다를 수가 있기도 하다. 곧 전라도 출신 김인배는 경상도 지역인 하동 진주 등지에서 많이 활동했고 경상도 출신 이상옥은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활동했고, 강원도 출신인 최맹순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서울 출신인 홍낙관은 전라도 지역, 경기도 출신인 서장옥은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는 주전선에서 활동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지적 활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한 지역내에서도 거주지보다 다른 고을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다. 다음 활동할 당시 나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26명 중에서 30대 9명, 40대 11명, 50대 4명, 20대 4명, 10대 1명순으로 나타난다. 지도부의 중심 나이는 30대와 40대임을 알 수 있다. 곧 가정에서는 가장, 향촌에서는 중견층이 일선 지도부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5~60대는 때로는 일선 지도자로 부상하기도 했으나 주로 협조 또는 막후에서 활동했고 20대와 10대는 주로 보조기능을 담당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물론 20대의 김인배·정백현·이상옥·편보언은 대접주 또는 접주로 중심역할을 했으나 다수는 차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 신분과 경제수준

26명의 사회신분을 보면 향반 11명, 평민·상민·아전 14명, 유생 1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향반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다. 이는 몰락 양반과도 구분되며 적어도 사족(士族)이라고 할 토반(土班)과도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향반이라고 구분하였을 적에 범위를 넓게 잡아 소외된 양반 토반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적어도 과거를 보아 벼슬할 수 있는 신분, 또 뚜렷이 상민(常民)이나 이서(吏胥)층이 아닌 신분을 포괄적으로 이 범주에 넣은 것이다. 전봉준의 경우, 적어도 상민이 아니었으나, 몰락 양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고, 또 턱걸이 사족으로 행세를 하려 했다는 점에서 향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회인은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부사를 지냈으며 또 상당한 지주였다. 이는 소외된 양반 또는 토반으로 볼 수 있어서 전봉준과 상당한 신분차이가 있으나 넓은 범위의 향반에 포함시켰다. 평민으로 분류한 경우도 상민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일제 당국은 벼슬 아치가 아닌 경우 '평민' '농민'으로 신분을 나타냈다. 특수한 경우 '학구'(學究) '유업'(儒業)으로 표시하고 있다.³²⁾

이런 경우는 대단히 피상적으로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평민을 한미한 기문으로 상민과 동격으로 보았다. 아전(이서)도 일단 그 신분을 편리상 평민·상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적에 그 상층 지도부는 향반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조선후기 또는 19세기말의 신분 유리나 문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경제수준으로 볼 적에 부농·중농 12명, 빈농(빈한·유리민포함) 14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는 나름대로 부농은 잉여 생산물을 갖는 지주를 기준으로 삼았고 중농은 자급자족 또는 소량의 잉여 생산물을 갖는 중간 지주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 다음 빈농의 범주에는 자급자족의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농민과 아무 직업없이 유리하는 유리민, 옹기장수·산포수를 모두 포함시켰다. 사실 서장옥·이상옥·홍낙관은 빈농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류에 속했고, 전봉준·황하일 등도 순수한 농민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주 또는 명망있는 사족의 후예, 고관의 후손들은 중심 지도부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낮은 향반·중간 지주가 지도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세 지도자와 기타 23명의 지도부 인물을 중심으로 그 전반적 성격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전봉준이 총대장의 지휘권을 행사했으나 완전한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그러므로 다음의 기록이 전해진다.

32) 『동학관련판결문집』(총무처, 1994)

“전봉준 김개남은 이른바 거괴이지만 이들보다 더욱 큰 자로 무장의 손화중, 무안의 배상옥이 각기 수만의 포중(包衆)을 거느려서 몇 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봉준과 김개남에 비교해서 더욱 큰 세력이다. 다만 전봉준 김개남은 악명이 경향에 널리 퍼져서 조가(朝家)에 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놈은 거괴라 이르지만 그 거괴로 따질것 같으면 손화중 배상옥이 엄지 손가락이요 그 다음은 최경선 오권선 이사명 남용삼 이방언 등 수십 무리이다. 모두 전봉준 김개남과 한 무리로서 죄악이 하늘에 넘치지만 전봉준·김개남과 비교해 아무 차이가 없다.”³³⁾ 이 기록이 정확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각기 지역활동을 벌이며 독자적 영역으로 군웅할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출신배경, 활동사실이 제대로 규명 분석되어야 그 실상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항반이나 중간 지주층이 주도했다고 설정한다면 이는 삼정을 통한 국가적 수탈에 저항하거나 관료사회에서의 배제를 그 기본동기로 꼽을 수 있으며 또 외세 특히 일본의 정치적·외교적·경제적·군사적 침략에 항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주체세력은 국가적 수탈과 지주적 수탈, 그리고 토지독점과 신분의 굴레에 맞서 그 기반을 깨려는 것이었고 또 일본의 경제침탈에 항거했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다. 이 발표는 어디까지나 시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그 동기와 지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기본틀이 될 수 있고, 이들의 출신배경을 통해서 농민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어떤 도식보다 19세기라는 역사적 시대상황에서 한국적 특수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그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그리고 연구사로 따져 볼 적에 좀더 면밀한 사료의 검토와 실상에 접근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할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33)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동학란 기록 下).

5. 농민전쟁기 국내 지배세력의 동향

- | | |
|----------------------|--------------|
| 1. 머리말 | 4. 향촌지배층의 동향 |
| 2. 개화파의 동향과 농민군 대책 | 5. 맺음말 |
| 3. 대원군파의 농민전쟁 인식과 동향 | |

공동연구 양상현(서울대 규장각), 왕현중(인덕공전 강사)
정진영(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 머리말

민씨척족세력이 주도하던 정국은 농민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하여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온건보수관료들이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일본에 의해 민씨정권이 붕괴된 이후에는 개화파들이 정계에 등장하였으며, 대원군세력도 참여하여 중앙정계가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농민전쟁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하였고, 정국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시기 이들의 동향을 개화파, 대원군파, 향촌지배층으로 나누어서 살펴봄으로써, 농민전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2. 개화파의 동향과 농민군대책

1) 중앙정계의 동향과 농민군 대책

1894년 1월 古阜民亂 이후 조선정부는 초기에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월 중순에서야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핵사를 파견하는 조처를 취하였는데, 정부지배층은 민란의 원인을 단지 관리의 부패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 3월초에는 상해에서 암살된 金玉均의 시신 도착과 함께, 당시 집권관료들이 다수 동원되어 여론을 조성하면서 갑신정변의 주모자들을 다시 탄압하고 있었다.”

3월말이후는 삼남지역의 농민군에 대해 본격적인 탄압국면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제 민정의 피폐상에 동

1) 여기에는 영의정 沈舜澤이하 金弘集, 趙秉世, 鄭範朝 등과 사헌부, 사간원의 관료들이 주축이 되었다. 金玉均을 适(李适)·雲(致雲)의 例로 陵遲處斬, 洪英植의 屍身을 剖棺槨弑하고 討逆科를 설치하였다.

조하고 폐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탄압, 후개혁의 방침을 정해두고 있었다.²⁾ 한편으로는 민란의 책임에 대한 문책인사를 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강경한 탄압인 剿討에 나섰다.³⁾ 그리고 4월 27일 농민군의 全州城 점령 이후, 29일 조정에서는 閔泳駿의 주도하에 청병차용이 결정되어 농민군의 봉기는 국제적 내정간섭의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호남일대의 민란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중앙정계에서는 각 정치세력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⁴⁾ 이제 정국의 동향이 갑신개화파에 대한 처벌이라는 개화세력에 대한 탄압국면에서 호남농민군의 탄압과 나아가 민씨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나아가자, 俞吉濬, 金嘉鎭, 안경수, 金鶴羽 등 개화관료들은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나갔다.⁵⁾

2) 일본의 경복궁 쿠데타와 개화파의 등장

일본은 청일 양군의 공동철병이 요구되자, 청에 대해 屬邦論과 조선의 內政改革을 제기하면서 군사적 주둔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⁶⁾ 특히 그들의 목적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으로 개화실무관료들을 규합하고 또한 대원군을 포섭하려고 했다.⁷⁾

이에 대응하여 조선정부는 5월말 독자적인 개혁 방침을 정하고 6월 6일 自修自強 을 목표로 하는 大更張 大懲創 을 선언하였고 11일에는 校正廳을 설치하고 革弊 12개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내정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실제 농민군들이 제기한 개혁안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민씨정권의 전면 퇴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데, 전쟁의 명분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전쟁수행에 협조해 주는 친일정부의 존재가 필요했으나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가 무망한 상황에서 군사 개입을 통해 조기에 달성하려고 했

② 《日省錄》 권 31, 時原任大臣 會議 같은 4월 4일조 참조

③ 4월 18일이후 전라감사 경질, 안핵사 귀양, 均田使의 減下 등 조치에 이어, 24일 다시 金文鉉, 趙秉甲, 李容泰를 처벌했다. 같은 날 충청감사 趙秉鎬를 경상감사로 전임, 이현영을 충청감사로 임명하였는데, 고종은 金鶴鎭에게 全羅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都巡察使, 全州府尹, 親軍武南營外使 등 호남일대의 전권을 부여해주면서 便宜從事 로 처결케 했다.

④ 5월 1일부터 6월초까지 시원임대신과 三司가 여러차례 김문현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으나 棄城 越境封疆之臣 의 죄명으로 減死安置 할 뿐이었으며 고종도 그러한 처벌의 수준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였다.

⑤ 이들은 민씨정권의 청군파병요청에 대해서, 全羅地方民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본래 지방관리들의 탐욕과 학정에 기인한 것이며 그 책임은 閔氏一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외세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국체가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일본과 청국 두 나라 사이에 의논이 잘 이루어져서 조선에 대해 中立, 혹은 保護國의 자격이 주어져 朝鮮이 餘命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淸國出援에 대한 朝鮮朝廷內의 不服黨의 運動과 袁氏의 密話> 6월 6일(음 5월 3일) 266-269면 참조).

⑥ 일본은 5월 25일 양 문제에 대해 조선정부에 회답을 강요하고 6월 1일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였으며 8일 소위 노인정회의를 통해 전 27개조에 이르는 <內政改革方案綱目>의 실시를 강요하였다.

⑦ 6월 13일(음 5월 10일) 杉村濬은 조선 내부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민씨당을 몰아내고 반대파 또는 중립적인 인사들을 정부에 등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외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있다(《재한고심록》 12-13면). 친일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포섭작업은 5월말경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6월 21일 새벽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조선정국을 일거에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월 25일에는 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甲午政權이 수립되었다. 개혁의 추진기구는 軍國機務處였다.⁸⁾ 주요 구성원은 金弘集, 魚允中, 金允植 등 온건개화파로 및 80년대 민씨정권하에서 개화정책의 실무자였던 金嘉鎭, 趙義淵, 金鶴羽, 權滄鎭 등 소장관료층 및 兪吉濬 등이었다. 이들은 개혁의 목표를 便民利國에 두고, 봉건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여 6월 말 7월 초에 걸쳐서 중앙권력구조의 개편과 신분제 및 관료 채용의 확대, 연좌법의 폐지, 화폐제도와 조세금납화 정책 등을 결정하였다.⁹⁾ 특히 농민군의 개혁요구와 관련하여 10월부터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었다.

갑오정권은 초기에 대원군의 섭정을 통해서 권력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7월 15일에는 군국기무처의 의원 다수가 정부의 대신 혹은 협판으로 임명되어 권력의 중추기구를 장악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통치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부지역과 경상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중앙권력에서도 기반을 확고히 수립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8월 4일에는 大君主 陛下가 百官을 거느리고 御外殿에 萬機를 親裁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고종에 의해 거부당함으로써 갑오정권은 권력의 정당성과 기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¹⁰⁾

3) 개화파의 농민군 진압책

갑오정권은 8월중순이후 대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심각한 정권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8월 17일 청 일간의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하자 일본의 내정간섭 및 농민군탄압요청을 받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대원군 계열 및 갑신개화파 계열의 정권장악을 위한 기도에 대응해야 했다.¹¹⁾

특히 권력의 정당성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던 농민군의 동향과 鎭撫대책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7월 17일 개혁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學部協判兼議員 鄭敬源이 三南宣撫使로 되고 26일에는 都憲 李重下가 嶺南宣撫使로 되어 선무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더이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8월 4일 이미 都宣撫使의 파견이 검토되고 있었다.

— 原任大臣中에서 特別히 三南都宣撫使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이미 의논하여 啓를 받은바 있다. 그런데 현재 萎民의 梗化는 兩湖지방이 심하므로 먼저 몇 사람을 파견하고 군사를 대동하여 길

8) 6월 26일 <軍國機務處章程>에 의하면, 중앙의 행정 사법기구를 개혁하고 國政改革 및 殖産興業 등 일체 군국사무를 담당하며, 의원들이 정한 議案을 국왕의 旨를 받아 추진하는 의결기구였다.

9) 권력구조 개편에서 국왕내지 궁내부의 권한을 축소하여 國王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議政府의 總理大臣이 입법기관인 機務處와 관리 임용 규찰기능의 都察院을 장악하고 8개의 이문을 통제하고 있는 체제였다. 개혁의 핵심관료는 金弘集과 兪吉濬이었다.

10) 《議案 草記》8월 4일, 20일의 議案 참조

11) 일본은 6월 26일부터 친일내각의 핵심인물로 朴泳孝, 徐光範 등 갑신개화파 망명정치인들을 귀국, 복권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영효는 7월 초 귀국하여 8월초에 현재의 내각인사를 경질하고 신관제를 폐하는 등 군국기무처의 개혁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을 나누어 주재하여, 한편으로 彈壓하고 한편으로 宣諭하면서 恩威를 행하고 妖을 확정하는 것이 目下の急務이다.(8월 24일 軍國機務處 議案)

이 의안은 7월초이후 농민군에 대한 회유책이 사실상 실패하였으며 농민군과 적대관계로 나아갔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또한 8월말경 이후 농민군의 재봉기 소식은 국왕, 갑오정권을 비롯한 집권관료세력 모두에게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갑오정권은 주로 일본 공사관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던 데서 정세판단의 오류가 발생되기 쉬웠다.¹²⁾ 더구나 일본은 갑오정권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농민군 탄압에 나서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다만 대원군은 농민군진압에 반대하여 농민군을 설득하기로 했으므로 갑오정권은 당분간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9월 2일 경무사 李允用의 관직박탈로 인해 대원군 계열과 갑오정권과는 대립관계가 악화되고 있었고, 이어 4일 김홍집, 김윤식, 박정양, 김종한, 안경수, 김가진, 조희연, 권형진 등 8奸이 日本과 符同해서 오로지 賣國하는 謀計를 기도한다는 宮門將 金基泓의 탄핵상소가 제기되는 한편,¹³⁾ 9일에는 죽산, 안성지방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므로 일대 정권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¹⁴⁾

따라서 갑오정권은 정권 붕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선 조세제도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9월 15일 경상감사와 선무사의 보고에 기초하여 嶺南 弊別單을 작성 시행키로 했으며 16일에는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지세제도의 結價 策定基準을 마련했고 또한 17일에는 영남과 호남의 진흥책과 더불어 그동안 均田문제에 대해 재차 均田使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⁵⁾

또한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1일 군국기무처를 의회로 승격시켜 행정부와 의사부로 나누는 정제개정을 요청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이미 7월 18일에 제기한 바 있는 各大臣과 將臣, 警務使 등이 모두 기무처의 회의원으로 되는 의안을 재차 요청하면서 권력 입지의 강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국왕이 갑오정권의 개혁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찬동, 후원해주지 않았으며, 다른 한편 다른 정치세력이 정권장악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적 기반을 확립할 수 없었다.¹⁶⁾

이렇게 정권 내외적인 위기상황이 조성되는 가운데, 9월 18일 일본공사 大鳥圭介는 일본군의 농민군 진

- 12) 일본은 8월 27일 삼남의 東學黨들이 다시 熾烈하다는 설, 또 東匪들이 성내로 잠입했다는 설, 29일에는 안동의 東匪들이 일본 병참부를 습격하려 한다는 보고 등을 갑오정권에 전달했다.
- 13) 8월 6일과 20일에 軍國機務處는 탄핵상소가 반드시 都察院을 경유하도록하는 의안을 결의한 바 있었다. 탄핵상소이후 衙門의 大臣들이 관례상 사임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일정기간 권력의 공백을 낳게 되었다.
- 14)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60면, 《日省錄》9월 4일-15일(298-313면).
- 15) 갑오정권은 호남지역 농민군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8월 22일에야 전격적으로 전라감사 김학진을 해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일성록》 327면). 한편 8월 2일 全州士民聯狀諸條 중 均田문제의 해결요구에 대해 8월 26일 尙書府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민씨정권의 퇴진 요구에 대해 민영준을 비롯한 일부 관료의 처벌에 그쳤으며 신분제의 해체 완화책 등을 추진하였다. 갑오정권은 집권관료세력의 지주적 기반과 타협해가면서 봉건 조세제도의 해결에만 치중하는 개혁정책을 폈다.
- 16) 신관제이후 새로 부임하는 지방관은 국왕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임명되었다고 비난받았다. 10월 3일 기무처의원이던 申箕善은 신분제 폐지와 외국제도의 수용을 비판했으며, 4일 대원군 계열에 의해 정권 핵심인사인 金鶴羽가 암살되고 주요 인사들의 암살음모가 적발되었다.

압에 대한 협조를 강요하고 있었다.¹⁷⁾

지금 本使는 京城과 釜山 두 곳에 약간의 우리 兵士들을 파견하여 貴國 兵士와 합세한 후, 그들을 剿討하는 우리를 도와서 기어이 그 匪黨들을 소탕하여 일국의 禍根을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兵力을 파견한 本意를 多事多忙한 각 지방관과 陣頭에 임한 各隊의 軍官에게 자상하고 간절한 諭示로 선포하여, 우리 병사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또 죽을 힘을 다하여 그 匪徒들을 剿滅하도록 하여... 조속히 우리의 勸告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에 다시 照會를 하는 것입니다.¹⁸⁾

그는 외무대신 金允植에게 보낸 照會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선유와 토벌을 감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는데, 최근 匪徒들의 경성침범설과 청 패잔병의 합세설을 설명하면서 출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는 7월 26일에 체결된 朝日盟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변했다.

갑오정권은 일본의 농민군 탄압 강요를 그대로 수용하여 같은 날 湖西, 湖南의 농민군에 대한 초토를 결정하고 일본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였다.¹⁹⁾ 9월 22일 都巡撫使로 申正熙를 임명하고 兩湖巡撫營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농민군 토벌작전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1894년 9월 중순이후 농민군 진압의 주도권은 갑오정권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에 넘어가 있었다. 9월말에 새로 부임한 井上馨 公使는 일본의 보호국화를 수립하기 위해 대원군계열 및 농민군 등의 반일세력을 거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는 10월 23일과 24일에 어전회의에서 20개조의 개혁안을 제출하였다.²⁰⁾ 결국 11월 21일 朴泳孝, 徐光範 등을 중심으로 한 親日政權으로 귀결되었다.²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갑오정권의 기반이 되었던 대원군의 퇴진과 더불어 군국기무처도 폐지되므로써 갑오정권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4) 개화파의 성격

이렇게 갑오정권은 외부의 계기에 의해, 성립·재편·해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비록 1894년 하반기 약 3개

17) 杉村濤은 9월 22일 조선정부의 제대신들이 자주 원병파견을 요청해왔으며 대원군이 동학당 진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미 제대신과 내적으로 타협을 본 후, 일본이 출병한다는 조희를 먼저 보내고 이를 받아 외무대신이 출병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5, 기밀 205호 본124, 「東學黨 鎮壓을 위한 援兵派遣 決定(양 10월 20일), 64면(323면) 참조).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일본이 동학당의 반일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이미 토벌의 방침을 설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합리화하는 날조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18)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133면(428면) 참조

19) 《日省錄》고종 31년 9월 18일조

20) 이것은 일본의 지도와 후원으로 보장된 國王權을 토대로 하여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로 만드는 동시에 일본의 보호국화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21) 朴宗根, 《日清戰爭과朝鮮》(137-173면), 柳永益, 《甲午更張研究》(36-50면) 참조

월동안 진행되었으나 조선왕조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갑오정권의 성격을 파악할 때, 조선사회의 변혁운동에 대응한 개혁관료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군사력에 의존한 점이 중요한 관건을 이룬다.

갑오정권과 농민군세력이 적대한 세부원인으로는 첫째, 8월말 9월초 정권기반의 허약성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정치 군사적 간섭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점, 둘째, 7월초에 급격하게 추진된 개혁조치에 수반되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민중들의 개혁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 점, 셋째 당시 정세 인식이 내정개혁에 고정되어 있어서 외세의 후원에 의해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인식의 오류 등을 들 수 있다.²²⁾ 따라서 갑오정권과 농민군 세력의 적대관계는 무엇보다도 倭債 와 改革 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갑오정권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반제 민족운동의 대결이라는 민족사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던 점에 있었다고 하겠다.

3. 대원군과의 농민전쟁 인식과 동향

1) 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농민전쟁에 대해 대원군은 “금번 백성들의 소요는 동학당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방관의 폭정으로 고통을 당하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봉기한 것” 이라고 하여 전쟁의 주체가 동학당이 아닌 농민들이고, 농민군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도 민씨척족세력의 탐학과 지방관의 가렴과 같은 폭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다.²³⁾

따라서 대원군은 전쟁을 일으킨 농민군에 대해서도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하기 보다는 효유하여 귀순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일본군을 동원하여 토벌하는 데에는 반대하였다.

2) 농민군과의 연결

대원군과 농민군과의 연결과 관련하여 제1차 농민전쟁시 농민군이 “대원군을 받들어 監國케 한다.”²⁴⁾고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전봉준이 1891년 무렵에 서울에 올라와 대원군과 密約이 있었다²⁵⁾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대원군과 전봉준 사이에 권력문제의 관련하여 미리 구체적인 交感이 있었다면 농민군이 대원군을 지명하여

22) 兪吉濬은 1894년 7월이후 개혁사업이 他動力, 일본의 군사력에 의해 촉구되어 전국인민과 세계만국, 후세자손 등에게 부끄러움을 남긴 三恥 를 남겼다고 하면서도, 오직 改革 을 잘해서 자기의 獨立 을 보존하고 남에게 불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開進 의 실효를 거두어 保國安民 을 하면 오히려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兪吉濬全書》 4, 376-377면, 《議奏》 21 책, <秘密會議 求하는 請議書> 1895년 6월 19일 참조). 그는 조선사회의 개혁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주적 개혁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일본의 개입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23) 국사편찬위원회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4년 6월 3일 대원군 면회

24) 『東匪討錄』, 湖南儒生原情于招討使文

거론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대원군도 일본군의 요청에 응하여 쉽게 정계에 복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전 밀약설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원군파와 농민군의 연결은 개화파정부내에서의 입지가 취약해진 대원군파가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던 여러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그 시기는 1894년 8월 초순 무렵이었다고 생각된다.

대원군파와 농민군 지휘부의 연결은 대원군측에서 파견된 이른바 宣撫使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름만 선무사였지 사실은 비밀리에 농민군을 선동하고 있었다. 선무사로는 박동진, 박세장, 이진영, 김명호 등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전봉준, 김개남, 임기준, 서장옥 등과 접촉을 시도하였다.²⁵⁾ 이진영은 삼례 역에서 전봉준을 만났다. 이진영은 전봉준에게 “왜구가 궤내를 범하고 종사에 화가 미쳐 명맥이 조석에 달려 있으나...회화들이 만약 오지 않으면 화환이 기필코 당도할 것”이라는 밀서²⁶⁾를 제시하였고, 전봉준도 이 이야기가 일본에 누설이 되면 그 화가 왕에 미치게 되니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밀서는 국왕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측이 추측하듯이 대원군의 주선에 의해 보내진 것 같다.

박동진은 송희옥을 통하여 전봉준과 연락하고 있었다.²⁷⁾ 송희옥은 전봉준의 처족 7촌으로 가까운 인척이었고, 전봉준이 그를 전라도 도집강으로 임명하여 전주감영을 맡길 정도의 동학의 지도자급 인물로서 측근 중의 측근인 인물이었다. 전봉준은 송희옥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여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다가 다시 “만약 친지라고 대답한다면 반드시 그 글의 내력을 물을 것이고 그러면 변혹하기 어려워 속여서 고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영사가 제시한 서간의 필적을 보고 그것이 송희옥의 것이고 그 글의 내용이 대원군과 相通한 것이어서 송희옥이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남자의 할 짓이 아니고 또 존엄을 모독하고 공연히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여 송희옥과의 관계를 꾸며서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흥미하여 생긴 착오라고 하면서 송희옥이 자신의 친척임을 시인했다. 그러나 영사가 대원군측과의 접촉에 대해서 다시 묻자, 전봉준은 송희옥을 삼례에게 만났을 때 그가 대원군측에서 사람이 내려와 농민군이 올라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한다고 하기에 자신이 편지가 있었는가라고 되묻자 송희옥이 없다고 하여 責하였더니 횡설수설하여 황당하게 여겼다고 알버무렸다.

이어 전봉준은 대원군 秘奇의 虛實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원군측에서 연락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먼저 자신에게 통지할 것이지 송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송은 처음 서울에 머문 일도 없고, 또 저명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농민군내에서의 송희옥의 지위와 송희옥과 전봉준의 관계로 보아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봉준은 대원군의 효유문을 보았는데도 거병한 것은 본심에서 우러난 것이고 대원군의 효유문을 깊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제2차 거병과 관련하여 대원군측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송희옥을 매개로 전개된 대원군측과의 연결고리를 부정하기 위한 시도였다. 더욱이 송희옥은 당시 고산 民兵에게 죽임을 당하여 이 세상

25) 『천도교창건사』 57-58쪽

26) 『이병휘공초』(규17284)

27) 일본의무성자료, 『東學黨事件 會審 顛末 具報』

28) 『전봉준공초』(규17285)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전봉준이 운현궁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박동진과 정모(정인덕으로 추정됨·필자)였음을 기억하고 있듯이 대원군파의 의사는 박동진·송희옥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하여 전봉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건영은 또한 김개남과도 접촉하고 있었다. 대원군파는 공식적인 효유문을 보내기 전 이건영을 김개남에게 파견하여 起兵하여 서울에 올라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국태공의 眞意이고 소위 효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을 수식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알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개남은 “개화당에 추세하여 대원군을 우롱하여 효유문을 얻어서 내려온 것이 어찌 국태공의 본의이겠는가?”라고 하면서 대원군의 효유문을 지니고 내려간 김태정, 고영근과 정석모 일행을 구금했던 것이다.²⁹⁾

그리고 9월 9일에 충청도의 도접주 안교선, 대접주 임기준, 홍재길을 비롯한 모두 21명의 접주들이 “홍선 대원군의 下諭분부에 따라 각자 田野로 내려가 학업을 닦고 다시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여³⁰⁾ 대원군의 효유문을 따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주한일본공사조차 본격적인 농민군 토벌에 전념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고할 정도로 남원대회 이후 2차농민전쟁을 준비하는 농민군의 움직임이 빈번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살펴볼 때 접주들의 대응은 대원군의 효유문이 대원군의 본심과 다른 거짓 修辭에 불과함을 알고, 그에 대해 형식적으로 부응하는 모양을 갖추어 준 데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중 대접주 임기준은 대원군파가 박동진을 통하여 접촉하려 한 인물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 당시 이미 임기준을 통하여 대원군파의 진의가 이들 접주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원군파와 박동진파의 비밀연락은 이준용·정인덕·허엽·이병휘·박동진으로 이어지는 연락망과 이준용·정인덕·임진수·박동진으로 이어지는 연락망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었다.³¹⁾ 이러한 사실은 대원군파와 박동진 사이의 비밀연락을 담당한 이병휘가 박동진에게 전해지는 이준용의 서간에 의심을 품고 그 서간을 경무사 이윤용에게 전달함으로써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경무사 이윤용은 단독으로 허엽을 면담하고, 이어 허엽을 체포하였다. 그러자 대원군은 이병휘를 투옥시키고 이병휘의 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어 9월 28일 대원군이 일본공사관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경무청 순검이 거수경례를 한 인사법이 국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문제삼아 순사를 투옥하였으며, 그날로 이윤용의 관직을 박탈하고 자기파인 허진을 기용하였다.³²⁾ 그리고 허엽과 이병휘의 재판에 대해서도 대원군은 은밀히 재판의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증거인의 출정을 거절시키는 등 백방으로 손을 써서 방어를 하였다. 이러한 대원군의 노력은 이병휘의 자수로 말미암아 대원군파와 농민군사이의 비밀연락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병휘가 폭로한 비밀연락사실이 사실무근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8월 13일 이병휘는 허엽을 통하여 정인덕의 편지를 전해 받았다. 이 편지는 이준용의 친필서간을 정인덕

29) 『갑오약력』

30) 『뮤텔문서』, 동학접주답서

31) 『이병휘공초』

3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 52-53쪽

이 다시 필사한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도 기만명을 이끌고 속히 올라오라.”고 되어 있었다. 이병휘는 8월 16일 천안에서 박동진을 만나 이 편지를 전달하고, 8월 17일에 박동진이 허엽, 정인덕, 이준용에게 전하는 답장을 받아 8월 20일 상경하여 허엽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허엽에게 전한 편지에는 나머지 편지들을 정인덕에게 잘 전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인덕, 이준용에게 전해지는 편지에는 “가르침에 따라 지금 병력 30만명을 이끌고 8월 25, 26일간에 올라 갈 것입니다. 서울의 움직임을 자세히 통지해 주십시오. 만약 일본군대가 내려오면 적을 대적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속히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었고, 특히 정인덕에게 전해진 편지에는 “이태용, 박준양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시고, 이준용과도 상의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군의 움직임을 자세히 탐지하여 알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후 다시 이병휘가 박동진에게 서신을 전하고, 이준용에게 보내는 박동진의 답서를 받아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일본군이 출동하려고 하나 대원군이 반대하고, 의원은 찬성하고 있는 처지이니 일본군이 내려오면 각처의 동도를 잠시 파산시켜 11월이 되어 청국군이 출동하여 오는 것을 기다려 함께 힘을 합쳐 안팎에서 협공하면 일본군도 격파할 수 있고, 조정도 깨끗이 하며 따로 秉國人을 세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계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8월 24일 정인덕과 임진수를 거쳐 박동진에게 전해진 이준용의 편지에는 “일본군이 출동하기 전에 속히 올라와서 입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8월 25일에 정인덕이 임진수를 통하여 박동진에게 부친 편지에서는 “이달 말일을 기하여...십수만명 이상의 大兵을 서울 근교로 이동하도록 해야 하며”라고 하여 농민군의 구체적인 이동방침을 시달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8월 말에 농민군을 동원하여 상경시키는 계획과 관련하여 이준용과 박동진 사이에 계속 비밀편지가 전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목적은 일본군을 격퇴하여 개화정권을 전복하고 ‘新主’를 내세워 정국을 새롭게 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동진이 농민군 수십만을 이끌고 올라가겠다고 한 8월 25일, 26일은 남원에서 농민군들이 모여 재봉기와 관련하여 대회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2차봉기와 대원군파와의 연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8월 25일경에 열린 남원대회에서 김개남, 전봉준, 손화중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으나 전봉준은 이미 이 시기에 2차봉기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9월 1일에 김개남 휘하의 순천점주 김인배가 지휘하는 영호대도소의 농민군이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진주를 공격한 것과 짝을 이루어 전봉준 휘하의 전주대도소 도집강 송희옥이 무리를 이끌고 9월 3일 전주성을 빠져나가 거병을 준비하고 있고, 9월 9일 금구농민군이 금구관아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는 등 이 시기를 전후하여 농민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움직임은 9월 18일 삼례에서 각지의 농민군이 집결함으로써 제2차 농민전쟁으로 수렴되어 갔다.

대원군파에 의한 대중동원은 이 정도에서 머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왕의 밀지를 내세워 의병 쫓기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용호, 송정섭의 경우는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³³⁾ 8월 17일 이용호는 천안 달리내점

33) 일본의무성자료 「동학당사건 회심 전말 구보」

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임진주를 만나 그로부터 삼남의 의병 꺾기를 촉구하는 국왕의 밀서 3통을 받아 송정섭에게 주었다. 송정섭은 이 밀서를 옥천 송대신의 아들 판서 송병서, 연산 고 김대신의 손자 교관 김영선, 노성 진사 윤자신에게 교부하여 충청도의 토호, 명족, 동학당을 선동하는 일을 도모하였다. 한편, 이용호는 보은의 집을 거쳐 경상도로 가서 도처에서 동학도를 불러모았다. 그후 10월경에 이용호는 안동지방에서 국왕의 밀지를 내세워 동학당을 선동하다가 체포되었고, 이어 송정섭도 체포되었다. 그리고 경상도 청도군에 사는 최문여라는 사람도 대원군의 명령을 받고 상주로 내려가서 의병을 소집하였다.

3) 청국군과의 연결

농민군을 상경시켜 정국을 일신하고 정권을 장악하려 한 대원군파의 계획은 동학농민군을 상경시키는 데에 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청국군도 끌어 들여 상경하는 농민군과 연합케 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개화파를 내몰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³⁴⁾ 대원군파의 밀사로 평양에 간 사람은 김종한, 이용호, 임인수, 정인구, 김형목 등으로 이들은 7월 16일 용산에서 배를 빌려 수로로 연안으로 가서 21일 평양에 가 감사에게 밀서를 교부하였고 이때 이용호는 청장 위여귀와 면담을 하였다고 한다. 밀서는 대원군과 대원군의 장자 이재면이 평양감사를 통하여 청국군 장수에게 보낸 것으로 이 편지에서 대원군파는 청국이 많은 원병을 보내어 조선의 종사와 궁전을 보호해 주고 또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매국행위를 감행한 간당들을 하루 빨리 일소하여 위기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대원군파의 노력도 평양전투에서 청국군이 일본군에 패함으로써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당황한 이준용은 자신의 하인을 시켜 일본측이 평양전투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시내에 첨부한 벽보를 떼어내고 도리어 일본군이 패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그후 일본군 제1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대원군파가 청국장수에게 보낸 앞서의 편지들이 탈취되었고, 이를 가지고 일본측은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에게 위와 같은 서면은 실로 극히 무례한 것이므로 이를 소홀히 보아 넘겨서는 안되고 어떻게든지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고 항의했고, 대원군에게도 편지를 제시하면서 문책을 하였다. 그러자 대원군은 이 서면은 당시의 부득이한 형세에서 보낸 것이다. 지금 이것이 발각된 이상 참으로 무어라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자기는 일체 정사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³⁶⁾

4) 개화파 제거 : 김학우 암살사건

농민전쟁 시기 일본에 의해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된 대원군은 군국기무처내에 자기파인 박준양, 이태용,

3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15-19쪽

3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80-81쪽

3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85-91쪽

이원경을 앞두고, 이준용을 중심으로 유길준 등을 끌어들이 세력확장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파와의 알력이 심해져서 8월말경에는 군국기무처와 노골적으로 반목하게 되었고, 대원군계 인사들은 군국기무처 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로 위기에 몰리고 있었다.³⁷⁾ 더욱이 9월 상순경 허엽, 이병희에 의해 대원군파 이준용의 음모가 탄로나자, 위기를 느낀 대원군파는 정국을 일신하기 위해 개화파의 중심인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원래 개화파 암살은 농민군의 복상과 청국군의 남하를 기다려 내외가 합심하여 일본군을 격퇴하는 것과 함께 거행될 일이었지만, 여건이 변하여 따로 거사되었던 것이다.

대원군은 개화파인 경무사 이윤용의 관직을 박탈하고 개화파 암살을 고종주, 김국선 등에게 담당시켰다. 개화파 암살은 고종주-김국선-심원채-전동석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따라 추진되었다. 김국선은 相術客으로 원래 영남인이었으나 순창, 남원에 살다가 수년전에 고종주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이주하여 와서 고종주와 거래가 있었다. 김은 1893년 5,6월에 서울에 들어왔다. 김국선은 서울 창의문내 신당에 살고 복축이 직업인 심원채로 하여금 무리를 모으게 하여 전동석 이하 여러 사람을 모았다. 전동석과 심원채는 사제간이었다. 조용승, 윤진구, 정조원 등은 이 일을 찬조해 그 비용을 제공했다.

거사와 관련하여 대원군이 4차례에 걸쳐 고종주에게 서간을 보냈다. 9월 14일에 보낸 1차 서간에서는 3인이 거명되지 않았고, 창의문 용사가 많이 모여 개화당을 진멸할 수 있다고만 하였다. 9월 20일에 보낸 2차 서간을 통하여 비로소 김학우, 김가진, 김홍집 3인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그리고 9월 27일 보낸 3차 서간에서는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다. 4차 서간을 전달받을 때 김국선이 구전으로 이완용, 이윤용, 안경수, 유길준, 박정양, 권모 등을 지목했다. 이 서간에서는 시기를 놓치면 性命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4차 서간을 지시에 따라 전동석에게 전하여 돌려보게 하였다. 4차 서간은 9월 30일에 보냈다.

대원군의 지시에 따라 대상이 된 개화파들의 동태를 살펴오던 이들은 김학우에 계엄이 없음을 탐지하고 먼저 착수하기로 하여 심원채가 모은 장사, 검객을 동원하여 거사에 착수하였다. 자객들은 10월 3일 밤 김학우(1862~1894)의 사저를 습격해 그를 죽였다. 이 때 최형식이 주동했고, 고치홍, 이여익, 서병규, 이영배, 김한영, 장덕현, 최형순 등이 그 다음으로 下手했다. 김국선, 김내오, 이내춘, 조용승, 정조원, 윤진구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방조도 하지 않았다. 이어 다른 개화파들을 죽이려 했지만 경무청의 기찰이 엄해 착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암살을 통한 개화파 제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³⁸⁾ 암살에 관여한 인사들은 모살죄로 처벌을 받았다.³⁹⁾

5) 신정부 구성 시도

대원군파가 농민군을 상경시키고, 청국군을 끌어 들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개화파를 제거하려는 궁극적인

37) 유영익, 「군국기무처 의안의 분석」(『청일전쟁과 한일관계』, 일조각)

38) 『중법공초』(규17282), 「이준용공초」

39) 『동학관련판결문집』(정부기록보존소, 1994), 97~100쪽

목적은 정권을 장악하여 신정부를 구성하려는 데 있었다. 대원군과 함께 대원군파의 중심이었던 이준용은 내무협관에서 統衛使로 옮겨 兵權을 장악, 불시의 사용에 대비하고, 다수의 장정을 모아 대궐내에 은의하여 일본군대가 북진하여 병력이 허약해 진 틈을 노려 농민군과도 내외 상응하여 거사하려고 하였다. 농민군이 급강에 이르러 聲勢가 크게 들리는 소리가 놀랄 만하면 이준용은 이들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출진명령을 언어, 군병과 기백명 力士를 대동하고 과천, 수원 사이에 開府하여 오히려 일을 꾸며 합세 회군하여 서울에 들어와 사람들이 놀라고 왕이 피난할 때를 타서 한편으로는 그 부하인 통위영병대로서 왕실을 장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수인들을 지휘하여 김홍집, 조희연, 김가진, 김학우, 안경수, 유길준, 이윤용을 죽이고 정부를 전복하여 정권을 장악한 뒤 왕을 上王으로 추대하고, 왕비와 태자를 폐하여 이준용을 왕위에 올리기로 결정하였다.⁴⁰⁾ 그리고 대원군파의 사람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구성하여 박준양을 영의정에, 이태용과 김모를 각각 좌의정, 우의정에 앉히려 하고 있었으며, 고운정을 충청감사나 영남감사에, 그리고 고종주를 전라감사에 임명하려고 하였다.⁴¹⁾

그러나 대원군파의 정권장악 기도는 청일전쟁에서 청국군이 일본군에 패하고, 농민군도 진압당했을 뿐만 아니라, 개화파 암살마저 무산됨으로써 좌절되고 1895년 4월 19일 이준용, 박준양, 이태용, 허엽, 김명호 등이 모반죄로 처벌되었고, 대원군은 정계은퇴를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1895년 4월 29일 발표된 <大院君尊奉儀節>⁴²⁾에 의해 사실상 연금상태에 들어갔다. <대원군존봉의절>에는 '대문에 충순, 순검으로 立直케 한다.' '대소신민이 칙명외에는 감히 私謁치 못한다.' '출입할 시에는 궁내부에 먼저 알려 궁내관원으로 陪從케 하고 입직하는 충순, 순검도 警衛케 한다.' 라고 하여 대원군과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이준용의 경우도 인품 양성이라는 이름하에 일본으로 유학보내져, 매년 여름방학때만 귀성케 하여 사실상 국외추방되었다.

4. 향촌지배층의 동향

1) 향촌지배층과 그 존재형태

농민전쟁기 향촌지배층의 존재는 더욱 복잡다기하였고, 그 존재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그것은 18세기 이래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권 상실과 吏鄕層 또는 富民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재지사족 가문의 개별적인 지배는 도리어 확대되기도 하였고, 반대로 이향층과 부민층이 아직 구래의 지배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었던 것

40) 일본외무성자료, 「동학당사건 회심 전말 구보」, 이병휘가 차출한 시말서, 『재한고심록』, 392-396쪽, 『동학관련판결문집』, 97-100쪽, 「이준용공초」

41) 「이준용공초」

42) 『議奏』(규17705) 제7책

도 아니었다. 이향과 부민층은 독자적인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관권에 기생하거나, 또는 기존의 사족지배체제에 편입됨으로써 향촌지배층의 일단을 형성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향촌지배층을 사족층과 이향층, 그리고 평민 이상으로 부의 축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부민층으로 규정할 수 있다.

19세기 재지사족층은 개별적으로는 몰락사족과 지주층으로, 족적으로는 同姓村落으로 결집한 가문과 몰락가문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동성촌락을 통한 혈연적인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양반가문은 관권과의 결탁을 통해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촌락과 군현단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학문적인 사서관계와 서원을 통하여 횡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동성, 또는 동성촌락 내부에는 지주소작제의 모순과 嫡庶間의 신분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몰락사족과 서얼은 지주와 嫡孫에 대해 저항하고 있었고, 이러한 저항은 대체로 개인 또는 개별 촌락단위에 한정되고 있었지만, 이들은 조선후기 이래의 각종 변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서얼은 학문적 경제적으로 적손 못지 않은 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신분적 사회적 차별은 엄격하였다. 이러한 차별은 향촌사회와 동성가문 내에서 더욱 심하였다.⁴³⁾

동성간의 혈연적인 기반이 미미하거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던 사족가문의 경우에는 향촌사회 하층민의 신분적인 도전과 수령과 이향층의 경제적 침학을 배제할 수 없는, 말하자면 더 이상 향촌사회 지배신분층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는 입장이었다.

19세기 이래 수령권의 강화라는 현상과 짝하여 이향층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었다. 이들은 부세운영을 통하여 수령권과 결탁함으로써 수탈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향리들은 향리직을 세습적으로 독점하고 감영의 營吏와 연결됨으로써 수령권을 능가하는 위세를 누리기도 하였다.⁴⁴⁾ 이들은 일찍부터 향촌운영에 있어서 양반층과 대립하고 있었고, 이러한 대립관계는 봉건모순의 심화와 더불어 격화되고 있었다. 鄕吏亡國論은 양반층의 일반적인 견해였고, 상호간의 적대관계는 임술농민항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양반층은 이른바 三政의 문란으로 표현되는 봉건모순의 책임을 향리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향민층 역시 19세기 수탈구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18세기 이래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계층이었다. 이 시기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바탕한 것이었고, 이것은 농업과 상업의 분리를 일정하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鄕村지역과 邑治지역의 경제적 분화가 일정하게 진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민층은 향촌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바탕하는 경우와 읍치지역의 상업적인 분위기에서 상업활동을 통하여 성장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읍치지역의 부민층은 수령·향리층과 더욱 용이하게 결탁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부세수탈체제에서 이탈하거나 鄕任層으로 진출하여 향리와 더불어 이향층을 형성함으로써 수탈층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향촌지역의 부민은 이 시기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농민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 洞長과 里執綱 등 지방행정의 말단조직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의 위치는 불안정한 것이었고, 수탈의 대상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이들은 신분제와 부세문제에 일찍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43) 정진영, 1993 『조선후기 在地士族의 村落支配와 그 해체과정』 영남대 박사 학위논문, 참조

44) 이훈상, 1990 『朝鮮後期の 鄕吏』 일조각, 참조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농민전쟁기에 이들의 활동을 기금하게 해 준다.⁴⁵⁾

2) 농민전쟁과 향촌지배층의 동향

농민전쟁을 이끌어 가던 지도부는 보다 많은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였지만, 향촌사회의 지배층을 농민군의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향촌사회 지배층의 입장에서도 봉건체제의 전면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농민전쟁기 향촌지배층의 동향은 물론 개개인의 존재형태와 현실인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급적인 이해관계와 개별 향촌사회가 가지는 특수성과 그 내부의 복잡한 상호 갈등 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들의 동향을 계급적·신분적으로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 없다. 농민전쟁기 지배층의 동향은 이러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농민군의 지향과 향촌지배층

19세기 후반 조선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의 핵심은 봉건체제의 모순과 외세의 침략이었고, 후자는 전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당시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東學의 창도 또한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동학은 이들 진보적 지식인들과 당시 사회모순을 질곡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많은 불만세력들의 활동 무대를 마련해 주고 있었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었다. 진보적 지식인들과 불만세력들은 혹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혹은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동학 조직에 참여하거나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농민의 질곡을 해결하거나 대변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들은 농민의 봉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농민군의 지도자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농민전쟁의 지도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따라서 이들의 구성은 몰락하거나 불우한 양반 뿐만 아니라 상당한 학문적 소양과 지주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이름 있는 선비와 문벌 있는 양반층”,⁴⁶⁾ 그리고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통해 신분상승과 관직을 매득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신분층에 편입하거나 할 수 있었던 부민층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은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추동되면서, 또는 농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혁명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사회세력의 결집이 필요하였다. 농민전쟁기에 제시되었던 ‘斥倭洋’과 ‘除暴救民’은 농민군이 지향하고 있었던 이념과 목표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더욱 많은 지지세력의 확보를 위한 구호이기도 하였다.

척왜양은 이미 보은·금구집회 당시의 주된 구호였고, 2차봉기시에는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개항 이후 반외세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양반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것

45) 정진영, 1991 <19세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대립관계>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참조

46) 『東學亂記錄』 상, <선봉진방시문>, 『홍덕·고창』 倡義錄, 『學義事實』 참조

이었다.⁴⁷⁾ 일본군의 침략과 내정간섭, 그리고 청일전쟁의 발발은 민족모순을 더욱 심화시켜 가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모순의 심화와 왜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⁴⁸⁾에도 불구하고 양반층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제폭구민에 대한 필요성은 양반층에 있어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었고, 이것은 일찍부터 다양한 개혁론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진보적인 지식인층은 이러한 입장에서 농민군에 가담할 수 있었다.⁴⁹⁾ 그러나 양반층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개혁의 문제를 농민군에 일임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봉건체제의 모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제도의 보완과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농민군의 반봉건은 결코 양반층 일반의 이해와 합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부민층은 더욱 적극적으로 농민군의 반봉건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부봉기에서 “富民錢 一만량을 녹탈한 일”이 제기되었던 것이나, 동학의 조직과 함께 洞長 里執綱層이 봉기에 적극 이용되고 있었음은 이같은 사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이다. 농민군에 참여한 부민은 주로 농업적인 기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外村지역의 부농층이었다. 농민전쟁 후 東學餘黨으로 체포되는 농민군의 상당수는 외촌 거주 부민이었고, 이들은 농민전쟁기에 주로 ‘접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18세기 이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던 계층이었고,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신분상승과 각양의 관직을 매득함으로써 기존의 양반체제에 편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향촌사회에서 여전히 기존의 지배신분층과는 구별되고 있었고, 수령권으로부터의 수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과 경제적 기반은 불안정한 것이었다. 더욱이 개항 이후 외세의 경제적 침략과 이에 편승한 수령권의 탐학에서 이들은 최대의 피해자였다.

(2) 민보군의 구성과 향촌지배층

농민군이 봉기하고 활동하던 지역에는 민보군 또는 守城軍이 조직되어 농민군을 색출하고 탄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민보군은 향촌사회 지배층을 중심으로 조직된 일종의 민軍으로, 반농민군 세력의 총결집체였던 셈이다.

민보군의 결성 시기와 주도층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민보군은 일부지역에서는 이른 시기에 결성되고 있었지만, 대부분 농민군의 패색이 짙어지는 11월 이후에야 가능하였다. 이것은 농민군 세력의 강약과도 관련이 있었지만 수령의 邑政 수행여부와 더욱 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민보군의 결성에 있어서 흥덕·고창의 경우에는 양반층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향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⁵⁰⁾ 이것은 농민군의 활동이 外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사정에서 양반층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公論의 분열과 鄉權의 상실에서 말미암은 양반세력의 결집이

47) 삼례에 본부를 둔 농민군 지도부는 동도창의소의 이름으로 반침략 항일투쟁에 총의지사등의 거병을 추구하고 있었다.

48) 농촌경제연구원, 1991 『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 상, 11월 15일 “갑오년에 동학이 난을 일으키자 - 일본은 마치 큰 돼지나 긴 구렁이 처럼 탐욕스런 계획하에 궁궐을 침범하고 개화를 강요하였다.”

49) 비록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茶山의 저작과 진봉준의 관계는 시사되는 점이 많다.

50) 예천의 경우에는 향리들의 주도로 보수집강소가 조직되었다. (『예천군척사록』 참조) 예천의 보수집강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신영우, 1984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사실상 어려웠던 때문이기도 하였다. 양반층의 이러한 사정은 부세운영을 둘러싸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향리층과의 타협을 피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민보군은 읍내를 장악함과 동시에 외촌지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통제하에 둘 수 있었다. 외촌지역의 통제는 鄕約이나 面里조직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조직은 이제 양반의 조직기반이 아니라 관권 수행의 구체적인 장치일 뿐이었다.⁵¹⁾ 양반층과는 달리 향리층의 근거지는 읍내였고, 읍내의 守城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또한 이들은 19세기 이래 수탈구조의 핵심으로 농민군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민보군의 구성에서 주목되는 존재는 閑良層이다.⁵²⁾ 19세기의 한량은 일정한 屬處가 없는 읍내의 부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³⁾ 이들 부민은 주로 수령, 향리와외의 결탁을 통해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면서 더욱 용이하게 부세수탈체계에서 벗어남으로써 한량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보군의 조직에 있어서 이들은 향리들과 더불어 또는 그 이하 각종 소임의 실무자였다.

민보군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또는 중앙군·일본군과의 협력하에 농민군 주력부대와외의 전투를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패산한 농민군의 색출과 이들의 농민층과의 합류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농민전쟁이 농민군에 참여하였던 향촌지배층은 농민전쟁의 패배와 더불어 철저히 제거되었지만, 민보군에 참여하였던 향촌지배층, 특히 보수양반층은 결코 가능하게 보이지 않았던 개화정권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연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계급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개화정권과 일제의 침략세력에 의해 얻어진 향촌지배층의 계급적 이해는 민족모순의 심화 속에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향촌지배층이 일제의 침략세력과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민족모순보다 계급모순의 해결을 더욱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5. 맺음말

농민전쟁의 발발과 일본에 의한 민씨정권의 퇴진과 함께 등장한 '개화파'는 일련의 반봉건 개혁사업을 통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통치의 범위가 중부지역과 영남지역에 국한되고 있었고, 중앙권력내에서도 기반이 확립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8월 중순부터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점차 내정간섭을 노골화하고 농민군 탄압 요청을 강화할 뿐 아니라, 대원군파와 박영효 등의 갑신개화파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개화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51) 나주지역에서는 1893년 12월 목사 민종렬에 의해 절목이 반포되어 갑오 정월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52) 『홍덕창의록』 좌목에는 전직관료·진사·유학이 20명, 향리·장교가 13명, 출신이 3명, 한량이 7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천군척사록』 좌목에는 공생·통덕랑 등이 43명, 유학 7명, 한량이 33명이 등재되어 있다.

53) 한량은 시대에 따라 그 뜻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부유하면서도 校籍과 軍籍에 오르지 않아 아무런 소속과 직업이 없는 하층양반이나 상층평민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였다.

이에 '개화파'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하고 조세제도 폐단 개혁 등의 경제적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정권기반 안정화를 위해 군국기무처를 의회로 승격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사업에 대해 고종의 전면적인 지지를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9월 중순 이후 농민군 진압의 주도권이 일본에 넘어가고 대원군 퇴진과 더불어 박영효, 서광범 등의 친일개화파가 전면에 부상함으로써 갑오정권의 '개화파'는 후퇴를 강요당하게 되었다.

농민전쟁의 확대와 대원군 웅립설로 고무되고 있던 대원군파는 일단 갑오정권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정계에 복귀하였다. 이후 이들은 개화파를 상대로 농민군 처리와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거듭했고, 마침내 적대관계에 들어갔다. 이런 국면에서 대원군파는 1894년 8월 초순부터 국면전환을 위해 일련의 계획을 수립,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그것은 농민군을 상경시키고, 청국군을 끌어 들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개화파를 제거하여 정권을 장악한 뒤, 왕을 上王으로 추대하고, 왕비와 세자를 폐하여 이준용을 왕위에 올려 신정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대원군파는 전봉준, 김개남 등의 농민군 지도부와 청국군에 밀사를 파견하여 氣脈을 통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장정을 모으고, 이준용으로 통위영을 장악하게 하여 거사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정권장악 기도는 청일전쟁에서 청국군이 패하고, 농민군도 진압되었으며 비상수단으로 거행된 개화파 암살마저 무산됨으로써 좌절되고, 대원군은 연금되고, 이준용은 국외추방되었다.

농민전쟁기 향촌지배층은 대체로 시족층과 이향층, 그리고 부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상호간은 물론이고 동일 신분 내부에 있어서도 경제적·사회적 분화에 따른 계급적 이해관계는 일치할 수 없었다. 여기에 개항 이후 강화된 외세의 침략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농민전쟁에 대한 향촌사회 지배층의 대응은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전쟁 시기 향촌지배층의 한 부분은 농민군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른 부분은 반농민군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전자는 일부 양반층을 포함한 진보적 지식인층, 농업에 기반을 둔 부민층으로 농민군 지도부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후자는 대부분의 양반층과 향리, 그리고 읍내지역의 부민층(한량)으로, 이들은 민보군 또는 수성군을 조직하여 이전에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개화파 정권 일본군과 결탁하여 농민군을 탄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탁은 이후 민족모순이 심화되고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속에서 계속될 수가 없었다.

6. 청일 양국의 농민군대책과 청일전쟁

1. 머리말

2. 청일의 출병과 대농민군 정책

- 1) 청국의 농민군 인식과 정책
- 2) 일본의 농민군 인식과 정책

3. 청일전쟁과 농민군의 동향

- 1) 아산 성환 전투기간
- 2) 평양전투 황해해전 기간
- 3) 일본군 청국영토 진입 이후 농민군의 동향

공동연구 ■ 최덕수(고려대), 조재곤(국민대 박사과정)

1. 머리말

농민군의 전주 점령을 기회로 청일양국은 각기 대군을 파병하였고, 나아가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동양평화'를 명분으로 농민군을 탄압하고, 청국을 구축함으로써 1894년 이후 제국주의 국가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종래 농민전쟁 및 청일전쟁 관련 연구는 청국과 일본, 그리고 열강과의 관계 변화의 분석에 치중한 결과 각 단계별 농민군의 동향과 관련한 청일전쟁의 진행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 지워 이해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은 청일 양국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반대로 청일전쟁은 농민전쟁이 반봉건전쟁에서 반봉건 반침략전쟁으로 전환하게 되는 전기가 되었다.

청일군의 출병은 조선인 모두에게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었다. 청일 양국의 출병으로 인한 외세의 간섭을 염려한 농민군은 관군과 화약을 맺고 정세를 관망하였으나, 일본이 조선정부와 '잠정합동조관'·'양국맹약'의 체결을 통해 전시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고 평양전투 이후 농민군 토벌을 본격화함에 농민군도 대일 항전을 전면적으로 추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청일 양국의 출병과 전쟁이라는 외압이 농민전쟁과 어떻게 관련 지워져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일의 출병과 대농민군 정책

1) 청국의 출병과 농민군 인식과 정책

동학농민군 대책으로 조선정부의 청병 차병 논의는 1893년 3월 보은취회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었다. 농민

군 지도부는 보은집회 당시 척왜양과 탐관오리 축출을 명분으로 제기하였으나, 척왜양을 더 전면에 내걸었다. 보은취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왕은 청국의 경우 영국군을 차용하여 내란(‘태평 천국’)을 진압한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도 청군을 차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었다.

청병 차용 요청은 황토현전투 직후 초토사 홍계훈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홍계훈은 ‘然而見今事勢 我小彼多 難以分兵推擊 伏乞請借外兵以助之’라 하였다. 이와 같은 홍계훈의 주청은 묘당회의에서 첫째 수많은 생명이 외병에 의해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외병의 폐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인심을 선동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제삼국의 출병을 물고와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제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의정부 조회의 형식으로 4월 30일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¹⁾

조선정부의 요청을 받은 청국은 군대 파병에 즈음하여, 천진조약에 입각하여 일본에 대해 청국의 출병을 알렸다. 즉 “...방금 조선정부로부터 온 문서를 받아본 비에 의하면, 전라도 관할하의 인민은 습성이 흉하고 사나워서 동학 敎匪와 규합, 무리를 지어 縣邑을 공략하고 또 북쪽에 있는 전주를 함락 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의 극심한 만연을 그대로 두어 오래 끌게되면 귀국에게도 우환을 많이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壬午와 甲申 양차에 걸친 내란 때에도 중국군대에게 의뢰해서 대신 이를 물리치고 진정시킨 전례도 있으므로 그 전례에 따라 얼마간의 군대를 참작 파견하여 속히 와서 정토를 대신해 달라고 간청해 왔읍니다... 본 대신도 이를 보건대 그들의 간곡한 사정 이야기가 질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를 파견해서 원조하는 것은 우리 조정이 屬邦을 보호하는 옛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칙유를 받들어 직예총독 葉으로 하여 정예군을 선발 대동케 하고 조선의 전라 충청도 지방 일대로 시급히 달려가... 힘을 다해 속방의 나라 안이 안정되도록 하려고 하였으며 조선안에서 무역을 일삼고 있는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두 각기 그 생업의 안정을 되찾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²⁾

청군의 파병은 임오군인 항쟁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확립된 청국의 조선 ‘속방화정책’의 연장이었다.³⁾ 이와같이 청국은 1차 농민전쟁의 성격을 반봉건으로 이해하고 농민군이 제기하는 외국인 구축은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국의 출병에 대응한 일본의 무력 간섭 가능성에 대해 일본국내의 정치불안(의회와 정부의 대립)이 치열하여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국방비 예산 증액문제를 두고 의회와의 심각한 갈등이 의회의 내각불신임안 가결(4월 31)로 나타나자 오히려 전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내정 불안을 해결하려 하였다.

청군의 선발대 910명이 총병 섭사성의 지휘하에 아산만 백석포에 상륙한(5.5) 다음날 일군의 선발부대도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일본의 적극적인 공세에 당황한 청국과 조선은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이 해산하자 청일 양군의 대치는 전쟁 가능성 및 열강의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일본에 대해 철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 김창수, 『동학농민봉기와 청국의 반응』 『현암신국주박사화갑기념한국학논총』 (1985) 414-424쪽 참조

2) 『공서관기록』3권 「조선에 속방보호를 위해 출병한다는 이홍장의 통고」, 43쪽.

3) 임오 갑신 이후 청의 조선정책에 대한 것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김정기, 『청의 조선정책(1876-1894)』 『1894년 농민전쟁연구 3』(역사비평사, 1993).

천진조약 체결 이후 조선에서의 세력 회복을 정치 군사적인 해결방법으로 굳히고, 기회를 찾고 있었던 일본이 이를 거절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오히려 일본은 농민군의 공동진압과 재봉기를 근절 시키기 위한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역으로 제안하였다.

이홍장은 조선에서 청국의 우위를 견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영국과 러시아 등 열강의 거중조정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정략은 전통적인 외교정책 '以夷制夷' 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을 둘러싼 이 시기의 대외정세는 임오·갑신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이제이'의 결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시기 영국이 제기한 조선분할 점령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5월 20일 경 영국 외무대신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분할점령안은 "남부 4개도의 대외 및 대내 문제를 일본의 단독 감독권의 보호하에 두고, 동시에 북부 3개도도 동일한 조건하에 청국의 보호하에 둔다. 단 서울은 서로 점령하지 않고 놓아둔다"는 것이었다.⁴⁾ 일본정부는 영국의 제안에 대해 청국정부의 수락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국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면으로는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결국 제1차 농민전쟁과 전주화약 시기 청국의 대농민군 대책은 임오 갑신기의 조선정책이었던 '속방화정책'의 연장이었다.

2) 일본의 농민군인식과 정책

청일전쟁 시기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신문사의 종군기자는 66개 신문사에 114인이었다.⁵⁾ 유력지 『시사신보』의 경우 농민전쟁관계 기사는 복합상소와 보은집회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보은집회를 전후하여 조선의 정세변화에 유의하면서 방곡령사건 등 현안문제에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자세를 촉구하였다.⁶⁾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동학'이 외국인들이 경계해야 할 정도는 아니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농민군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농민군이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 가운데 '경성 주재 청일 상인을 개항장의 거류지로 퇴거하게 할 것'이란 구절을 인용하여, 동학이 폭도라면 일거에 외국인을 배척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개항장의 거류지라는 일견 합법적이고 온건한 자세로 미루어 예사 집단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극심한 재정 곤란을 겪고 있는 조선정부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예상하고, 조선 거주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책 마련을 촉구

4) 「조선8도의 분할보호에 관한 재미공사의 건의안」 『공사관기록』 4권, 23쪽. 「영국정부가 제의한 청일양국군대의 분할점령안」 전게서, 45쪽. 「조선분할점령안에 대한 영국 외무대신의 의견」 전게서, 53쪽 참조 이와같은 한반도 분할 점령안은 아관파천 이후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 문제를 두고 세력 각축이 치열하던 시기 일본에 의해 제기(1896년 5월 로마노프 산현의정서)되기도 하였다.

5) 海野福壽, 『日清日露戰爭』(東京, 集英社, 1992) 76쪽.

6) 『福澤諭吉全集-時事新報論說集-』 14권 「조선의 정정」(1893.4.18), 「閩族의지위」(93.4.19), 「방곡사건의담판」(1893.5.17), 「방곡의담판속히할것」(5.18), 「담판의결국여하」(93.5.19), 「양국민상접하는기회를 열어아한다」(95.20), 「방곡담판의 낙착, 대석공사의거동」(5.23)

하였다.

동지는 농민군 전주성 점령일의 사설 「조선동학당의 소동에 대해서」(양5.30)에서 “조선정부가 위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국에 원병을 청할 것이며, 지나정부가 원병을 발하면 일본도 역시 같은 규모의 군대를 파견하여 반드시 대등한 지위를 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설은 당시 일본 국내 대외강경외교를 촉구하는 정치세력(대외경파)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던 날 일본 중의원은 이토오 내각의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정부로서는 총사직인가 아니면 의회해산 후 총선이라는 기로에서 농민군의 전주입성과 청의 파병 소식을 접했던 것이다.

일본 각의는 5월 2일 각의에서 출병을 결의하고, 귀임 중이었던 오오토리공사를 육전대 400명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게 하였다. 또한 5일에는 1893년 4월 공포한 「전시대본영조례」에 근거하여 대본영을 설치하고 칠팔천명 규모의 혼성여단을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날짜 『시사신보』는 「계획의 면밀함보다는 착수의 신속함이 요망됨」이란 사설에서 일본의 즉각적인 무력 개입을 요구하였다. 또한 출병의 후속책으로 일본 국내 오오사카-시모노세키간 철도의 조기 완공과 조선에서 통신수단의 확보를 촉구하였다. 신문도 출병 시기 이미 군대의 장기 주둔과 청국과의 전쟁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내의 정세는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이 표면적으로는 해산하여 평온을 되찾고 있었고, 청국과 조선정부는 일본의 철병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농민군의 해산을 믿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청일양군에 의한 농민군의 진압, 농민군 봉기의 원인인 조선 내정의 폐단을 공동 개혁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개혁이 성공할 때까지 양국 군대의 주둔을 제안하였다. 농민군의 진압과 농민군의 재봉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선정부의 개혁을 동시에 제안한 것이었다. 농민군의 탄압과 조선의 내정개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다. ‘속방론’의 입장에 섰던 청국이 이를 받아들여라라고는 일본측도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었다. 조선과 청국 그리고 열강의 철병요구 압력에 직면하여, 일본은 ‘속방론’ 이야말로 조선의 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열강의 간섭을 배제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외무대신은 조선공사에게 농민전쟁 상황에 대해 가능한 급박한 것으로, 그리고 조사를 지연시켜 보고할 것을 훈령하는 한편 전쟁준비와 열강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농민군 및 청국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열강의 간섭배제가 조선지배 최대의 관건이었다. 이 두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꾸려내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의 전쟁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전면전에 대비하여 일본은 일차적으로 조선정부 내 일본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포섭⁷⁾을 시작하였고, 밖으로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견제하는 영국의 지지를 얻기에 노력하였다. 영국과의 새로운 통상항해조약이 6월 14일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관세지주권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나 영사재판권의 폐지, 최혜국대우 조항 삽입 등에 성공한 것이었다. 조약의 체결은 영국으로부터 조선문제에 대한 외교적 양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열강의 간섭에 대한 방벽을 마련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의 길로 나섰다. 6월 21일 새벽 경복궁을 무력 점령한 일본은 뒤이어 아산면에서 청국함대를 기습공격하였고, 성환 평택 전투에서 청군의 기선을 제

7) 「조선정부에 대한 예비공작에 대한 지시」(6.26) 「조선인 중에서 친일개혁파확보지시」(7.10) 『공사관기록』 4권, 211쪽 및 229쪽 참조

압한 뒤 7월 1일 ‘조선의 자주독립과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해 청국과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다. 전쟁 발발과 함께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은 국외중립을 선언하고 전쟁의 추이를 관망하였다.

치밀한 전쟁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작전수행에서 조선민중의 반일감정에 의한 비협조와 저항, 병참의 미확립, 대다수 지방관의 일본군 지령회피, 대원군을 비롯한 정권담당자의 비협조, 농민군의 재봉기 등으로 전쟁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민군과의 전투와 밖으로 청국 및 열강의 간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조선정부를 그들의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즉 조일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신정부와 이를 타결지었다.

「잠정합동조관」(1894.7.20)과 「양국맹약」(1894.7.26)이 그것이다. 「잠정합동조관」 제5관에서 조선과 일본은 ‘본년 7월 23일 대궐 근처에서 일어난 양국 병원의 우연한 충돌사건은 피차에 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복궁점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일본이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 조선 정부에 건의하는 개혁안을 조선정부는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1관). 2관과 3관에서 규정한 철도와 전신선 관련 조항들은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같이 위에서 열거한 전쟁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는 것들이었다. 나아가 전쟁지원체제 구축에 성공한 일본은 농민군과의 전투에서 일본과 조선정부의 역할을 확정지었다. 「양국맹약」(전3조) 제2항은 ‘일본국은 청국에 대하여 攻守의 전쟁을 담당하고 조선국은 일본군대의 진퇴와 그 양식준비 등의 사항을 위하여 반드시 협조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전쟁은 일본이 담당하고 일본의 전쟁 지원 요청에 조선정부는 반드시 협조하도록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학진압군 위해 파견대장에게 주는 훈령」은 “동학당 진압을 위해 전후로 파견된 韓兵 각대의 진퇴 조달은 모두 我士官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며 我軍法을 지키되 만약 이를 위배하는 자는 軍律에 따라 처분하도록 조선정부로부터 한병 각 대장에게 전달한 터이므로 三路로 이미 출발하였거나 장래 출발할 한병의 진퇴는 모두 我士官이 指揮 命命할 수 있다.”(2항)라고 밝히고, 전투에서 유의할 사항으로 “만일 匪徒가 강원 함경방면, 즉 俄境(러시아국경)에 가까운 지방으로 逃逸하는 경우에는 後害를 남기지 모르니 이를 엄밀히 예방할 것”(3항)을 강조하고 있다.

3. 청일전쟁과 농민군의 동향

1) 아산·성환전투 기간

1차 농민전쟁을 구실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각축 상황에서 전라도 전역에서 활동하던 농민군은 드디어 4월 27일 전주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5월 5일, 5월 6일 잇따른 청·일군의 조선출병은 농민전쟁의 판도를 전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농민군은 청군과 일본군의 출병으로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이를 청일전쟁이라는 국제분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깊이 우려

하고 5월 8일 관측과 전주에서 강화를 체결하고 전주성을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농민전쟁의 휴지기(전주화약후 집강소 시기)가 됨에 조선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소멸되자 곤혹스러워진 일본은 5월 17일 충청·전라 지방에 시찰요원을 파견하여 농민군의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른바 ‘내정개혁’을 빌미로 조선문제에 개입할 명분을 다시 찾아보려고 전전공공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청국과의 개전이라는 급박한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6월 중순에 가면 조선문제에 관한 일체의 자결권을 오오토리 공사에게 부여하여 조선 지배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일본군은 6월 21일 새벽 일본군에 의한 왕궁점령은 중앙정부는 물론 재야 모두 일본에 의해 국권이 종속될 절대절명의 위기로 인식되었던 중대한 사건이었다. 왕궁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소식은 곧 삼남 지방까지 전파되었다. 일부 집강소의 농민군은 곧바로 6월말부터 거병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무장을 강화하고 일본군과 거류민을 구축하고자 즉각 북상하고 있었다. 7월 1일 무렵에 가면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삼남지방 각처에서 봉기에 돌입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전쟁준비는 아니었고 당시의 일반적인 추세도 아니었던 듯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경북궁 쿠데타로 인해 분명 국권이 위기상황에 돌입했음을 감지한 농민군의 상황인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일본군의 조선진출과 왕궁점령을 식민지화의 결정적인 위기의식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1차 농민전쟁을 지속시키면서 농민적 지향을 확산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북상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갑작스런 입성과 그로 인한 민씨정권의 붕괴로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집강소에 근거, 일본과 청국의 군사적 동향과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적 시기의 도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궁점령 이틀후인 6월 23일 일본해군은 아산 앞바다 풍도 일원에서 기습적으로 청국함대를 선제공격하였다. 이로부터 청일전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궁극적 목표를 청국과의 전쟁을 통한 동아시아 제패에 두고 있었던 일본은 치밀한 사전계획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작전수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아산전투 직후 곧바로 성환에서 청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투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앞서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병참의 미확립과 함께 조선민중의 반일감정과 비협조, 완강한 저항, 대다수 지방관의 일본군 지령 회피, 대원군을 비롯한 정권 담당자의 비협조, 농민군 재발 우려 등 전투 외적인 상황의 전개였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개된다면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일본은 후일 8월의 평양전에서는 각별히 유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7월 4일 일본군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청국은 초전부터 전쟁 결과를 오판하고 자국의 승리를 당연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아산·성환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7월말 이후까지도 청국군은 즉각 전면전을 구상하지 않고 평양에 장기 주둔하면서 남하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본은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일본군대는 이후 계속 조선에 증파되었다. 이 아산·성환전투는 일본군의 대농민군 정책을 ‘공세적 작전’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평양전투·황해해전 기간

8월 17일 평양을 공략하여 함락시킨 일본군은 다음날 18일 황해해전에서 승리, 북양함대를 궤멸시켰다. 8월 18일 황해해전으로 일본이 서해안의 제해권을 획득함에 따라 청군의 전투력은 이전과 비교 안될 정도로 약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군은 자유로이 조선 연안을 항행하면서 군대·군수품 수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일본은 대륙에의 진로를 개척하고, 농민군에 대한 탄압을 체계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게 된다.

그 방법으로 8월 18일 외무대신 무츠는 오오토리 공사에게 훈령하여 전승지역에 조선군 고급장교를 파견하여 민심을 복종케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어 다음날에는 조선정부에 대해 일본의 세력확장에 주의할 것과, 제3국에 대한 조선의 외교·내치상의 중대한 사건은 공사 동의 후 시행케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대조선 정책의 자신감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본격적인 ‘보호국화’ 정책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훈령의 결과 일본군의 농민군 토벌은 적극화된다. 일·청의 흥망과 관계되는 평양전투·황해해전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지속적인 대청전쟁을 위해 일부는 계속 북상하고 나머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대거 남하하고 있었다.

평양전투 시기에 가면 농민군의 활동은 이전 아산·성환전투기에 비해 더욱 본격화된다. 2차 농민전쟁을 일으키기 직전 전봉준은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궁극적인 목적 즉, ‘入韓의 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고⁹⁾ 이를 통해 일본의 침략 본질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평양전투 직전 전주 전라감영에서 탄식하기를 “우리들의 擧兵은 생각지도 않게 그 매개가 되어 금일 청일의 兵爭을 보기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를 천추의 유감으로 여기는 바다”¹⁰⁾라 하였다. 이 단계에 가면 전봉준과 농민군에게 조선영토에서 청일간의 전쟁은 ‘천추의 유감’으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평양전투 이전부터 정부는 일본과 세를 합하여 농민군 토벌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러한 소식은 금방 전국에 깔렸다. 호남의 집강소에서는 다시 농민군을 일으켜 대적하자는 의논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8월 초에는 충청도 농민군, 8월말에는 전라도 농민군의 본격적인 무력투쟁으로 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평양전투 이전까지는 일본의 조선지배는 안정된 것도 아니었고 당시 戰局 형세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식민지화에 대한 결정적 위기의식은 평양전투 傳聞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 전라도 농민군과 경상·충청 농민군의 행동방략과 향후 행보문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전라도는 집강소와 연관하여 주로 내부모순 즉 반봉건의 폐정개혁에 주력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고, 경상·충청도의 농민군은 斥日의 깃발을 들고 지속적으로 병참부를 습격하는 등 대외모순 해결에 노력하고 있었다.

3) 일본군 청국영토 진입이후 농민군의 동향

일본군의 대규모 농민군 토벌 투입은 조선내에서 청일전쟁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평양전투 1달 여

8) 일본육군성편, 1966 『明治軍事史』, 原書房, 913쪽.

9)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자.

10) 『日清交戰錄』 12, 『東學黨守令訪問記』, 明治 27년 10월 16일, 43쪽

후부터 시작된다. 9월 9일 총리대신 김홍집은 일본군의 청국 봉황성·여순구 함락을 기대하면서 충청관찰사 박제순에게 보내는 서한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전쟁이 종결된 후 일본 육병 10만이 개선하고 그 소식이 匪徒에게 들리면 당연히 이들은 소산할 것이고 그 날은 멀지 않았다. 매우 관심이 되는 바이다.”¹¹⁾ 즉 대청전 수행 일본병력이 개선 후 즉각 농민군 토벌에 투입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어 9월 21일 농민군 초토를 위해 일본은 개화파 정부와 결탁 농민군에 대한 대대적 ‘살육정책’을 공식적으로 취하기 시작하였다.

당초 청일전쟁 초기 일본의 목적은 조선지배에 국한되어 있었던 제한적 전쟁의 의미가 강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 수행과정에서 예상 이상으로 무기력화된 청군의 모습을 보자 본래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평양·황해전투 직후 제2군의 편성에 착수하고, 청국본토의 분할을 목적으로 대륙침략전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9월 26일 일본군의 청국영토 진입 이후 전쟁은 성격변화를 보이게 된다. 일본군이 청국영토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이라는 2개의 전쟁이 병행되고 있었다. 이 양자의 성격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밀접한 관련과 영향력을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청군이 사라진 조선내에서 일본은 친일정부를 앞세워 조선지배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었으며, 농민군의 활동 저지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골적인 식민지화의 강요와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는 농민군의 일차적 목적인 반봉건 사업 추진 과정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농민군은 재봉기하여 반침략 의지를 천명하였다. 후일 재봉기의 목적에 관한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심문에 전봉준은 답하기를 먼저 “奸영을 갈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일본병을 척퇴코자 擧義하기에 이르렀다.”¹²⁾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면 농민전쟁은 반침략전쟁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반침략전쟁은 반봉건전쟁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

전면적 재봉기 직전인 8월 말~9월 초엽 이후부터 농민군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그러한 분위기는 도처에서 보인다. 물론 이전부터 국지적 형태를 일부 보이고 있었지만, 전면적인 2차농민전쟁으로의 전환은 삼례의 大都所를 거점으로 한 전봉준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재봉기의 시점은 일본군이 청국 영토로 진입하는 시기와 같다. 이 시기 농민군의 적극적 활동은 일본의 대청전쟁시 작전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관내 동북부 지역에서 청국과의 전투는 일본군을 조선의 농민군 진압에 투입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10월 12, 13일 양일간에 금주·대련만을 함락시킴으로 이전 중국 관내에서 청일전을 벌이던 병력을 농민군 토벌에 집중적으로 투입시킬 수 있었다. 10월 25일 여순함락 직전 경에 가면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은 농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농민군 토벌의 핵심은 관군이 아니라 일본군이였다. 일본은 관군을 구사하여 농민군을 진압하였다. 일 예로 공문의 「大日本國 第二中隊 大隊長 南小四郎 麾下 左先鋒 李」¹³⁾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군대는 철저하게

11) 『東學亂記錄』上, 「錦營來札(道園)」, 甲午 9월 9일, 78면.

12) 「全捧準初招問目」 및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5일자.

13) 『東學亂記錄』下, 「日本士官函牒」, 甲午 12월 25일.

일본군에 종속되어 있었다.

한편 중국본토의 대청전에서 일본군의 계속되는 승리는 조만간에 청·일간의 '和局'을 예견하고 있었다. 반면 이 기간 일본은 농민군의 '用力撲滅'을 위해 많은 軍火를 호남으로 내려 보냈으며, 개화파 내각에서도 '匪徒의 剿滅'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군 지도부는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군에 대한 농민군의 열세는 더 이상 농민적 지향을 확산시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실적인 힘의 열세는 농민군으로 하여금 계속 수세에 몰리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우세한 화력과 관군의 지원을 받는 일본군의 대대적인 討匪'활동으로 농민군은 곳곳에서 연전 연패하였다. 일본군은 농민군 토벌 京兵을 배속받아 계속해서 대거 남하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 초에 가면 대다수 농민군은 궤멸되거나, 각 지역으로 은둔하고 있었다. 1895년 2월 일본은 농민군 토벌후 잔여세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 요지에 일본군을 주둔시켰고, 대청전쟁을 귀결짓는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즈음인 3월 수비대 1만을 조선에 배치하였다. 이는 농민군의 철저한 진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4) 『東學亂記錄』上, 「錦營來札(雲養)」, 甲午 11월 冬至前 1일, 95면.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

- | | |
|-------------------------------------|-----------------------|
| 1. 머리말 | - 태평천국운동을 중심으로 - |
| 2. 농민항쟁의 일반적 성격 | 5. 1894년 농민전쟁의 주체와 지향 |
| 3. 봉건사회 해체기 유럽의 농민운동
- 연구사적 검토 - | 6. 1894년 농민전쟁의 의의와 한계 |
| 4. 19세기 중국 농민반란의 성격 | 7. 맺음말 |

공동연구 안병욱(성실여대), 윤승준(인하대, 서양사)
김성찬(인제대, 동양사), 박찬승(목포대)

1. 머리말

19세기 조선사회는 민중봉기에 의해 중세사회가 해체되는 시기이다. 아래로부터 성장해 온 새로운 동력에 의해 낡은 체제가 부정되고 극복되는 과정이었다. 19세기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봉건체제가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는 변동과정에서 야기된 일들이다.

조선후기 사회는 농업기술의 발달과 농업경영의 개선등으로 생산력의 증대를 꾸준히 이루어 왔다. 생산력의 발달은 이에 따르는 생산관계와 더불어 분배문제, 지배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조선왕조 체제는 이러한 역사적인 요구와는 무관한 채 잉여생산물을 소수 봉건세력이 독점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당시 조선사회에서 제기된 과제는 잉여생산의 사회적 분배에 있어서 직접생산자와 봉건지배층 그리고 국가권력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었다.

1894년의 농민전쟁은 이와같은 상황에서 봉건적인 중세사회를 마무리짓기 위한 총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낡은 사회를 극복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농민전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소이는 역사 전환기의 변혁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데 있다. 변동기의 변혁주체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역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조망을 얻으려는 것이다.

2. 농민항쟁의 일반적 성격

전근대 사회의 민중운동은 피지배층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배층과 지배기구에 대해 전개한 투쟁을 말한다. 이러한 운동은 어느 시대 어느사회를 막론하고 다반사였던 일이며 그 양상이나 성격 또한 천차 만별이다.

그들 낱알의 운동은 당장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혹은 오히려 엄청난 피해나 희생을 초래하고 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들 운동의 대부분은 오늘날 보게되는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 가장 분명한 원인이 되었다. 이는 다음이던 이러한 민중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이 곧 인간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즉 민중운동은 인류 역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현실보다 앞서서 선구적으로 추구해 온 것이다.

역사의 진보를 추구하는 민중에게 있어서 현실은 대체로 기득권층에게 맞추어 고착된 것으로서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되곤 했다. 피지배층을 위요하는 현존의 질서와 틀은 지배층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형성된 지배체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러한 체제가 지닌 불합리와 모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으며 나아가 이를 해결하려는 저항운동이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피지배층은 우선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낮은 생산관계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갖게 되고 이로부터 계급투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역사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새로이 형성된 물질적인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관계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민중은 현존의 생산관계가 이제 오히려 생산력 발전의 걸림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 때의 체제는 피지배층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규제하고 잉여생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장치 이상의 구실을 하지 못했다.

전근대 사회에서 민중의 주류는 농민이었다. 이들 농민들이 계급투쟁과 저항운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기존방식으로는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낡은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민중은 낡은 것을 거부하고, 반면에 지배층은 그동안 통용되어온 방식으로 이제는 더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배체제는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지배층은 강화된 억압책에 의해 더욱 침탈당하면서 궁핍한 생활에 가속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만큼 민중의 저항 의지는 고양되는 것이다.

중세사회에서 상업의 발달이나 대의 무역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사치품이 소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배계층의 추가적인 소비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수입욕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봉건 지배계급이 소득을 얻는 유일한 원천은 피지배층이 행하는 잉여노동이었으나 당시의 낮은 정제되어 있는 노동생산성 아래서는 소모되는 만큼의 잉여생산물을 확보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봉건정부, 서원이나 토호의 중간 착취, 고리대에 의한 수탈이 갈수록 확대되어 농민의 노동과 생산물에 대한 지배계층의 요구는 한이 없었다. 이렇게 지배층은 확장된 수입욕구로부터 생산자인 민중에 대한 새로운 착취와 억압을 강화했던 것이다.

반면에 농민들은 자신의 노동과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내세웠다. 농민적 소유와 농민 경영을 통해서 생산력 발전을 기하고자 했다. 바로 봉건적인 생산양식이 지닌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것

이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이런 노력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봉건지배층의 이익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변해감에 따라 계급의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봉건적인 수탈에 대응하여 농민들은 첫단계로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지배층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놓고 지배층과 적극적으로 맞서 나갔다. 다음으로는 농민들이 이산과 도망의 방법으로 저항했다. 유럽의 경우 농민들의 도망과 이산 때문에 중세 장원제도가 붕괴되었고 농노제도 몰락하게 되었다고 설명될 정도로 이는 중요한 계급투쟁이 되었다. 나아가 이런 개별적인 저항이나 투쟁이 끝내는 집단적인 저항운동 곧 농민봉기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이렇게해서 농민들 상호간에 피지배계급이라는 계급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체제 변혁을 수행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는 민중이라는 위상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의 민중 곧 농민들의 의식과 행동은 전통적으로 혁명적이지 못했다. 거대한 사회 변혁의 추진력이 전적으로 농민들에게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특정한 혹은 지방의 전통적 가치와 목표가 직접적이고 더 우선적인 경우가 많았다. 농민 대중은 미리 준비된 계획을 갖고 봉기에 참여한 것은 못되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집단항쟁에 나선 것이다. 그들에게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요인들은 상부구조의 추상적인 가치나 제도보다는 현실의 구체적 요소들이었다. 농민들의 유대감은 같은 계급이라는 추상적인 범주에서 보다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기반위에서 쉽게 형성되었으며 지리적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농민들은 계급으로서의 동질성을 지니면서도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온 공동체적인 생활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들은 계급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공동체 혹은 종교를 통한 긴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때로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계급적인 일체감을 쉽게 약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인 측면은 오히려 초자연적인 요소에 적절히 의거할 때 비조직적인 대중을 일거에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해 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이른바 천년왕국론이나 조선사회의 미륵신앙과 개벽사상 등이 농민봉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동양이나 서양의 전근대 농민봉기에 나타나는 천년왕국론으로 설명된 종교는 다름아닌 피지배민중의 염원을 종교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농민들은 조세 부역 지대를 통한 봉건국가나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해온 수 세기에 걸친 오랜 경험과 전통을 지녔다. 이런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응축된 민중의 요구가 종교적인 신앙으로 전이되었다. 따라서 종교적 이상주의에 의탁한 상징적인 힘을 이용하여 개별적이고 지역분산적인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 분절적인 농민들은 사악한 현세가 곧 멸망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상속으로 쉽게 집결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봉기는 종교운동이나 혹은 단편적인 요구사항에 한정되어 설명될 수 없다. 만일 봉기의 발단이었던 단순한 사건이나 혹은 배경이 되었던 종교를 중심축에 놓고 민중운동을 해석한다면 잘못이다. 또 봉기에 나서는 민중이 명백한 정치사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평가 절하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전개되었던 대부분 민중운동에서 살필 수 있는 바처럼 본질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앞서서 파헤친 의식

있는 소수인물과 지도자와 대중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봉기의 조건이 고양되고 상승되었다. 일단 운동이 시작되면 민중의 잠재력은 격동의 와중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던 민중이 밀물처럼 동원되면서 운동역량도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3. 봉건사회 해체기 유럽의 농민운동 (연구사적 검토)

봉건사회가 해체되기 시작한 이래로 유럽 각지에서는 크고 작은 농민봉기가 빈발하였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서유럽과 일부 동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그것은 17세기에 오스트리아(1624)와 스위스(1653) 그리고 러시아, 폴란드 등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프랑스 대혁명의 ‘농민혁명’에서 그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 근대사의 전개에 있어 이러한 농민들의 반란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성격 내지 의의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그 전형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독일농민전쟁’(1524~5)을 중심으로 기왕의 연구사를 정리, 검토함으로써 14~16세기의 이른바 “이행기”에 출현했던 농민운동의 이해에 좀더 접근해 보고자 한다.

1524년 5월 흑산림(Schwarzwald) 남부의 슈틀링겐에서 시발된 ‘농민전쟁’은 그해 12월 오베르슈바비아(Oberschwabia)에서의 봉기로 본격화되었다. 그후 이듬해 봄부터는 이 반란의 물결이, 점차 도시민들도 가담하는 가운데, 남부독일 거의 전지역은 물론 북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등지의 일부 지역으로까지 파급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 ‘농민군’들은 초기의 몇차례 승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1525년 5~6월에 완전히 섬멸당하게 된다.

이같은 개요를 지닌 ‘농민전쟁’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설명은 1840년대에 독일의 지머만(W. Zimmermann)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때 “독일 해방전쟁”으로서 찬양되었던 ‘농민전쟁’은 19세기 후반에 엥겔스(F. Engels)의 유명한 저술(『독일 농민전쟁』, 1850)을 통해 그 역사적 의의가 한층 부각되는 한편 이를 “독일 역사상 최대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규정한 랑케와 그를 따르는 보수주의 사기들에 의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개인 차원의 (부르주아)자유주의에 대비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선입견도 다소 제거되게 되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농민전쟁’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볼 때 ‘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한 사기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겠다.²⁾ 다수의 마르크시스트들에 의해 지지되는 ‘초기 부르주아혁명론’이 그 하나이고, 프란츠(G.

1) 플랑드르(1321)를 필두로 프랑스(1356), 영국(1381), 보헤미아(1419~36), 스위스(1513~1515), 독일(1524~1525) 등지에서 전개된 일련의 농민반란이 그 대표적인 예다.

2) 이에 관한 국내의 주요 연구성과로는 金獻珠의 “Oberschwaben 12個條의 成立 背景. 1525년 獨逸 農民 蜂起의 性格 糾明을 위한 한 試圖”(『西洋史研究』 第 9輯, 1988. 4)과 柳義珠의 “1525년 티롤 농민봉기의 성격”(같은 책 第 13輯, 1992.12), 黃大鉉의 “농민전쟁기 라인강 상류지역(Oberrhein)에서의 도시-농촌관계”(같은 책)을 꼽을 수 있으며 成白庸의 “1358년 자프

Franz)를 위시한 비마르크시스트적 성향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제시되는 ‘정치적 해석’ 이랄 만한 것이 또 하나며, 끝으로 비교적 근자에 ‘농민전쟁’ 450주년을 계기로 괄목할 만하게 등장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사적 해석’ 이 그것이다.

1) ‘초기 부르주아혁명’ 으로서의 ‘농민전쟁’ 이론

‘초기 부르주아혁명’ 이란 용어가 ‘농민전쟁’ 에 관한 논의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52년 舊동독 사가 모이젤(A. Meusel)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해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인물은 앙겔스로서 그의 저서 「독일 농민전쟁」은 최근까지도 마르크시스트 연구자들 사이에서 거의 교범과도 같은 지위를 누려왔다. 지머만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농민전쟁’ 을 사적 유물론에 의거하여 분석한 이 저술에 의하면 ‘농민전쟁’ 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유럽 부르주아지에 의해 도발된 최초의 결정적인 전투였다. 여기서 농민들은 군대를 제공했지만 “승리” 후 경제적 파멸을 가장 먼저 겪어야 했던 것도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다.³⁾

舊소련의 스미린(M. M. Smirin)은 관련 사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이러한 앙겔스의 테제를 계승, 발전시킨 최초의 본격적인 전문 연구자로서 ‘농민전쟁’ 에 관한 논의를 한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농민전쟁’ 의 사회-경제적 전제조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이 역사적 사건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초기 부르주아혁명”의 맥락에 위치시켰던 바, 이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서 농민군의 패배에 이르는 1524-5년간의 사태는 하나의 단일 과정으로서 봉건제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체관계의 부르주아적-혁명적 변혁으로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

스미린에 의하면 ‘농민전쟁’ 의 근본 원인은 농노제에 있었다. 영방군주와 지주귀족 그리고 성직자 등 지배층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권리를 노동력과 토지는 물론 농민들의 생산물에게까지 확대시켜 주장했던 바, 그 주된 목적은 어느 경우에도 농민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공고화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4세기 그리고 특히 15세기에 본격화된 이 “봉건적 반동”은 15세기 말부터 농민들의 방어적인 운동, 즉 ‘반봉건투쟁’ 에 부딪히게 되었던 바, 이것이 1525년에 이르러 거대한 ‘농민전쟁’ 으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결국 농민들로 하여금 봉기에 나서게 했던 원인은 그들이 처해 있던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농민과 영주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었다.

이 ‘농민전쟁’ 은 “초기 부르주아 혁명”의 결정적 움직임 가운데 하나임에 다름이 아니었다. 일찌기 앙겔스가 제시한 것처럼,⁴⁾ ‘농민전쟁’ 은 오로지 부르주아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의 가담에 의해서만 비로

리와 프랑스 농촌의 위기”(같은 책)도 이행기 농민운동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3) 예컨대 카우츠키(Kautsky)라든가 메링(Mehring) 등은 앙겔스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레닌 역시 러시아의 1905년 혁명 및 모든 혁명에서의 농민의 역할에 대한 해석에 있어 앙겔스한테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4) 앙겔스는 1877년에 “봉건제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기나긴 투쟁”을 논하는 가운데 그것이 절정에 달한 “세계의 위대한, 결정적인 전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그 싸움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교회에 대항하여 루터에 의해 제기된 구호는 정치적인 성질을 지닌 두개의 봉기들로 응답되었다. 첫째는 Franz von Sickingen 휘하의 소(=하급)귀족에 의

소 그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농민들은 반봉건전쟁을 일으켰지만 이것이 그 자체로서 부르주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의 투쟁은 오히려 반자본주의적인 목표들과 감정에 의해 유도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지,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했던 이 진보세력에 봉사했다는 점이다. ‘농민전쟁’에는 이처럼 한쌍의 적대관계-농민들과 봉건영주,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와 말기 봉건제 사이의 대립-가 병존했던 바, 이 이중성을 고려해야만 ‘농민전쟁’, 그리고 나아가서는 16세기 초의 계급투쟁들이 지닌 특수한 양상들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초기 부르주아 혁명’ 모델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서 스미린 이후 마르크시스트 연구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을 낳았으며 이를 통해 수정, 보완되는 한편 하나의 설명 틀로서의 타당성을 적지 않게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그 주요 쟁점은, 예컨대,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관련하여 과연 이 핵심 요소가 당시 독일에서 충분히 발전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1470~1530년의 독일”을 “유럽 경제의 최고 선두”로 보고 이로 인해 “첫번째 부르주아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엥겔스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수용한 스미린에 대해 차이코프스카야(L. Tschaikowskja) 같은 이는 “독일의 지리적 분열”과 그로 인한 “경제적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당시 독일의 부르주아 계급 형성 여부와도 관계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농민전쟁’의 주도 세력-초기 부르주아 혁명의 “사회적 담당자”(social agent)에 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스미린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소수 급진 부르주아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미성숙한 계급이 농민의 힘을 빌어 혁명 과업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시민층”이 아직은 봉건적 생산양식에 포섭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부르주아혁명”을 부정하고 차라리 “후대의 부르주아 사회의 흥기에 도움을 준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주도 세력과 관련해서도 한편에서는 엥겔스-스미린의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농민운동을 촉발시킨 ‘객관적 요인’에 주목하여 “부르주아 없는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역설이 제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주관적 요인’을 중시하여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적어도) 타협의 형태로라도 참여해야만” 부르주아혁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 정치적 해석 : 쿤터 프란츠의 견해 (1975)

비마르크시스트 계열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⁵⁾ ‘농민전쟁’을 농민과 봉건영주 간의 사회-경제적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봉건적 반동”에 대항한 방어투쟁으로 규정하는 위와 같은 견해에 반대한다. 프란츠 등이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 독일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결코 나쁘지가 않았

한 1523년의 봉기가 그것이고, 둘째는 1525년의 위대한 농민전쟁이 그것이다.”

5) 이 해석에 대한 국내에서의 비판적 연구논문으로는 (주 2)에서 소개된 김현수의 글을 들 수 있다.

6)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빈민에 의한 반란”으로 묘사하는 에른스트 켈터(Ernst Kelter)처럼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보는 서방측 연구자는 극히 드물다.

다는 것이다. ‘농민전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번성하는, 독립적이고 부유한 촌락민들”이었으며 ‘농민전쟁’은 바로 “농민층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폭발했던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번영과 개선된 처지의 결과로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남·서부 및 중부 독일에서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들을 다른 곳들과 비교해 본다면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우선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농민전쟁’을 야기했던 것은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갈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군주와 지방 영주층의 정치적 욕구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당시 지배층이 “경제적 수단들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에 전투가 그(경제) 전선에서도 치루질 수밖에 없었을 뿐” 대립의 기본 근원은 ‘자율적인 촌락공동체’와 ‘군주의 영토지배권’ 사이의 모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실제로 있어 종종 “법”에 대한 관념의 충돌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프란츠는 농민봉기들이 대체로 농민적 공동체적 가치와 영토주권의 원칙이 충돌했던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영토적 주권의 원칙이야말로 농민전쟁을 “인민의 공동체적 권리와 고압적인 주권(통치권, 종주권) 사이의 갈등”으로 특징지운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목할 때 농민전쟁에 선행하는 사건들은 두개의 운동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바, “예로부터의 (관습적) 권리”를 위한 캠페인과 “신성한 권리”를 위한 캠페인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농민전쟁’에서 특히 부각된 것은 후자로서 이것이 당시 농민들의 종교적·정치적 개혁에 대한 요구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바, 이로부터 도출된 “신성한 정의”가 “대중들을 움직여가는 슬로건”이 되었다는 것이다.⁷⁾

이처럼 프란츠는 ‘농민전쟁’을 기본적으로 “영방국가 對 농민공동체”라는 구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자에 의한 후자의 관습적 권리 침해가 사태의 발단이었던 바, 집단적 권익과 자율권을 수호하려는 농민군의 투쟁은 패배하였으며 그 결과 영방국가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농민전쟁’의 성격은 이처럼 ‘정치적’ 대립을 그 본질로 한 것이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미미한, 부차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프란츠의 이상과 같은 고전적 테제는 국내 연구에서도⁸⁾ 확인된 바 있는 다음의 두가지 사실을 상기할 때 ‘이행기’ 농민운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틀로서의 타당성이 적지 않게 의문시된다고 하겠다. 첫째는 농민과 영방군주 또는 국왕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으며 봉기 발생 당시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므로, 모순 내지 대립의 기본 구도가, 어느 편인가 하면, 농민과 봉건귀족(영주)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역시 독일에서는 물론 비슷한 시기의 영국, 프랑스에서도 뚜렷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7) 이에 관해 프란츠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프로테스탄트적 해석에서 신성한 권리는 아직까지 옛 법률만을 애지중지하고 있던 농민들일지라도 혁명으로 나아가는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내게 해주는 다리(bridge)가 되었다”

8) (주 2)에 나오는 유의주와 성백용의 논문 참조.

3) 사회사적 해석 : 페터 블릭클레의 “평민혁명론”

‘농민전쟁’에 관한 연구는 그 450주년이 되는 1975년에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사회과학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달리 해석하려는 시도가 괄목할 만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갈등을 ‘인구’ 요인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여 기본적으로 촌락 내부에 국한된 ‘농민 對 농업 노동자’의 구도로 파악하는 세이빈(D. Sabean)이라든가 좀더 시야를 확대해서 ‘사회-체제적’ 측면들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뷔클링(J. Bueckling)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사가로 “평민혁명론”을 제창한 블릭클레(P. Blicke)를 꼽을 수 있겠다. 그는 우선 ‘농민전쟁’이란 용어 자체를 부정한다. 주체세력을 놓고 볼 때 당시의 반란은 비단 농민만이 아니라 광부, 도시민 등이 고르게 그리고 나라히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요컨대 ‘평민들의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평민 집단들이 긴밀한 동맹관계를 결성하여 투쟁에 나섰던 바, 이들은 사회적으로 유사한 지위를 지닌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게다가 이들 ‘평민’은 군세, 조세 등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 기왕에 각기 향유해 오던 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불만을 지녔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봉기는 따라서 ‘농민전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사회-경제적, 정치적 동질성(내지 유사성)을 지닌 이들 평민층은 두렵한 이념에 의해 하나로 결집될 수 있었던 바, 그 집착제는 한마디로 ‘복음’(神法, 神의 公義)으로 요약된다. 원래 종교개혁의 한 기치로 제시된 이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당시에 와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신학이 정치신학으로 換置”된 셈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쟁투의 기본 구도는 이중적인 양상을 지닌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영방군주 對 臣民(슈텐테)”이, 다른 한편으로는 “상층 슈텐테(고급성직자, 귀족) 對 하층 슈텐테(농민, 도시민)”가 맞섰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농민과 영방군주 간에 일정한 우호 관계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평민들’의 투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급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에 그들은, 티롤(Tyrol)의 농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메란 조항’(Meran Artikel)에 나와 있듯이, 신분제 국가의 기본 틀을 인정하면서 단지 그 내에서의 변화 즉 ‘개선’(개량)을 주장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그들은 “기독교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농민공화국”의 이상을 현실에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바, 농민군의 유명한 지도자 가이스마이어(Michael Gaismair)가 정리한 ‘영방조례’는 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농민전쟁’은 대다수 하층민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었던 하나의 사회-정치혁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처럼 블릭클레의 ‘평민혁명론’은 나름대로의 사실 분석에 입각하여 ‘농민전쟁’의 ‘농민적’ 성격을 대폭 회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테제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는 않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야 분명해지겠지만 적어도 ‘라인강 상류지역’에 대한 국내의 한 사례연구⁹⁾ 결과에 따를 때 그

9) (주 2)에 소개된 황대현의 논문이 그것이다.

것이 지나치게 일반화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시민과 농민 간의 동맹관계는 확실히 존재했지만 이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녔다면, 이들의 동맹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농 주민들의 동맹은 양 지역 주민들이 동일 영주의 지배 하에 있을 때 성사되는 수가 보다 많았으며, 게다가 적극적으로 봉기에 가담했던 도시민들은 대개 농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농촌과 직접 관계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동맹이 농민들 쪽의 강압에 의해 성립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대략 이러한 점들이 '평민혁명론'을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4. 19세기 중국 농민반란의 성격 — 태평천국운동을 중심으로

중국에 있어서 19세기는 구체제의 이완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던 변혁기였다. 전제 지배체제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절정기를 지나 지주제에 기반한 농업과 상공업의 양적 발전, 인구의 격증, 관료와 군대의 부패, 자연재해는 경제적 선진지대와 후진지대간의 지역적 격차와 계급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민중의 저항과 폭동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자작농의 反官的 抗糧과 경제적 선진지대인 양자강 유역의 소작농의 抗租, 華南지방에서 빈발한 촌락공동체 간의 械鬪 등 在地농민의 경제적 공동체적 투쟁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빈농과 무산지를 주축으로 촌락의 폐쇄적 공간을 초월하여 광범히 조직된 秘密結社가 특히 18세기 중엽 이래 華北에서는 白蓮敎의 敎門 형태로, 華南에서는 天地會를 중심으로 한 會黨 형태로 조직적 反淸 폭동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의 내적 모순을 한층 더 첨예화시킨 것은 아편전쟁 이래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침투였다. 청조의 체제개량과 변혁의 노력이 경주되는 한편에서, 서구의 자본주의 공산품과 기독교 세력의 침투라는 새로운 모순에 직면한 농촌사회의 저항은 서구적 가치관과 기구에 대한 전면적 排斥투쟁이자 무능한 청조 지방관에 대한 反官투쟁인 反基督敎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고, 20세기 초두 義和團운동의 '扶淸滅洋'으로 고조되었다.

이와같은 민중운동은 대략 다음과 같이 그 성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선진지대의 경우 농민의 계급투쟁적 성격이 강한 抗租투쟁이 촌락 연대적 차원의 집단적 저항으로 성장하였으나 반란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경제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지주와 지방당국의 진압에 저항하다 반란세력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주로 반란세력에 호응하며 항조투쟁을 강화하였으며 심지어 반란세력에 저항하기도 하는 지방주의적 특성이 강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抗糧과 反基督敎운동은 生員 등 下層紳士와 土豪 등 농촌 엘리트가 지도한 反官 투쟁으로서, 청조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전제지배이념에 합목적적으로 부합되는 질서의 복원 내지 수호를 지향하는 개량적 운동이었다. 촌락 공동체 간의 械鬪는 중국농촌사회의 강고한 혈연적 지연적 유대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농촌 경제생활이 극단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촌락주민 전체가 계급적 갈등을 초월하여 宗家, 生員, 土豪 등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촌락간에 혹은 連村的 차원에서 상호

경쟁, 약탈했던 지방주의적 생존투쟁이었다. 따라서 이런 투쟁 행태는 華北 사회에서 태평천국운동의 성장에 따라 捻軍 반란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참여집단 간에 강고한 횡적, 종적 조직을 형성하지 못했고, 流寇의 행태를 지속했으며 지도자들은 명확한 정치적 이념을 갖지 못한 채 빈번히 변절하면서 지방적 이익을 확보하려 하였다. 한편 촌락의 혈연적 지연적 폐쇄성을 초극한 秘密結社운동은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反淸운동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 역시 堂主나 教主를 중심으로 한 비밀결사적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 보편적 정치이념을 제시하지 못했고 조직간의 횡적 종적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劫富濟貧’의 약탈적 일탈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결국 18~19세기의 중국 농민운동은 농촌의 지연적 혈연적 폐쇄성이나 비밀결사의 조직적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 국부적 지방적 독립적 차원의 經濟투쟁, 反官투쟁, 生存투쟁이나 약탈적 反淸투쟁, 파괴적 排外투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의 太平天國운동은 그 자체 이와같은 다양한 농민운동의 차원을 거치면서 전국적 규모의 반란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지방적 차원의 다양한 농민운동과 자본주의 열강, 청조 지배층과 대응하며 신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19세기 중국 농민운동의 역량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태평천국은 경제적 후진지대인 廣西省에서 拜上帝會라는 비밀결사의 발전적 해체과정에서 탄생하였다. 배상제회는 敎門의 전과과정에서 조직이 확대되고 天地會黨의 호조적 형제관념과 강한 정치적 지향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地主 紳士 地方官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소외민들이 대거 결집하여 械鬪와 反官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배상제회는 엄격한 종교적 규율과 大同의 平均 이념, 형제적 동포애, 유일 절대신인 上帝를 중심으로한 중앙집중적 통합성, 부패관료와 만주족에 대한 증오심을 견지함으로써 비밀결사의 폐쇄적 반청운동의 틀을 극복하고 보편적 이념을 담지한 전국적 반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태평천국은 會黨, 捻軍, 團練, 地主, 紳士, 農民, 無產者 등 세세력을 反滿의 통일전선에 결집코자 하면서도 배상제교리에 토대를 둔 혁명이념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고 上帝敎國家 창설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政治, 宗教, 民族 혁명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정권 역시 전제군주제와 왕조적 신분위계질서, 지배층의 특권, 유교적 가부장적 도덕률을 토대로 한 地主와 紳士의 농촌 지배체제였고 토지국유제와 사유제의 부정, 極刑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封建政權’의 성격이 농후한 極權통치체제였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단순한 易姓혁명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토지국유제와 사유제의 부정, 평등분배의 지향을 강조하여 원시 공산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태평천국 정권의 상층부와 太平軍은 拜上帝會員이나 貧農, 無產者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과정에서 地主, 紳士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타격이 심대하였으며, 세속정무를 장악한 軍師와 天王의 二元的인 독특한 통치구조는 전제권을 약화시켰고, 당시 중국사회의 자본주의 맹아가 극히 미약하고 자본주의의 영향도 해안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反지주적 토지균분이념에 근거한 반동적 小農경제와 地代감소 정책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專制的 ‘反封建 農民政權’ 이자 전근대 최고수준의 單純 農民혁명운동이며,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민족해방운동의 선구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민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없이 여전히 사회의 최하 피지배층

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민운동의 성격을 전면 부정하기도 한다. 더우기 운동의 주된 참가자와 지도자였던 빈농, 무산자(노동자, 수공업자, 雇農 등)를 자본주의 맹아의 발전에 의해 석출된 ‘맹아적인 시민, 프롤레타리아’로 파악한 가운데, 운동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존 지주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抗租운동이 증폭되어 ‘耕者有其田’의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태평천국 중추가 서구 근대산업사회의 일부 기제를 향후 개혁방안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적인 농민혁명운동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서구의 자본주의 열강에 대해서는 전통적 華夷관계 대신에 영토와 주권보전, 태평천국의 중심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형제적 평등관계 속에서 능동적인 서구문물의 수용과 商戰의 경쟁을 통한 중국의 부국강병과 근대화를 낙관하고 있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중화적 세계관을 아직 탈각하지 못하였고, 서구산업사회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었다.

이처럼 태평천국운동의 성격을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변혁기라는 시대적 상황, 엄격한 계급적 신분적 고착성 대신에 개방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구조, 사회의 하부구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가권력의 전통, 자급자족적 소농경제의 동경과 지식계급의 정치독점의 전통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결국 우리는 태평천국운동을 통하여 19세기 중국 민중운동이 농민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하였으나 농민과 무산자의 존재를 부각하였고 유교적 체제이데올로기의 정통성을 회의했으며, 세계사적 범주에서 중국의 상대적 입지를 확인해 가는 가운데, 국가권력이 강력한 통제력과 능동적 개입, 개방적 대외경쟁을 통하여 획득한 國富를 기반으로 전체 인민의 平均主義的 民富를 보장하려는 새로운 권력체를 창출하는데 까지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태평천국운동은 정권탈취를 시도하였으나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지 못한 채 농민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의미에서 農民反亂(rebellion)이지만, 단순한 ‘反帝反封建’ 운동이 아니라 전통과의 맥락 속에서 非자본주의적, ‘中國의 近代’化的 길을 모색해내었다는 의미에서 ‘中國의 近代’性을 맹아적으로 담지한 변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5. 1894년 농민전쟁의 주체와 지향

1) 농민전쟁의 주체

1894년 농민전쟁의 주체, 곧 참가층은 크게 지도부와 주력군, 그리고 보조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접주층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혁신적 지식층’이라 불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는 몰락양반, 상승하는 평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몰락양반은 다시 가문 전체가 오랫동안 영락의 길을 걸어온 ‘殘班’층과, 가문 전체로서는 향촌사회에서 아직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계로서 경제적으로 소외되면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온 이들이 있다. 그외에 향촌사회에서 향권을 둘러싼 가문간의 경쟁에서 소외된 향반가의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에는 경제적으로 중소지주, 부농층과 같이 ‘饑戶’라고 불릴 수 있는 계층으로부터 빈농, 훈장, 지사 등으로서 생계를 이어가던 빈한한 계층까지 다양

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층으로서 조선의 중세사회체제가 드러내고 있던 체제말기적인 모순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층이었으며,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장 강력했던 계층이었다.

농민전쟁의 주력군은 사회적으로는 평민층과 천민층이 될 것이다. 평민들의 농민군 참여에 대하여 당시의 무안현감은 “평민으로서 가담하지 않은 자가 드물다”고 할 정도였고,¹⁰⁾ 또 충청도 부여의 한 유생은 “동리의 常民이 모두 東徒에 들어갔다”고 하였다.¹¹⁾ 또 천민들의 경우 매천 황현은 “私奴 驛人 巫夫 水尺 등 천인이 동학에 제일 잘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천인들 가운데에는 농민군의 간부가 되어 ‘巨魁’로 일컬어지는 자까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농민군 조직은 사회적으로는 주로 평민층과 천민층으로 구성되었고, 양반 유림 관료 이서층은 그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또한 농민군의 주력군은 경제적으로는 먼저 중농 이하의 빈농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빈농층은 농업경영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半노동자화한 농민층이었다. 그밖에 농민군의 주력을 형성한 계층은 영세상인 영세수공업자 농업노동자 광산노동자 잡업노동자 등 기층 민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농민군의 경제적 지향

농민전쟁에 참여한 농민군이 경제적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체제를 지향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것은 농민전쟁이 진행도중에 패배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민전쟁 진행중에 농민군들이 내놓은 여러 개혁안들을 통하여 그 지향점을 추정해보는 수밖에 없다. 농민군이 제시한 개혁안은 모두 여섯가지로서 4월초의 <동학군통문>, 5월초에 초토사에 제시한 <호남유생원정>, 같은 시기 순변사에 제시한 <전라도 유생등 원정>, 역시 같은 시기의 <원정>, 5월말경 장성에서 제시한 개혁안,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에 나오는 집강소의 정강 12개조가¹²⁾ 그것이다.

이들 개혁안을 통하여 농민군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삼정과 민고, 연역문제와 같은 봉건적 수취체제의 개혁이었다. 농민군이 봉건적 수취체제의 개혁을 가장 강력히 요구한 것은, 당시 농민군을 구성하고 있는 각계 각층, 즉 요호부민층으로부터 빈농층에 이르기까지 이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부딪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당시 요호층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가림주구’로 표현되는 봉건적 수취체제의 모순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또 중농 이하 빈농층의 경우에도 이 문제는 자신들의 소농민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농민군지도부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민군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문제

10)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동학란기록』 하, 328쪽

11) 李範錫, 『日記』 제10, 갑오 7월 6일자

12) 오지영의 『동학사』 간행본에는 폐정개혁안 12조라고 쓰여 있으나, 초고본에는 집강소의 정강이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는 초고본의 표현을 취한다.

를 일차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삼정문란의 책임을 이전의 민란단체에서는 각 군현 단위의 수령, 이서층에 돌리고 있었던 데 반해, 이제 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은 “민폐의 근본은 이서의 포흠에 있고, 吏逋는 탐관에 말미암은 것이며, 탐관은 집권자들의 탐람에 있다”고 하여 그 궁극적인 책임을 집권세력에 돌리고 있다. 이전의 민란이나 1894년의 농민전쟁은 같은 봉건적 수취체제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일어난 것이지만, 국지성을 띠는 데 그쳤던 민란이 광역에 걸친 농민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농민군 지도자의 의식의 발전에서 가능하였다.

다음 상업문제와 관련한 여러 개혁안들은 첫째 前期의인 상업구조(도고)의 철폐, 둘째 영세상인층에 대한 봉건관료층의 수탈 금단, 세째 보부상, 외상에 의한 행상권 위협에 대한 농촌소상인의 행상권 보장, 네째 외상들의 내륙에의 상권팽창 억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보부상의 조직에도 들어가지 못한 농촌의 영세소상인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농촌소상인의 상당수가 농민군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국상인들에 의한 高價무미를 금하라는 요구는 춘궁기에는 미곡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수의 빈농층과 상시 미곡을 구매해야 하는 도시의 잡업노동자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었다.

한편 농민전쟁기 농민군의 경제적 지향과 관련하여 토지문제, 즉 ‘지주 전호제의 폐지’ 문제가 학계의 논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는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오는 집강소기 개혁정강 12개조 가운데 들어있는 ‘토지를 평균으로 분작케 할 것’이라는 조항의 해석문제와 관련되어 여러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다른 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조항을 중심으로 농민군의 토지문제에 관한 지향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당시 농민군들이 보인 행태, 즉 농민군 가운데 일부가 토지대장을 불태웠으며, 또 가을에 추수가 끝난 뒤 소작료를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던¹³⁾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기존의 토지소유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농민군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 토지를 전혀 가지지 못한, 혹은 영세한 토지밖에 가지지 못한 빈농층의 토지소유욕구, 즉 농민층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빈농층이 자기 토지의 소유를 통하여 우선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게 분출된 것이었다. 농민군의 토지문제에 대한 지향과 관련하여 전봉준이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구상을 갖고 있었다는 언급을 하였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어떠한 토지제도개혁구상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姜璋가 “균전은 모든 소민들의 바램”이라고 말했던 바의 ‘均田’과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전봉준이나 농민군들이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지향점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집강소시기는 이를 개혁조항으로 넣어 추진할 수 있을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관민상화에 의해 이루어진 집강소시기에 이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러한 수준의 개혁은 농민군의 지휘체계상으로도 아직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농민군의 내부 구성이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토지문제의 개혁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1894년 농민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농민군이 제기할 수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조세문제

13) 『關草存案』 10월 초8일 「關文」

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3) 농민군의 사회적 지향

농민전쟁을 통한 농민군의 사회적 지향은 집강소 시기 정강 12개조에 들어있는 사회개혁조항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첫째 농민을 침학하는 봉건지배층, 즉 탐관오리 부호배 유림 양반을 엄징할 것, 둘째 노비를 비롯한 천민신분을 해방시킬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첫번째의 것은 주로 봉건지배층의 억압으로부터 평민층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봉건지배층의 평민에 대한 억압에 대해 박은식은 “양반의 평민에 대한 대우가 평민이 노예를 대하는 것과 같고, 토호들은 무단으로 약탈을 자행하며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그런 까닭에 상민들은 양반들을 질시하며 골수에 맺힌 한이 몇 백년을 내려오면서 쌓이고 쌓여 불평하는 기운이 격렬하게 일어났다”고 하여¹⁴⁾ 농민전쟁이 양반층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신분해방운동임을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농민군들은 봉건적 신분제를 철저히 약용하고 있던 불량한 유림, 양반들을 잡아다 엄정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해방운동은 일개 평민과 일개 양반이라는 개별적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반상의 차별이라는 봉건적 신분제도는 우선 향촌사회에서는 향약, 계, 오가작통과 같은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질서, 규제나 鄕會, 儒會와 같은 양반 유생층의 독자적인 조직 등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군의 신분해방운동은 우선적으로 향약, 유희 등을 깨뜨리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반대로 양반 유생층의 입장에서는 평민들의 농민군 가담을 저지하기 위해 향약, 오가작통 등의 기구를 발동시켰다.¹⁵⁾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향약이나 오가작통과 같은 양반중심의 향촌지배기구를 깨뜨리지 않는 한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 평민신분의 해방, 그리고 나아가서 근대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유, 자립의 획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농민군의 신분해방운동에서 평민층의 해방운동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천민층의 신분해방운동이었다. 이 천민신분의 해방운동은 동학사상 자체에서부터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 즉 동학사상의 ‘事人如天’은 적어도 동학조직 내부에서부터 貴賤과 奴主의 구분을 없앴 것이었다. 동학사상은 이같이 신분계급을 부정하는 평등사상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천민을 농민군 조직내에 포섭해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농민군에 가담한 천민층은 노비문서의 소각을 실천함으로써 천민신분 해방운동을 이끌어 갔다.

농민군의 이같은 신분해방운동은 각지에 설치된 집강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군의 사회적 지향은 단순히 신분제 개혁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지방통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자치를 실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즉 농민군은 읍권을 장악하고 이속과 행정 말단조직을 모두 그들의 지배하에 두고서 군기와 군량을 모으는 한편, 삼정의 업무를 관장하고 사송을 처결해 나갔던 것이다. 농민군이 이처럼

14) 박은식, 『한국통사』, 제2편, 제26장 「甲午東學之亂」

15) 김윤식, 『속음청사』 상, 권7, 307쪽; 「순무선봉진동록」 『동학관기록』 상, 365쪽

향촌사회의 지배권력을 장악하고, 폐정을 개혁하며 중세적 신분질서를 폐지시키는 등 자치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방관 혹은 정부에 대하여 폐정의 개혁을 요구하던 민란단계와 비교해 볼 때 농민군의 사회의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농민군의 정치적 지향

농민군이 1차봉기에서 민씨정권의 축출을, 2차 봉기에서 일본침략세력의 축출을 목표로 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농민군이 대원군세력과 개화파세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쟁점들을 중심으로 농민군의 정치적 지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농민군은 4월 16일 영광에서 발표된 통문에서 “우리가 오늘 의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국태공을 받들어 나라를 감독하게 하여 위로는 종사를 보존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보호하며, 이로써 부자의 천륜과 군신의 대의를 온전히 하여 난신적자가 자연히 사라지게 함”에 있다고 선언하였다.¹⁶⁾ 여기서 농민군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대원군의 정권장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월 4일 전주에서 초토사에게 보낸 글(「示招討使」)에서 “국태공을 받들어 나라를 맡기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 불쾌라 하느냐”고 비난하였다. 대원군과 전봉준간에 사전에 어떤 연락관계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를 통해서 1차 봉기 당시 농민군측이 대원군을 다시 옹립하면서 대원군과 농민군세력의 연합정권 성립을 구상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원군은 비록 농민군의 옹립에 의해서는 아니었지만 6월 21일 일본군의 쿠데타에 의해 개화과정권이 성립되면서 6월 22일 섭정에 상당하는 지위로 복귀하였다. 따라서 농민군측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8월 11일 전주에서 가진 일본인과의 회견에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 이후 “우리는 일본의 행동, 대원군의 행동을 아직 자세히 몰라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힘써 동지들의 분격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동태를 알려고 하고 있다”고 하여,¹⁷⁾ 향후 일본의 행동과 대원군의 거취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2차 봉기시 농민군과 대원군은 어떤 연락관계를 갖고 있었을까. 전봉준은 재판과정에서 대원군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런데 송회옥이 갑오년 9월 6일 아마도 당시 태인에 있던 전봉준에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어제 저녁 두 사람이 비밀리 내려왔는데 전말을 들은 즉 과연 개화파에 놀려 먼저 효유문을 보냈고, 뒤에 秘奇를 보냈다고 한다. 두사람을 잡아놓고 엄히 지켜 외부와 통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빨리 올라오라. 湖西는 初10일 대회를 갖고 바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런 즉 우리도 연속하여 따라 올라간 연후에 일이 가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봉준은 후일 재판과정에서 이때 태인에서 원평을 거쳐 삼례로 갔다고 하였는데, 농민군이 원평에서 전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금구에

16) 『수록』 갑오 4월 16일

17) 『日清交戰錄』 12, 명치 27년 10월 16일(음력 9월 18일), 42~43쪽

쳐들어가 무기를 빼앗은 것은 9월 9일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전봉준은 대원군측이 보낸 밀사를 만난 뒤 곧 기포를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진영은 이미 7월부터 일본군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하고 군량미의 비축 등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던 중 대원군측이 보낸 밀사로부터 당시 대원군이 개화파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본군이 농민군 진압을 위해 출동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포를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전봉준은 신문과정에서 2차 봉기가 대원군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물음에 대해 “재기한 일은 우리들의 본심에서 나온 것이며, 비록 대원군이 해산을 종용하는 효유문을 내렸다해도 이를 깊이 믿을 수 없어 힘써 재기를 도모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비록 전봉준이 대원군의 밀사에 의해 경성의 사정을 알게 되어 봉기를 서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원군의 지시에 의해 비로소 봉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 2차봉기에 실패한 이후 체포된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간악한 관리를 쫓아낸 다음에는 “國事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名士에게 協合해서 합의법에 의해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¹⁸⁾ 이 진술은 물론 대원군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추측되지만,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폐단이 크다고 한 것은 대원군 한 사람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전봉준의 의식의 일단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개화파에 대한 농민군측의 인식을 살펴보자. 농민군측이 1894년 11월 12일자로 발표한 「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을 보면, “통상 이후 갑신십월의 사흉이 협적하여 군부의 위태하미 도석에 잇더니 종사의 흥복으로 간당을 쇼멸하고”라 하여, 1884년 갑신정변의 개화파를 ‘사흉(四兇)’ ‘간당(奸黨)’ 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1894년 여름의 개화파정권의 수립에 대하여 “금년 십월(六月)의 誤記인듯 인용자)의 개화간당이 왜국을 처결(締結)하여 승야입경(乘夜入京)하여 군부(君父)를 꺾박하고 국권(國權)을 천차(擅恣)하며 우황 방백수령이 다 개화중 쇼속으로 인민을 무홀하지 안이코 살륙을 조하하며 생녕(生靈)을 도탄(塗炭)하매”라고 하여, 역시 갑오 개화파를 ‘개화간당’ 이라 지칭하고 개화파의 집권과정에 대해서도 왜국과 체결한 점, 군부를 꺾박한 점, 국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점 등을 들어 비판하였다. 또 이 글에서는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드러 왜저을 쇼멸하고 개화를 제어하며 도정을 청평하고 사직을 안보할 새”라고 하여, ‘개화파의 제어’ 를 언급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농민군의 비판이 개화파라는 정치세력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해 여름 개화파가 추진한 군국기무처의 개혁사업들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6월 25일 성립된 군국기무처에서 28일 이후 통과된 각종 의안들이 전라감사 김학진과 각지의 수령들을 통해 농민군들에게 알려졌는데,²⁰⁾ 이는 대부분 농민군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었다.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한 신분제의 폐지, 민씨

18)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19) 여기서 ‘개화의 제어’ 는 문맥으로 보아 ‘개화정책의 제어’ 라기 보다는 ‘개화파에 대한 제어’ 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김학진은 7월 12일 각읍 수령들에게 보낸 감결을 통해 군국기무처의 의결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방방곡곡에 게시하여 알리도

정권 핵심분자들의 숙청, 조세제도의 개혁, 토호무단의 금지 등은 개화과정권이 농민군측을 무마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단행한 개혁조항들이었고,²¹⁾ 따라서 농민군측도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는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본래 갑오개화파는 집권 직전의 시점이었던 1894년 봄 농민군의 봉기에 대해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유길준과 김가진은 “전라지방민이 폭동을 일으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본래 지방관리들의 탐욕과 학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국군을 빌려오려고 하는 민씨정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다.²²⁾ 따라서 집권초기 개화과정권이 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던 것은 당연하였고, 이는 농민군측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타협국면은 8월 4일 군국기무처가 삼남의 각처에 동학도들이 날로 거칠어지고 騷訛가 심하여졌으므로 이 지역에 三南 都宜撫使를 특파하여 우선 이들을 효유 귀화시키되 그들의 귀화가 불가능할 경우 이어서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탄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8월 25일 군국기무처는 도선무사의 파견에도 불구하고 동학도들의 硬化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兩湖가 더욱 심하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일변 탄압하고 일변 선유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²³⁾

그런 가운데 9월 3일에는 전주대도소 도집강 송희옥이 대원군의 해산 효유문을 보고 무리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는 9월 6일 곧 이어 내려온 대원군의 밀시를 龜村에서²⁴⁾ 만나 서울의 사정과 농민군의 상경을 독촉하는 대원군측의 뜻을 전해들었다. 이에 송희옥은 당시 태인에 머물고 있던 전봉준을 급히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마도 이 회합에서 전봉준은 재봉기를 서두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일에는 금구지방의 농민군들은 금구관아에 들어가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10일 전주방면으로 향하였으며, 10일에는 삼례에 각지에서 농민군이 집결하였다. 13일에는 여산과 전주성에서, 16일에는 위봉산성에서 무기를 탈취함으로써 농민군은 2차 봉기의 횃불을 들었다.²⁵⁾

결국 8월말-9월초의 시점에 농민군측과 개화과정권측은 그간의 애매모호했던 타협국면을 깨고 대결상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측이 대결국면에 들어간 것은 ‘일본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너무 상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개화과정권측은 일본군이 없이는 정권의 유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일본군측에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농민군측은 일본이 범궤하여 국권을 침범하였으며, 이후에도 경성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우리 국토를 침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아 이를 축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던 것이다.²⁶⁾

결국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끌어들여 정권을 유지하고 또 일본군의 힘을 빌어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하

록 지시하였다(『隨錄』 「감결 무주」 갑오 7월 12일).

21)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1990년, 147~150쪽,

22) 국사편찬위원회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268쪽

23) 유영익, 앞의 책, 151쪽

24) 『수록』, 龜村은 현재 금구 원평의 구미란으로 추측된다.

25) 『일본공사관기록』 1, 129~130쪽

26) 『全珠準 再招問目』

는 개화파를 적대세력으로 간주지 않을 수 없었다. 외세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당시의 두 개혁세력이었던 농민군과 개화파가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된 것은 한국근대사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다.

6. 1894년 농민전쟁의 의의와 한계

농민군은 1894년 농민전쟁에서 주객관적 요인들로 인하여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나 1894년 농민전쟁은 역사속에서도 패배한 것은 아니었으며 한국근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첫째, 1894년 농민전쟁은 중세사회의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 중세사회는 신분제와 지주제를 두 支柱로 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894년 농민전쟁은 이 가운데 반상차별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조선후기 이래 신분제는 크게 동요해왔다. 그러나 신분제의 기본적인 틀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1894년 농민전쟁은 그 틀을 깨부수는 계기를 만든 것이었다. 농민전쟁을 계기로 하여 향촌사회에서의 양반지배체제가 갖는 권위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양반제와 노비제도 등이 법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사실상 붕괴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주제의 폐지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농민군측은 이를 정식으로 제기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농민군들은 그해 가을 지대납부를 거부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향점을 드러내었다. 결국 그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지주 전호제의 폐지와 농민에 의한 토지소유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지향은 농민전쟁의 좌절과 함께 다시 잠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주제의 폐지가 중세사회체제를 청산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농민전쟁은 큰 의미를 갖는다.

결국 농민전쟁은 한국 중세 사회체제의 지주가 되는 신분제, 지주제, 봉건적 수취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으로써 한국근대사에서 부르주아개혁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4년 농민전쟁은 봉건적인 민씨정권의 붕괴를 유도함으로써 이후 개화파정권의 성립, 대한제국정권의 성립, 그리고 독립협회운동 등 부르주아적인 변혁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둘째, 1894년 농민항쟁은 조선후기 이래 진행되어 온 반봉건 농민항쟁의 총결산이자 근대민중항쟁의 출발점으로서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1894년 농민전쟁은 이전 단계의 민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질적인 비약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즉 국지적이고 분산적이던 농민항쟁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연계를 가졌던 것, 지방관이 아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항투쟁을 개시한 것, 그리고 집강소 등을 통해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던 것 등은 반봉건 농민항쟁의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신분제의 철폐 등 봉건체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직접 실천에 옮긴 계급투쟁의 양상을 띠었다는 점에서 1894년의 농민봉기는 이전 단계의 '민란'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농민전쟁'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농민전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탕에 기층민중의 사회경제적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근대사회가 중세사회와 달리 기층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시기라 할 때 1894년 농민전쟁은 한국사회의 민중이 그러한 근대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894년 농민전쟁은 반봉건농민항쟁의 총결산인 동시에 근대민중운동의 시발점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는 것이었다.

세째, 1894년의 농민전쟁은 한국근현대사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였던 외세의 침략에 대한 극복을 위해 투쟁하였던 반침략, 반외세투쟁의 선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1894년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야욕이 노골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일본의 그러한 야욕은 1894년 하반기에는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정책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의 한국침략 가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한국내의 가장 반일적인 세력인 농민군이었고, 따라서 일본측으로서는 이 걸림돌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측의 구상을 가장 민감하게 파악한 것은 농민군측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방어적인 입장에서, 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입장에서 반일봉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농민군측은 일본군의 궁궐침입과 서울점령이 단순한 주권의 유린일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토적 침략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보았다. 반면 당시 개화파는 그러한 일본측의 행태가 한국을 청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개화를 이끌어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들은 일본측의 침략의도에 대해 대단히 무감각하였다. 농민군측과 개화파간의 외세에 대한 이같은 인식차이는 결국 양자가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1894년 농민전쟁은 수많은 농민들의 참여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농민전쟁이 현실속에서 패배로 귀결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농민전쟁을 실패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은 외세의 간섭이었다. 제1차 농민봉기시 농민군은 황토제전투와 황룡촌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관군과 대적할만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두차례의 싸움은 아직 정부군의 주력군과의 싸움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두 전투만으로는 당시 농민군의 전력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던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군측의 우세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속에서 청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함으로써 농민군의 복상계획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차 봉기는 외세의 개입에 의해 중도에서 중단된 것이었다. 2차 봉기는 그 목적 자체가 외세의 축출에 있었지만 끝내 그 외세에 의해 진압당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1890년대 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1차 봉기는 일본의 청일전쟁 도발의 구실로 이용되었고, 2차 봉기는 조선보호국화정책을 노리던 일본의 폭압적인 대조선정책 앞에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외세의 간섭은 단순히 무력의 측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측은 개화파와 대원군세력, 개화파와 농민군세력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는 일본측이 조선의 주체적인 개혁세력의 역량을 분열, 약화시킴으로써 조선의 내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외세의 간섭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같은 국내 정치, 사회세력의 분열공작의 측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본의 분열공작에 말려들어 민족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킨 당

시 집권층, 특히 개화파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개화파가 농민군을 자신들의 개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 보지 않고 적대세력으로 간주하여 진압에 나선 것은 농민군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 개화파정권은 1894년 7-8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하면서 농민군측의 요구사항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또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 사이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 집강소체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청일전쟁 등으로 인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일본군의 무력을 빌릴 수 없는 상황하에서의 일시적인 타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화파정권은 청일전쟁이 조선 안에서는 사실상 종결상태에 들어간 8월중순부터 농민군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여 신분제문제등에 대한 개혁조치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8월말에 이르러서는 농민군에 대한 탄압방침을 정하였고, 9월초에는 농민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개시하면서 일본군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개화파정권은 농민군을 진압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농민군을 “양반 사족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폭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²⁷⁾ 개화파는 이와같이 농민군의 반봉건투쟁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동시에 농민군의 반침략투쟁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하였다. 오히려 개화파는 일본군에 대해 조선독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청국과 전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군은 반외세라는 정서에 바탕하여 개화파를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민군은 반사적으로 과거 보수 왕조권력의 상징이었던 대원군에 의거 내지는 연계를 갖고자 했다. 물론 농민군은 아직 독자적으로 정치권력을 수립할만한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원군과의 연계모색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또 대원군은 과거 1860년대에 개혁정책을 비교적 과단성있게 추진한 바 있어 그러한 이미지로 아직도 민중의 뇌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대원군은 역시 보수적인 정객으로서 근대사회를 열어야 할 식견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는 당시 군국기무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개화파의 개혁조치들에 대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또 그는 당시 중앙정계에서 이렇다할 세력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그의 주도로 개혁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세째, 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난 데에는 농민군측의 주체적인 측면에도 원인이 있었다. 즉 농민군측의 이념상의 미숙성,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조직력의 미흡, 농민군의 전략 전술상의 미숙함, 무기의 열세 등이 그것이다. 철종조 농민항쟁 이래 변혁운동세력에게 절실한 과제는 전국적 규모로 농민군을 조직화할 수 있는 변혁운동 이념의 마련이었다. 그러나 농민항쟁세력은 그러한 이념을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고 그대신 안일하게 동학사상에 의거하고 말았다. 동학사상은 중세말기의 천년왕국적인 사상은 될 수 있었지만, 근대사회를 설계할만한 이념적인 토대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학사상은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의 항쟁을 가능하게 하였을지 모르나, 사회변혁운동을 지속적이

27) 「先鋒陣榜示文」 『동학란기록』 상, 285~286쪽

고 체계적으로 이끌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었다.

또 농민전쟁 과정을 통하여 반봉건 농민항쟁은 이전 '민란' 단계의 국지성, 분산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전쟁과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극복된 것은 아니었으며, 지역적 할거성으로 인한 통일적 지휘체계의 미흡함은 농민군의 전열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 농민군은 비록 황토재 전투와 황룡촌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주성전투와 공주공방전에서 패배하였다. 이들 두 전투는 기본적으로 농민군측의 요충지 점령과 守城戰 전략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같은 농민군측의 전술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하는 데에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 이미 공주가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공주성 공략전술을 철회하지 않고 일본군과 정면 승부를 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무기의 열세는 당시 농민군 스스로가 전력상에서 일본군 1명당 농민군 100명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문제는 이러한 열세를 농민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밖에도 농민군측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농민군 지도자가 청국을 농민군에 대한 후원세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점이라든지, 러시아세력이 곧 조선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농민군 지도부의 국제정세인식 상의 한계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개화파 대원군세력 민씨일파 등 모든 정치세력이 안고 있었던 시대적인 한계이기도 했다.

7. 맺음말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는 19세기 후반 여러 정치, 사회세력들의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견해를 들 수 있다. 첫째 견해는 1894년 농민전쟁은 소상공생산지로서 농민의 자립, 발전의 요구와 농민적 토지소유의 요구였으며, 이 점은 개화파의 지주적 토지소유의 옹호 발전을 수용한 갑오개혁과는 명백히 대립적이고 적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당시 농민전쟁이 한국사에서 '민중적 코스'의 민족운동으로서 '부르주아적 코스'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견해는 1894년 농민전쟁을 부르주아적 갑오개혁을 촉발해내고 밑으로부터 뒷받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즉 당시의 역사적 흐름에서 갑오개혁과 같은 개화파의 부르주아적 개혁운동을 주류로 보면서, 농민전쟁은 이를 보완할 수 있었던 운동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1894년의 농민전쟁을 주도한 농민군세력과, 부르주아적 개혁을 주도한 개화파세력을 대립적 관계, 혹은 주종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농민군은 다분히 혁명적이었고, 그로 인해 구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군이 독자적인 힘으로 근대적인 사회변혁을 완수하기에는 주체적인 역량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농민전쟁이 마련한 구체제붕괴의 결정적 계기를 이어받아 부르주아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사회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부르주아적 정치 사회세력이었던 개화파는 주체적인 역량이 대단히 취약하였다. 또 그들은 농민군

보다는 외세에 의존하여 이를 추진하려 하였다. 개화파는 농민군을 자신들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시 농민군 지도부내에는 일찌기 김윤식이 「護富論」에서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던 '饒戶' 층이 상당히 있었고, 따라서 농민군세력은 개화파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는 개화파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세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파는 농민군세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만 간주하였다. 결국 개화파와 농민군은 한국근대 부르주아적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세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적인 세력으로 대립함으로써 부르주아적 변혁과정은 왜곡,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 가운데 특히 제2차 봉기는 1905년 일본이 한국보호국화를 강제한 이후 일어난 반일의 병전쟁의 선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905년 이후 반일의병전쟁의 선구로서는 흔히 1895년 을미의 병을 든다. 그러나 사실은 1894년 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농민군 스스로도 '의병'으로서 천명하였고, 전봉준 등 농민군지도부도 이 점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양반 유생층, 관료층에 대하여 반일연합전선을 펼 것을 호소하였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일의병전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비록 1894-95년에는 러시아등의 간섭에 의해 한국보호국화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10년 뒤에는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 1905년 일본에 의한 보호국화가 강제되었을 때 이에 저항하여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은 10여년전인 1894년 반일투쟁에 나섰던 농민군의 길을 뒤따라 간 것이었다.